6.15주간

주체91(2002)년

6.15Weekly

제40호 (3월 22일~3월28일)

조국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총집결하자



우리에게 어떤 위협도 소용없다

이남 대통령 특사 평양간다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

생존권투쟁과 반미반전투쟁

6.15주간 편집부

6.15주간

6.15WEEKLY

제38호 (3.22~3.28)





조국의 통일위업을 위하여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을 총집결하자

북조선천도교청우당 제3차 대회에서 한 연설

1950년 1월 19일



존경하는 대표 여러분!

나는 오늘 북조선천도교청우당 중앙위원회의 초청에 의하여 귀당 제3차 대회에 참가한 기회에 대회에 모인 대표여러분과 귀당 전체 당원들에게 열렬한 축하를 드립니다.

북조선천도교청우당은 창건초기부터 인민위원회의 정강과 시책을 높이 받들고 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의 일원으로서 북조선에서 민주개혁을 실시하는데 적극 참가하여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건설에 적지 않은 공헌을 하였습니다.

해방직후 우리 나라에 조성된 복잡한 환경에서 천도교청우당은 노동당과 함께 우리 나라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고 민주주의 독립국가를 건설하는데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기 위한 국제적 협정인 모스크바3상회의 결정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귀당은 1946년과 1947년에 2차에 걸쳐 진행된 소미공동위원회사업의 성공을 위하여 전체 인민들과 함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은 성원을 하였으며 소미공동위원회를 파탄시키려는 미제와 국내 반동파들을 반대하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습니다.

미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예속화정책이 노골화됨에 따라 조국이 남북으로 영구히 분열될 위험이 커지고 조국통일이 지연되는 형편에서 우리 앞에는 민주역량을 튼튼히 결속하고 북반부에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강력한 민주기지를 축성함으로써 조국의 통일독립을 달성하고 나라의 민주주의적 발전을 보장하며 민족경제와 민족문화를 부흥 발전시키며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할 역사적 과업이 나섰습니다.

이 역사적 과업을 실천하는 길에서 귀당은 노동당을 위수로 하는 북조선민주주의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참가하였으며 민주주의민족통일전선산하 각 정당, 사회단체들과 함께 20개조정강을 실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는 해방 후 4년 동안에 인민정권기관인 인민위원회들을 강화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에 걸쳐 민주선거를 승리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남북조선 전체 인민들은 자기 손으로 인민의 주권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창건하였으며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고 부강한 민주주의 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자기의 중앙정부를 수립하였습니다.

우리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땅이 없거나 적은 농민들에게 나누어주는 위대한 토지개혁을 실시함으로써 봉건적 토지소유제도를 청산하고 농촌경리발전의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토지의 이용률을 더욱 높이며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하여 관개건설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우리는 부강한 인민민주주의 국가를 건설하는데서 가장 기본적인 경제토대로 되는 중요산업에 대한 국유화를 실시하여 과거 일본제국주의자들과 민족반역자들의 소유였던 공장, 기업소들을 국가와 인민의 소유로 만들었습니다. 북반부의 공장과 제조소들이 인민의 재산으로 됨으로써 우리는 인민들의 복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민족경제의 토대를 구축하는 길에 들어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1947년과 1948년 인민경제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함으로써 일제가 파괴하고 간 공장, 광산, 철도들을 복구하고 많은 새 공장들을 건설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성과에 기초하여 1949년－1950년 2개년 인민경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오늘은 그 계획을 승리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에 있는 모든 공장 굴뚝들은 연기를 내뿜고 있으며 전체 인민들은 증산경쟁에 분망하고 있습니다. 도처에서 관개공사와 교량, 도로 공사들이 벌어지고 있으며 인민을 위한 주택과 병원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의 민족문화를 부흥 발전시키기 위하여 수천 수백 개의 인민학교와 중학교를 세웠으며 대학과 전문학교를 많이 설치하고 민족간부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부터 초등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지난 2년 동안에 그 준비사업을 대대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전국의 방방곡곡 그 어디에서나 우리의 학교들이 새로 건설되어 그전에는 학교문전에도 가보지 못하던 근로인민의 자녀들이 책보를 끼고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 수백만 당원들과 맹원들을 망라하고 있는 애국적 정당, 사회단체들은 조국전선을 결성하고 공화국중앙정부주위에 굳게 단결하여 정부의 정강과 시책들을 실천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귀당 전체 당원들이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산하에 집결된 민주주의 정당, 사회단체들과 공동으로 투쟁한 결과이며 우리들의 공동노력으로써 쟁취한 승리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북반부에서 수행한 민주개혁과 민주건설은 모두 조국과 인민을 위한 것이며 우리 민족의 장래번영을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화국북반부 민주기지를 강화하고 조국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할 수 있게 하는 튼튼한 담보로 되는 것입니다.

해방 후 4년 동안에 공화국북반부에서 우리가 이룩한 빛나는 성과에 대하여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민족적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어찌 북반부의 이 엄연한 현실을 보지 않을 수 있으며 우리의 위업이 정당하다는 것과 인민들의 힘이 위대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것을 외면하거나 부인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성과를 고의적으로 비방하는 이승만 매국역도 뿐일 것입니다.

대표 여러분!

우리가 지난 기간 비록 많은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것은 조국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기초로 될 따름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조국통일을 방해하는 이승만 매국역도를 소탕하지 못하였으며 남반부인민들을 해방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는 파쇼적 경찰 테러 통치가 실시되고 있으며 우리 민족역사에서 일찍이 들어보지 못한 비참한 사태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승만 매국역도는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의 평화적 통일방책을 거부하고 동족상쟁의 내란을 도발하려고 책동하고 있으며 남반부 인민들과 애국인사들을 닥치는 대로 고문, 학살하며 인민들을 실업과 기아의 구렁텅이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놈들은 남반부의 광산, 기업소들을 경매에 붙여 외래



침략자들에게 팔아먹고 있으며 인민들이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으로 쌀을 실어 내가기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남조선시장에서는 쌀값이 급격히 뛰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승만 매국역도는 자기 동족을 학살하는데 일본군국주의자들의 힘을 빌리려고 공공연하게 책동하면서 신성모를 일본에 보내어 일제놈들과 비밀회담까지 벌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승만이 이완용보다 더 악랄하게 나라를 팔아먹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승만이 친일파, 민족반역자들을 모아 가지고 미제의 총칼로써 남조선인민들을 학살하고 있는 사실은 전체 조선인민과 전세계인민들 앞에 여지없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전체 조선인민은 이승만 도당의 매국적 행위와 자기 동족을 학살하는 야수적 만행에 대하여 치솟는 분노를 품고 도처에서 놈들을 반대하여 구국투쟁을 광범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조선형편이 이와 같이 험악해질수록 우리의 애국적 정당들과 전체 조선인민 앞에 나서는 임무는 더욱 무겁고 중대하여 집니다.

우리는 멸망의 길에서 발악하는 이승만 매국도당을 소탕하며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인 ≪유엔조선위원단≫의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우리 조국의 통일을 저해하는 미제의 흉책을 파탄시키기 위하여 구국항쟁을 더욱 치열히 전개하여야 합니다. 이와 함께 재산의 유무,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불문하고 민주세력을 더 한층 굳게 단결시킴으로써 조국의 통일을 하루빨리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은 미제국주의자들의 침략도구인 ≪유엔조선위원단≫과 같은 불청객들에 의하여 실현될 수 없습니다. 우리 조국의 통일은 오직 우리 조선사람 자신의 힘으로 성취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조국통일의 강력한 물질적 담보이며 기초인 공화국북반부의 민주기지를 정치, 경제, 문화의 각 분야에 걸쳐 더욱 튼튼히 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단결을 더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조국의 통일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계층을 막론하고 다 조국전선산하에 집결시킴으로써 모든 애국적 민주역량의 단합을 실현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또한 자기 손으로 수립한 공화국중앙정부를 높이 받들고 그 정강과 시책들을 전조선적으로 실행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해방 후 4년 동안 민주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발휘하여온 애국정신을 더욱 살리며 귀당 전체 당원들을 진보적 민주주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교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조국전선에 집결된 민주역량을 분열시키려는 남조선반동파들의 흉책을 폭로하여야 하며 반동파들이 우리의 민주정당 내에 기어 들어와 당내에 아직 남아 있는 봉건적 완고분자들과 낙후분자들을 이용하여 우리의 단결된 민주역량을 분열시키며 민주주의적 길을 걷는 사람들의 전진을 저해하려는 일체 반동적 시도와 경향들을 반대하여 무자비한 투쟁을 전개하여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민주진영을 더욱 공고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체 인민들과 함께 공화국정부가 제시한 정강을 높이 받들고 국가의 법령, 결정, 시책들을 철저히 실행하는데서 적극성을 다하며 당면하여 2개년 인민경제계획실행을 위한 투쟁에 귀당 전체 당원들을 동원하여야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이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건설투쟁에서 공민의 의무를 다하며 실제생활을 통하여 인민민주주의 제도가 참으로 인민의 이익을 위한 제도라는 것을 더욱 깊이 깨닫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지난 4년 동안 민주건설을 통하여 이미 체험한 바와 같이 우리가 걷는 길은 가장 정당한 길이며 인민들이 지지하는 길이며 조국과 인민을 위한 길입니다. 우리는 조금도 동요함이 없이 이 길에 튼튼히 서서 인민들과 함께 이 길을 힘차게 걸어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길에서 반드시 승리하고야 말 것입니다. 그것은 이 길이 애국적이며 민주주의적이며 인민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누구든지 인민의 길에 튼튼히 선다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이미 명백히 실증하였습니다.

볼쉐위크당의 지도하에 인민의 길을 걷고 있는 소련은 세계의 6분의 1을 차지하는 넓은 땅에서 모든 착취계급을 소탕하였을 뿐 아니라 세계를 지배하려던 히틀러 독일파시스트를 격멸하고 수억만의 피압박인민들을 해방하였으며 오늘은 전쟁 방화자들을 반대하는 위대한 민주역량의 성새로 되고 있습니다.

세계인구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중국도 중국공산당의 지도하에 인민의 길을 걸었기 때문에 수 천년동안 내려오던 봉건통치와 근 한 세기에 걸친 반 식민지적 억압에서 벗어나 인민 민주주의적 해방을 달성하였습니다.

오늘 세계지도에는 유럽으로부터 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 많은 인민민주주의 나라들이 새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미제를 선두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자들이 자기들의 여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새 전쟁을 도발하려고 발악하고 있으나 사회주의와 인민민주주의 위력의 장성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야망이 반드시 파탄되고 말리라는 것은 의심할 바 없습니다.

역사적 경험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자유와 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에 궐기한 인민들은 언제나 승리합니다. 미제국주의자들과 이승만 매국도당이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 아무리 발악한다 하더라도 전체 조선인민이 원하고 지지하는 길, 우리가 걷고 있는 인민민주주의의 길은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그러나 승리는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는 투쟁을 통하여 쟁취하여야 합니다.

모두다 일층 단결된 힘으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구국투쟁에 궐기합시다.

2. 정든 성시에서

≪세기와 더불어≫ 제5권 13장 백두산으로



…

공고한 동료관계는 실천 속에서만 발전할 수 있으며 거듭되는 시련을 통해서만 그 진가를 가늠할 수 있다. 우리가 백두산으로 진출하는 새로운 정세하에서 적을 제압하기 위한 공동의 군사작전을 펼치는 것은 반일부대를 인민혁명군의 충실한 동맹자로 만들며 그들과의 연합을 공고한 것으로 만드는 좋은 계기로 될 수 있었다.

1936년 8월의 무송현성 전투는 우리와 반일부대들과의 공동전선을 확고한 것으로 되게 하는데서 특출한 의의를 가지는 하나의 대표적인 전투였다.

…

망조가 든 만순부대를 구원하는 길은 연합을 실현하는 길이며 연합에 의한 실전을 통하여 그들에게 적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는 데 있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가 만순부대와의 제휴에 성공한 후 그들에게 인차 큰 성시를 하나 치지 않겠는가고 제기한 것이었는데 만순이 제꺽 응해나서는 바람에 일이 순조롭게 풀리게 되었다.

≪김사령이 왕가대장을 쳐갈기는 것을 보고 내 수하의 장졸들은 모두 탄복하였소이다. 김사령 부대와 함께 성시를 친다면 우리 아이들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이니 어서 작전을 짜주시오.≫

만순의 말이었다.

그는 우리가 노령과 시난차, 서강, 대영 등지에서 거둔 성과를 몹시 부러워하였으며 그 전투들에 적용된 전법과 전술을 매우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있었다.

만순은 저 멀리 춘추전국시대로부터 중국명장들은 지략으로 이기고 일본사람들은 용맹으로 싸움을 하는데 김사령은 도대체 어떤 전법으로 싸우기에 연전연승하는가고 물었다.

나는 웃으면서 전법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군인들의 정신상태라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만순은 김사령의 부하들은 모두가 용감무쌍한 강병이라는 것이 한눈에 알린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하나같이 용렬한 자들뿐이니 도무지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긴 탄식을 하였다.

≪대장어른, 너무 상심할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반일공동투쟁을 잘하면 그들도 얼마든지 용맹한 사병들로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성시를 치면 좋겠는지 그거나 골라 보시지요.≫

내가 이런 말을 하자 만순은 손을 홰홰 내저으며 그것도 김사령이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

우리는 만순과 헤어진 다음부터 조국광복회 하부조직들을 지도하는 한편 도처에서 적합한 공격대상을 골라잡기 위한 성시정찰활동을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우리가 만순부대와의 협동작전준비를 한창 하고 있을 때 오의성 부대의 제1지대장 이홍빈이 대오를 이끌고 예고도 없이 불쑥 나를 찾아왔다. 지글지글 끓는 삼복더위를 무릅쓰고 먼 노정을 강행돌파한 이홍빈의 얼굴은 땀에 떠 있었고 군복은 먼지와 소금버캐로 얼룩져 있었다.

이홍빈의 제1지대는 오의성부대에서 전투력이 제일 강한 기간부대의 하나였다. 이홍빈 자신은 오의성의 바른팔이라고 불리울만큼 상관에게 충실한 사람이었고 또 그만큼 총애도 받는 능력있는 지휘관이었다. 우리와는 걸죽한 롱질도 서슴없이 할 수 있는 구면이었다.

북만의 청구자에서 잠깐 만나보고 헤어진 오의성의 부대가 어떻게 되어 남하하는 인민혁명군 부대를 추격하여 무송에까지 나타났을까?

≪나를 김사령한테로 보낸 것은 오사령이올시다. 영감의 말이 김사령부대가 백두산 쪽을 향해 남하행군을 하고 있을 터인데 어디서건 찾아내어 협동작전을 하라질 않겠습니까.≫

지대장은 먼 행군의 피곤도 무릅쓰고 한참동안 신바람이 나서 오사령의 안부를 전하였다.

≪영감이 나보고 김사령부대를 찾아가라고 할 때는 정말 막연했습니다. 내가 ≪이 망망대해 같은 만주땅에서 신출귀몰하는 **김일성**부대를 어데 가서 찾는단 말입니까≫하고 말하니까 영감은 ≪머저리같은게 무슨 걱정이 그리 많아. 모로가도 좋고 기어가도 좋으니 총소리가 제일 높은데로만 찾아가라구. 그러면 거기에 김사령이 있어.≫하더란 말입니다. 영감님 말이 참말 명언이였습니다. 이 만주천지에서 총소리가 그중 높은 고장이 바로 무송일대더란 말입니다.≫

≪하긴 우리 부대가 여기서 매일같이 총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얼마 후에는 만순부대와 함께 큰 성시를 하나 칠 계획입니다. 반대가 없다면 이형이 거느리고 온 지대도 이 작전에 참가시키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런 행운을 내가 마다할 리 있습니까. 오사령도 협동작전을 하라고 내 등을 막무가내로 떠밀어 보냈는걸요. 영감도 뒷처리를 하고 인차 우리를 따라오겠다고 했습니다.≫

만순부대와의 연합이 성공한 때에 이홍빈의 지대까지 합세하고보니 우리로서는 경사에 경사가 겹친 셈이었다.

나는 가슴이 뭉클해졌다. 이홍빈이 정녕 인민혁명군을 돕자고 불원천리 우리를 찾아왔단 말인가. 청구자에서 우리를 만났을 때 오의성은 자기를 반일군 전방사령으로 인정해주지 않는 주보중의 처사를 몹시 원망하면서 의기소침한 기분에 싸여있었다.

그때만 해도 그는 우리와의 합작에 대해서는 별로 화제에 올리지 않았었다.

주보중에 대한 울화만 토로하던 오의성이 **김일성**공산당하고는 죽을 때까지 통일전선을 해야겠다면서 이홍빈을 우리한테 파견한 것은 우리에 대한 지지와 변함없는 믿음의 표시였다. 왕덕림이 쏘련을 거쳐 관내로 들어간 후 비록 일시적으로 동요하기는 하였지만 오사령이 통일전선의 대의를 저버리지 않고 우리와의 합작을 시종일관하게 추구해온 것은 참으로 경의를 표할만한 일이었다.

때마침 만순도 와있어 이홍빈은 그날 신들메를 풀 사이도 없이 협동작전 토의에 참가하였다.

…

우리는 작전회의를 열고 각 부대들에 전투임무를 분담하였다. 우리 부대가 맡은 전투과제는 동산포대를 점령하는 것과 대남문, 소남문 방향으로 공격하여 성안의 적을 소멸하는 것이었다. 반일부대들은 동문과 북문 방향을 담당하기로 하였다. 현성방어에만 매달리고 있는 적들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기 위해 우리는 인민혁명군의 소부대들을 파견하여 전투전날 송수진과 만량하(만량향)를 칠 것도 계획하였다.

그만하면 작전준비가 이상적인 수준에서 진척되었다고 말할 수 있었다. 우리는 이 전투가 우리 연합군의 승리로 끝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었다.

그러나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무송현성 전투는 첫걸음부터 엄중한 난관에 봉착하였다. 그 주되는 이유는 반일부대들이 지정된 집결시간을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움직인데 있었다.

이홍빈 부대가 지나친 열성을 내어 집결지점인 첨창구에 들리지도 않고 동문으로 직행한 데다가 만순휘하의 부대까지 약속된 집결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우리의 애를 말리었다. 연락병을 보낸 다음 한시간나마 기다렸으나 만순의 부하들은 첨창구에 얼굴을 내밀지 않았다.

공격날짜와 공격시간은 우리가 단독으로 정한 것도 아니었다. 만순 이하 모든 반일부대의 두령들과 함께 길흉화복의 조짐들을 충분히 토론하여 정한 날짜였고 시간이었다.

반일부대의 지휘관들은 날짜를 정하는 데서도 미신의 구속을 많이 받고 있었다. 이홍빈 지대장은 공격 날짜와 시간이 어떤 숫자로 구성되는가 하는데 왼심을 썼다.

음양론에 의하며 짝수는 음이고 홀수는 양이므로 모든 중대사들은 1, 3, 5, 7과 같은 홀수로 되는 날짜와 시간을 정해야 좋은 운수를 타게 된다는 것이 이홍빈의 지론이었다.

그런데 음양론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우리가 우연하게도 전투개시시간을 17일 새벽 1시로 정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음력 7월 초하루날이어서 이홍빈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었다.

부대의 일부 역량을 데리고 첨창구에 먼저 도착한 만순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돌아가다가 모두 두 손을 합장하고 동쪽하늘을 향해 무슨 주문같은 것을 웅얼웅얼 외우게 하였다. 천지신명의 도움이라도 받아보고 싶은 심정이었을 것이다. 각 부대의 지휘관들은 만순부대가 배신행위를 했다면서 늙은 두령을 마구 몰아댔다. 만순의 얼굴에는 진땀이 고랑을 지어 흘러내리었다.

나는 그 늙은 두령이 남들의 눈총을 받으며 쩔쩔매는 모습을 보고 측은해지는 심정을 금할 수 없었다. 그 순간에는 이상스럽게도 만순의 책임을 따지고 싶은 생각보다 그를 변호해주고 싶은 생각이 더 났다. 사실 이번의 연합작전을 성사시키는데서 만순만큼 큰 열의를 보인 사람은 없었다. 또 만순처럼 창발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은 사람도 없었다. 그는 자기 부하들에게 작전시간과 작전규율을 엄수할 데 대하여 여러번 강조하였다. 그것은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그토록 중시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커다란 지지로, 고무로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인민혁명군과의 연합을 위해 1선에서 그토록 사심없는 노력을 해오다가 실천상에서는 작전의 전개에 지장을 주게 된 거기에 나로 하여금 만순을 동정하지 않을 수 없게 한 민망스러운 부조화가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나자신도 그 누구를 동정하거나 가련하게 여길 처지가 못되었다. 시간이 한초한초 흘러갈수록 이 싸움의 총지휘역을 수행해야 하는 내 가슴은 안타까움으로 하여 조여들었다. 수백차례에 걸치는 전투를 했다고 하지만 이때처럼 초조하고 당황해진 적은 없었다.

나는 작전회의에서 시간엄수문제를 두고 역점을 더 찍어 강조하지 못한 것이 후회되었다. 그 회의에서 내가 각별하게 힘을 넣어 지적한 것은 성시주민들의 생명재산을 침해하지 말며 군민관계에 오점을 남기지 말데 대한 것이었다. 나는 동녕현성 전투때 반일부대의 사병들에 의해 저질러졌던 그런 류의 비행이 여기 무

송땅에서 두번다시 재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았으며 또 그것을 용인할 수도 없었다.

만순부대의 지각, 그것은 사실 우리가 별로 걱정을 하지 않던 문제였다. 중시하지 않았던 문제여서 오히려 충격은 더 컸다고 본다.

전투의 운명을 비틀어놓을 수 있는 이 비상사고로 하여 우리 앞에는 임기응변의 대응책을 취하든가 아니면 싸움자체를 그만두지 않으면 안될 심각한 정황이 조성되었다. 그렇다고 하여 모처럼 마련된 작전을 포기할 수는 없었다. 싸움을 포기하게 되면 연합작전을 앞에 두고 달아오른 반일부대 병사들과 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만순부대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하는 것은 약담배 때문이였다. 그 부대의 지휘관들과 사병들 속에 아편중독자가 많았다. 그런데 그 많은 아편중독자들이 아편을 빨지 못하여 행군속도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우리는 공동작전의 승리를 위하여 할 수 없이 행군중에 있는 만순부대에 아편을 보냈다.

만일 우리가 아편을 보내는 비상대책을 취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노상에서 하루해를 다 보내고 말았을 것이다.

액목현성 전투를 치른 후 왕윤성이 나에게 연합작전에서 반일부대들이 비교적 싸움을 잘한 것은 아편덕이었다고 말했을 때 나는 그것을 롱으로 받아들이었었다. 만순의 부하들이 아편을 빨지 못하여 행군속도를 보장하지 못하였다는 말을 들으니 그때의 그 말이 롱이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모든 부대들이 예정시간보다 훨씬 늦어 집결장소에 도착하였다. 기본부대를 인솔한 연대장은 맨나중에야 헐떡거리며 만순대장 앞에 나타나 때늦은 도착보고를 하였다.

만순은 싸창을 빼들고 그 연대장을 쏴죽이겠다고 위협하였다.

나는 그 순간처럼 약담배의 해독성을 뼈저리게 느껴본 적은 없었다. 그때의 그 절박한 체험은 훗날 우리로 하여금 유격대에서 아편중독자들에게 총살형을 적용한다는 극단적인 규정까지 작성하지 않을 수 없게 하였다.

…

모든 부대들이 목에서 쇠비린내가 나게 급보로 행군을 다그쳤으나 그것은 행차뒤나발이었다. 성문들 앞에서 약속된 신호를 기다리며 보초를 서던 위만군 중대의 반일회 성원들은 교대시간이 되자 기관총의 기관실에 모래를 쓸어넣고 초소에서 철수하였다. 성문을 은밀히 열고 성안에 돌입하여 적들을 일격에 섬멸하려던 우리의 작전계획은 시작부터 뒤틀어졌다.

솔직히 말하여 그때 나는 전투를 단념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까지 하였다. 그런 정황에서는 오히려 전투를 다른 날로 미루는 것이 현명한 처사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피에 젖은 무송시가를 눈앞에 두고 싸움을 단념하기에는 우리의 적개심이 너무도 강했고 백두산 지구의 장악을 위해 그 싸움을 건 우리의 기대가 너무도 큰 것이었다.

만일 우리가 1,800여명이나 되는 병력을 가지고서도 성시를 치지 못하고 물러선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세상은 우리를 보잘 것 없는 오합지졸의 무리라고 비난할 것이 아닌가. 반일공동전선의 대의는 비누거품과 같은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며 장차 백두산에서 울리려는 우리의 총성이 무맥한 것으로 될 수 있었다.

나는 비록 정황은 어렵게 되었지만 우리가 선봉에 서서 결사의 각오를 가지고 모처럼 마련된 작전을 승리에로 이끌자고 인민혁명군 지휘관들에게 호소하였다.

무송현성 전투의 서막은 이처럼 복잡한 곡절을 겪었다.

인민혁명군 대원들은 내가 공격명령을 내리기 바쁘게 동산포대를 단숨에 점령하고 소남문 방향을 향해 돌진하였다. 반일부대 병사들도 북문과 동문 쪽으로 진공하였다. 소남문 앞거리에서는 백병전이 벌어졌다. 성문으로 육박하는 아군을 향해 포대의 기관총이 불을 뿜었다. 소남문 가까이에 지휘처를 정한 나는 그 기관총 소리에 귀가 멍멍해질 지경이었다.

인민혁명군 부대들은 기관총 중대의 엄호를 받으며 성문을 까부시고 시내로 돌입하였다.

그런데 우리의 대원들은 육탄으로 첫 돌파구를 열어놓은 그 시각에 북문을 공격하던 만순부대가 적의 포성에 질겁하여 퇴각한다는 연락이 날아왔다. 나는 이동학중대장에게 급히 중대를 데리고 북문 쪽에 가서 만순부대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였다.

조금후에는 동문을 담당했던 이홍빈의 부하들이 반격해오는 적을 막지 못하고 뒤로 밀리기 시작한 탓으로 동문을 나선 적들이 모조리 소남문 쪽으로 밀려오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전광이 책임진 소부대가 만량하 습격전투를 포기하고 돌아왔다는 보고까지 날아들어 내 마음을 어수선하게 하였다. 이유인즉 두도송화강물이 불어나 건널 수 없었다는 것이였다. 북문을 공격하던 만순의 부하들이 뒤로 한꺼번에 밀려난 원인은 포소리에 놀란 것 때문만이 아니었다. 만량하 습격을 단념하고 돌아오는 아군의 한 부대를 적의 증원군이 밀려오는 것으로 잘못 알고 앞뒤로 타격을 받을 것 같아 지레 겁을 먹고 꽁무니를 뺀 것이었다.

만순부대의 공격서열이 수라장으로 되자 그 여파가 익측에까지 미쳐 이홍빈부대도 풍지박산이 되었다. 전광이 습격전투를 포기하고도 제때에 보고하지 않은 후과는 이처럼 전반적인 전투행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었다.

전국을 미쳐 수습하지도 못하였는데 벌써 날은 푸름푸름 밝아오고 있었다. 정황은 우리에게 시시각각으로 불리해지고 있었다. 이때 이홍빈이 나에게로 달려왔다.

≪사령님, 판이 글러진 것 같습니다. 이 이상 어물거리다가는 전멸을 당합니다.≫

이홍빈이 바라는 것은 즉시에 총퇴각하자는 것이었다.

≪아하, 끝장이로구나!≫

그는 고개를 뒤로 젖히고 밝아오는 새벽하늘을 쳐다보며 절망적으로 부르짖었다.

나는 이홍빈의 어깨를 움켜쥐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지대장, 너무 낙망하지 마시오.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싹 차리고 화를 복으로 만들어야 하오. 복 속에 화가 숨어있고 화 속에 복이 숨어있다고 하지 않소.≫

내가 이홍빈에게 이런 말을 한 것은 화를 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 어떤 특별한 묘안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었다. 나는 반일부대들이 퇴각을 시작한 이 기회에 유인전술을 써서 주도권을 잡아야겠다는 결심을 굳히었을 뿐이였다.

정황이 불리해지는 경우 적을 성문 밖으로 유도하여 골짜기에 몰아넣고 포위섬멸한다는 것은 유격활동의 전술적 원칙이기도 하였지만 우리가 미리부터 준비해놓은 복선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이런 유인전술은 야간에 적용해야만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있었다.

우리 앞에는 날이 완전히 밝기 전에 전장에서 철수하든가, 아니면 정면돌격의 방법으로 결사전을 벌이든가 하는 두갈래의 길이 놓여있었다.

그런데 우리가 유인전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품은 다음에도 인명피해가 두려워 퇴각명령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하늘이 우리를 돕는 기적이 생기었다. 현성과 그 주변에 갑자기 짙은 안개가 서리면서 한치 앞도 가려볼 수 없는 천지조화가 일어난 것이다.

나는 각 부대들에 흩어진 병사들을 이끌고 동산과 소마록구 능선으로 철수할 것을 명령하였다.

적들은 퇴각하는 아군을 미친 듯이 따라왔다.

우리가 동산을 오르기 시작할 때 그 산 중심돌출부의 잘루목에서 한방의 총소리가 울려나왔다. 나는 불안을 느끼며 걸음을 멈추었다. 전투 후의 아침식사 준비를 위해 떼여둔 7~8명의 여대원들이 그 잘루목에 남아있었기 때문이였다. 아군의 주퇴각방향이 동산이라는 것을 탐지한 적들은 잘루목을 앞질러 차지하고 우리 지휘부와 주력부대를 양쪽에서 타격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다.

잘루목에서는 총소리가 더 자지러지게 들려왔다. 우리의 여대원들이 적의 대부대와 치열한 화력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나는 전령병을 시켜 잘루목의 형편을 알아보게 하였다. 전령병은 사령부의 안전을 위하여 잘루목을 피로써 지켜내겠다는 김확실, **김정숙** 동무들의 결의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사실 이날 우리 지휘부는 잘루목을 영웅적으로 지켜낸 여대원들에 의해 구원되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적을 막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적들보다 먼저 동산으로 오르지 못하였을 것이다. 그 여대원들과 함께 우리 부대의 7연대 4중대는 결사적으로 동산을 사수하였다.

잘루목에서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7연대 주력은 자욱한 안개를 이용하여 동산남쪽고지에 긴 매복진을 폈다. 반일부대들도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맞은편 능선을 차지하였다. 그때에야 주력의 철수를 엄호하던 중대는 적들을 유인하면서 안개낀 골짜기로 깊숙이 철수하였다. 그들도 나중에는 골짜기 막바지에 있는 산등성이에 올라 감쪽같이 매복하였다.

시참으로 악명을 떨친 다까하시부대는 일단 발을 들여놓으면 살아서 돌아가지 못하는 죽음의 함정 속으로 모조리 끌려들어왔다. 승패는 이미 결정된 셈이었다.

우리는 산에서 내리쏘고 적들은 골짜기에서 올리쏘는 화력전이 얼마동안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다까하시의 사병들은 만순이 용맹의 전법이라고 말하던 그런 악독한 전술로 파장식 돌격을 들이댔으나 매번 주검만 남기고 물러서고는 하였다. 돌격이 은을 내지 못하게 되자 그들은 총질을 멈추고 산기슭에 붙어 증원부대가 오기를 기다리었다.

나는 반돌격명령을 내리었다.

유창한 나팔소리와 함께 매복진에서 뛰쳐 일어난 아군용사들은 적들을 닥치는대로 쓸어 눕히었다. 백병전의 선두에는 ≪연길감옥≫이란 별명을 가진 7연대의 분대장 김명주가 서있었다.

김명주는 5.30 폭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되어 연길감옥에 수감되었던 사람이였다. 그는 옥내의 지하조직성원들과 함께 5년 동안에 여섯 번이나 탈옥을 시도하였다. 도끼로 전옥을 까눕히고 탈옥에 성공한 주인공이 다름아닌 김명주였다. 전우들이 그에게 ≪연길감옥≫이라는 별명을 붙여준 것은 이런 사연때문이었다.

김명주에게는 ≪연길감옥≫이라는 별명 외에 ≪칠성자≫라는 별명이 하나 더 붙어있었다. 그는 일곱번 큰 전투에 참가하여 일곱번 큰 공을 세우고 부상을 당하였는데 전우들은 이 사실을 민감하게 반영하여 그에게 ≪칠성자≫라는 별명을 붙이였다. 칠성자란 탄알 일곱발을 재우게 되어있는 권총이다. 김명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부대의 사자였다.

김명주가 연길감옥에서 탈옥투쟁을 할 때 그를 희생적으로 도와준 8연대의 중대장 여영준도 이 전투에서 ≪칠성자≫ 못지않게 잘 싸웠다. 김명주와 여영준은 투쟁 속에서 우정을 맺은 딱친구였다.

유격대의 ≪여장군≫ 김확실은 시종 두눈을 부릅뜨고 기관총을 쏘았다. 왜 한눈을 감지 않느냐고 전우들이 묻자 그는 왜놈의 더러운 상통을 똑바로 보려고 그런다고 대답하였다고 한다. 그가 기관총을 휘두를 때마다 적들은 비명을 지르며 무리로 나가 넘어졌다. 김확실은 이날 납창을 뽑아들고 육박전에도 참가하였다.

김정숙이 양손에 싸창 한자루씩 거머잡고 기관총으로 연발사격을 하듯이 불질을 하여 10여명의 적들을 쓸어눕혔다는 일화도 무송현성 전투가 빚어낸 것이었다.

아편 때문에 싸창맛을 볼 뻔했던 만순이네 연대장은 적탄이 비발치는 바위위에 올라서서 구령을 치며 연대를 지휘하였다. 모든 반일부대가 이날은 실력을 충분히 과시하였다.

다까하시의 ≪정예부대≫는 동산골짜기에서 전멸을 면할 수 없었다.

…

우리가 진지수색을 끝마치고 깊은 수림속으로 철수해가고 있을 때 신경에서 날아온 적기들은 우리 손에 의하여 파괴된 동산포대와 현성 부근의 주민가옥들에 눈먼 폭탄들을 마구 내리던지었다.

≪김사령, 저놈의 비행기들도 사령의 최면술에 걸려든 게 아닙니까?≫

미친 듯이 급강하하는 폭격기들을 깨고소한 눈길로 바라보며 만순이 하는 말이었다.

나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무송현성 전투의 목적이 훌륭하게 달성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만순의 앞에서는 전리품들을 한짐씩 가득 진 수백명에 달하는 그의 부하들이 연대장의 인솔하에 개선장군들처럼 씩씩하게 걸어가고 있었다. 아편부족 때문에 집결시간조차 지키지 못하여 작전에 막대한 혼란을 주었던 사람들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그들의 표정과 걸음걸이는 일변하였다. 반일부대의 행군대오에서는 웃음소리가 연달아 일어났다.

≪우리가 이런 전투를 계속하면 저 사람들이 능히 약담배도 끊어버릴 것 같습니다.≫

나는 만순에게 그 대오를 손짓해보이며 신심에 넘쳐 말했다.

≪부탁인데 연대장을 용서해주지 않겠습니까.≫

만순은 그 말을 듣자 눈물이 글썽해졌다.

≪김사령, 고맙소이다. 사실 그것은 내가 사령님에게 해야 할 부탁이였수다. 사령님은 그 말씀 한마디로 우리 모두를 용서하여 준 셈입니다. 이제는 우리 아이들도 사람 구실을 할 것 같수다. 나도 오의성처럼 김사령하구는 죽을 때까지 통일전선을 하겠소이다.≫

확실히 무송현성 전투는 동녕현성 전투나 라자구 전투와 마찬가지로 반일부대 장병들에게 사상개조의 길을 열어준 충격적인 사변이였다. 그들은 이 전투를 치르고나서 처음으로 통일전선의 맛을 알게 되었다. 실천이란 언제나 이론보다 더 생동하고 확고한 믿음을 주는 법이다. 반일부대들과의 통일전선에 대한 우리의 사상과 이론은 빈말공부가 아니라 진리이며 진실이라는 것이 무송현성 전투를 통하여 다시한번 확증되었다.

…

나는 무송현성 전투 결과를 두고 매우 만족스럽게 생각한다. 털어놓고 말해서 우리는 그 싸움의 승리가 가지는 군사실무적 의의보다도 정치적 의의를 더 중시하였다.

반일부대와의 공동전선을 강화한 것, 백두산 서북지구를 우리 손에 더 확고히 장악한 것, 그 승리의 정치적 의의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이렇게 요약하여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소멸한 적병력수와 전리품의 수량 같은 것은 나의 기억에 크게 남아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이것을 조금도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인생의 기적을 안겨준 위대한 품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8일~19일

작년말에 폴란드 주체사상연구회그룹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동지의 정치철학은 동지애≫라는 소재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거기서 오늘 국제무대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치지도자로 공인받고 계시는 **김정일**영도자께서 내세우시는 정치이념, 정치철학은 동지애라고 하면서 그분의 동지애는 혁명의 길에서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 사이의 사랑, 그 어떤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뜻과 의지로 맺어진 참다운 인간애이며 사회전체를 하나의 동지의 세계로 만드는 것이 그분의 뜻이며 의지라고 강조했더라구요.

≪인생의 기적을 안겨준 위대한 품≫ 윤정원씨 말씀통해서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신념의 의지의 화신이라고 부르시며 베풀어주신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씨에 대한 사랑의 얘기 듣기로 해요.



신념과 의지의 화신 이인모씨를 만나주시는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우리 민중과 세인들은 **김정일**장군님이 명장중의 명장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은 그분이 장군이시기 전에 숭고한 덕망을 지니신 위대한 인간이시라는 걸, 이걸 더 잘 알고 있어요. **김정일**장군님은 참사랑의 화신이십니다. 한방울의 물에 우주가 비끼듯이 신념과 의지의 화신인 비전향장기수 이인모씨가 받아안은 사랑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는건데요. 이인모씨의 북송 9돌을 맞으며 경향 민중은 이씨에게 베푸신 장군님의 사랑과 은정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봅니다.

지옥속에서의 45년과 낙원속에서의 9해.

한 인간의 운명에서 이처럼 극적인 전변의 획이 그어진 건 사람들에게 참으로 많은 걸 생각케하고 있어요.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최악의 역경속에서 혼신은 타서 시들어버린 폐인처럼 됐던 이인모씨가 신념과 의지의 화신, 불사신의 영웅으로 만사람의 찬탄과 존경을 받는 것을 두고 세인들은 기적이라고들 말했습니다.

비결은 그렇습니다. 운명이 경각에 이르렀던 이씨가 북에 가서 회생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은 인류사상 아직 있어보지 못한 기적이 아닐 수 없죠. 이씨가 북송될때 휴전선까지 따라나갔던 의사의 말에 따르면 그의 생명이 최고 3개월을 넘기기가 힘들거라고 했습니다.

이인모씨가 이 땅에서 산 43년이라는 세월을 날짜로 세어보면 무려 1만5690여일이나 돼죠. 이 긴긴 세월의 순간순간을 귀축같은 악형들의 갖은 폭행과 추위와 기아속에 겨우 목숨을 부지한 병약한 인간이 죽음을 이기고 살아날 수 있으리라고 누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씨가 감옥생활을 하던 34년을 초가 아니라 분으로만 따져도 근1800만분이나 됩니다. 전향문에 지장을 찍는데는 단 몇초도 걸리지 않는 그 무수한 순간순간을 고통뿐이 없는 지조와 절개, 신념과 양심의 연속으로만 이어왔다는 건 실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이인모씨가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자체가 기적이 돼지 않을 수 없죠. 하지만 그것은 결코 그 어떤 하늘의 조화나 신의 마술도 아닙니다. 이씨가 견뎌내고 승리할 수 있은 건 그 마음속에 신념과 의지의 기둥, 그가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수령과 영도자가 계셨기 때문입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씨가 조국의 품에 안기기 전에 온 세상에 친필로

≪신념과 의지의 화신 이인모동지를 우리 당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어요. 세인들은 장군님의 이 친필말씀에서 한 인간

의 운명을 책임지고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것이 어떤 품인가를 참으로 감격적인 서사시적 화폭으로 보게 됐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 전사가 아직은 적지에 있을때 이렇게 높은 정치적 평가를 주신 건 그의 한평생을 영광의 언덕에 올려세워준 최상의 믿음이고 사랑이였습니다.

이인모씨가 조국의 품에 안긴지 한해가 지난 어느날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이런 뜻깊은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당신께서는 북에 있는 항일혁명투사들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남에서 혁명한 동지들을 믿고 사랑한다고, 적구에 있는 전사들을 생각하는 자신의 마음은 세월이 흐를수록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생동하게 새겨진다고, 그래서 34년동안이나 철창속에서 고생한 이인모동지를 기어이 데려왔다고, 자신께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전사들에 대한 영도자의 의리이고 의무라고 생각한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인모씨가 조국의 품에서 보낸 9년간의 나날은 참으로 동서고금에 찾아볼 수 없는 전사에 대한 수령의 가장 숭고한 의리와 사랑의 세계가 펼쳐진 나날이였습니다. **김일성**주석님께서는 탄생 81돌을 맞으시던 91년 4월 15일에 친히 이인모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으시고 따뜻이 문병하시면서 이인모와 같은 훌륭한 공산주의자를 가진 것은 조선노동당과 공화국의 커다란 자랑이라고 높은 평가와 분에 넘치는 믿음을 안겨주셨죠.

주석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이씨에게 자신께서 친히 존함을 쓰신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수여해주시고 그의 손목에 존함이 새겨진 금시계를 채워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의 기념사진을 함께 찍어주셨습니다.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이씨가 이남에 있을때 벌써 그에게 ≪공화국 영웅≫칭호를 수여해주시고 조국의 품에 안겼을 때에는 고급주택, 고급승용차, 고급피아노, 고급이불 등 주실 수 있는 사랑을 다 안겨주셨죠. 장군님께서는 그에게 이북의 최고훈장인 ≪**김일성**훈장≫을 수여해주도록 하시고 그의 고향에 있는 초등학교에 그의 이름을 붙여 부르게 하시고 ≪신념과 의지의 화신 이인모동지를 우리 당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라는 친필이 새겨진 글까지 써서 주셨어요.

장군님께서는 전국 노병대회때 이인모씨를 참가시켜 **김일성** 주석님옆에 앉혀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이인모씨의 생일 80돌을 맞으며 그에게 1등 ≪공화국영웅≫칭호를 수여해주시고 사랑의 생일상을 보내주셨습니다. 장군님께서는 뜻깊은 명절날마다 이씨에게 사랑의 선물을 보내주셨고 간계절마다 명승지들에서 가족과 함께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에 사랑을 겹쳐서 안겨주시고도 부족한 것이 있을세라 늘 마음 쓰시던 장군님께서는 이씨를 해외에 보내 병치료를 받도록 은정 깊은 사랑을 또다시 베푸셨죠. 장군님께서 우리 당이 이인모를 데려왔는데 이 세상에 좋다는 약들은 다 써보고 용하다고 하는 의사들에게도 다 보여서 병을 완치시켜야 마음을 풀겠다고 하시면서 이인모씨를 지구의 서방국에 보내도록 하셨다는 소식에 접하고 이씨와 간부들은 놀라움과 격정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생명보다 신념 하나만을 움켜쥐고 살아온 저에게 있어서는 백약과 ***이 무효고 오직 장군님의 사랑만이 만병통치의 불사약이며 숨지는 순간까지 장군님슬하를 한순간도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인모씨는 이렇게 아뢰였으나 장군님께서는 어떻게하나 그의 병을 더 회복시키는 것이 공산주의자들의 의리라고 하시면서 친히 *** **시고 막대한 치료자금까지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인모씨는 한달동안이나 미국 뉴욕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돌아왔어요. 이처럼 이인모씨의 한평생은 위대한 어버이, 위대한 영도자의 믿음과 사랑속에서 가장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이인모씨는 **김정일**장군님께 삼가 지어올린 헌시 ≪사랑에 대한 생각≫에서 이렇게 썼죠.

40여년 세월
집이 없는 천막칸 남쪽에서
사랑과 담을 쌓은 악의 세상에서
사랑이란 말조차 잊어버린 저였습니다
그러나 분리선에서부터 ***에 안겨
사랑과 사랑이 저를 키우고 있습니다
미처 알지 못한 그 사랑 어디서 오는 것인지
가르쳐주지 않아도 느꼈습니다
너무도 뜨거워 너무도 고마워
자애로운 **김정일**, 당신의 사랑입니다

제 놀랐습니다
세상에 이런 큰 사랑도 있는가
사랑밖에 밀려났던 이몸
70고개를 넘어선 오늘에야
당신의 사랑이 무엇인지 뒤늦게 나마 알고 웁니다
아 -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이시여!
열렬한 사랑의 인간
당신은 위대한 사랑의 화신이시옵니다

김정일장군님의 품속에서 이인모씨의 생활은 행복의 무아경속에서 흘러가고 있어요. 이씨가 마음의 기둥을 세우고 신념의 인간으로 행복과 영광의 최절정에 올라서게 한 9년과 인간적인 모든 것을 유린당하는 갖은 인생고초를 겪게 한 43년을 통해 우리 민중은 인간의 참삶과 행복, 민족의 미래는 **김정일**장군님의 품에 있으며 그분의 품이야말로 온 겨레가 안겨 살 위대한 사랑의 품, 행복의 품임을 절감하게 됐습니다.

윤정원씨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모선생님이 집필하시고 ** 정**씨가 정리한 수필집 ≪영장과 전사≫, 한번 구해서 읽어보세요. 갖은 고초속에서도 신념을 지킨 전사들에게 부어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을 뜨겁게 실감할 수 있는 수기더라구요.



부시가 몰아온 전쟁 먹구름 걷어내자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20일~22일

얼마전에 전쟁광신자 부시가 한국행각을 단행했는데요. 부시의 행각에 이어 연속 이어지는 미국호전광들의 방한과 대규모적인 북침전쟁연습책동으로 이 땅위에는 시시각각으로 핵전쟁의 먹구름이 더욱 짙어만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부시가 몰아온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달에 우리 민중의 항의규탄에도 불구하고 부시미대통령이 끝끝내 한국행각을 단행했는데요. 부시가 왔다간 이후 이 땅에는 전쟁의 먹구름이 나날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전쟁광신자, 죽음의 상인으로 불리우는 부시가 이 땅에 몰아온 먹구름은 다름아닌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핵참화를 덮씌우려는 북침 핵전쟁의 불구름입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는 북에 대한 선전포고와도 같은 망발을 연발하면서 고의적으로 한반도에 분열과 대결의 냉전기류를 몰아왔습니다.

미국은 우리 민족의 통일열기가 높아질때마다 의도적으로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왔습니다. 이번 부시의 방한도 6.15공동선언을 높이 치켜들고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나라의 통일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의 길을 기어코 가로막고 새로운 핵침략전쟁을 일으키려는데 있습니다.

부시의 방한과 때를 같이해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주한미군이 매일 140여대의 전투기들을 내몰아 전쟁연습을 벌인 것만 봐도 부시가 어떤 먹구름을 이 땅에 몰아왔는가를 단언할 수 있다고 봅니다.

주한미군의 영구주둔을 또다시 강조한 호전광부시가 이 땅을 떠나자마자 잇따라 벌어지는 ≪RSOI≫와 ≪독수리≫를 통합한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은 지금 한반도에 어떤 위험이 시시각각으로 닥쳐오고 있는가를 현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민중은 이미 전에 미국이 주한미군 제8군을 전시체제인 야전군체계로 개편하고 이 땅에 방대한 무력을 끌어들여 보다 공격체계로 완성하는 한편 제2의 북침전쟁계획인 ≪5027-98≫을 짜놓고 그 실행을 위한 대규모 군사연습을 연일 벌여왔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광부시의 방한은 이 모든 것을 현지에서 검토하고 북침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자는 것외에 다른 것이 아니였습니다. 때문에 부시의 방한자체가 전쟁이라고 비판한 통일문제연구소 소장 백기완씨를 비롯한 우리 민중은 미국의 북침핵전쟁책동저지투쟁에 결사분기해 나서고 있습니다.

이 땅에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치솟는다면 그건 민족공멸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저들의 일방적인 세계 패권주의로 우리 민중을 희생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거점으로 동북아시아에 대한 지배권을 장악하려는건 미국의 변함없는 야망입니다. 미국의 오만방자한 패권주의에 우리 민족의 운명이 농락당할 수는 없습니다. 더욱이 미국의 세계 패권주의적 야망에 의해 민족이 공멸할 위기에 처한다는 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 민중은 누구나가 다 반미반전투쟁에 나서 부시가 몰아온 핵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민중이 살고 민족의 번영하는 길이 있습니다. 당면해서는 ≪RSOI≫와 ≪독수리≫를 통합한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저지분쇄하는 투쟁에 노농대중을 비롯한 각계 민중이 한사람같이 분기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 투쟁에서 앞자리에 서야 할 사람들은 다름아닌 미국의 경제침탈과 전쟁책동으로 인해 가장 혹심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우리 노동자, 농민들입니다. 우리 노농대중은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 민중과 어깨 겯고 반미반전투쟁에 과감히 분기함으로써 미국의 침략전쟁책동을 분쇄해 내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부시가 몰아온 핵전쟁의 먹구름, 우리 손으로 걷어내고 꿈에도 소원인 노동자, 농민이 주인된 자주통일의 새 세상을 마련합시다.

미국이 이 땅위에 몰아온 핵전쟁의 먹구름, 우리가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걷어주지 않습니다. 이 땅에 드리운 먹구름 오직 우리 노동자, 농민이 앞장서서 우리 민중의 손으로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반전반미투쟁 백만학도 총분기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20일~22일

이 시간에는 ≪반전반미투쟁에 백만학도 총분기해 나서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학생 여러분!

오늘 한반도정세는 미국의 대북강경정책과 북침전쟁책동으로 인해 전쟁접경에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한미연합사령부는 해마다 별도로 진행하던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해서 벌여놓고 있습니다.

이번 훈련은 주한미군뿐 아니라 미국 본토와 일본 그리고 괌도 등 해외주둔 미군병력 수만명을 포함한 한미연합군 50만명이상이 참가하는데다 각각 따로 실시되어온 두 개의 군사훈련을 통합해 실시하는 것으로해서 사상최대의 전쟁연습으로 됩니다.

이것은 팀스피리트훈련의 재현으로써 계획적인 북침전쟁연습의 일환입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미국의 이번 한미연합훈련이 부시의 방한이후에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부시의 방한이 철두철미 북침전쟁준비를 최종확인하기 위한 침략행각이였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은 부시행정부가 그동안 말로만 부르짖던 북침전쟁이 이제는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태의 엄중성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자주통일을 열망하고 있는 우리 국민은 지금 이 엄중한 사태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올해 정초부터 6.15공동선언이행을 위한 발걸음을 힘있게 내디뎠습니다. 반테러를 구실로 한 미국의 무력증강책동반대, 이북에 대한 부시의 ≪악의 축≫망발과 그의 방한을 계기로 타오른 범국민적인 반부시반미투쟁의 불길, 친미사대매국노 이회창을 매장하기 위한 반이회창투쟁 등 연이은 투쟁으로 이 땅을 뜨겁게 달군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투쟁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굳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하겠습니다.

미국이 이러한 우리 민중의 자주통일염원에 도전해서 한미연합훈련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프간에서 터뜨린 반테러전쟁의 불집을 한반도에로 확대하여 제2의 아프간전쟁을 도발하려는 극히 무모한 침략책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런데도 미국은 침략적이고 공격적인 한미연합훈련의 명분을 북의 도발에 대처한다는 허구적인 궤변에서 찾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지금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미국의 파렴치한 반북히스테리에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땅의 민심은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한반도에 한시바삐 평화가 깃들고 자주통일의 새국면이 펼쳐지게 되기를 그 어느때보다도 안타깝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북에서는 새해 벽두에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고수, 이행하고 우리 민족끼리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의했습니다. 지난 1월 이북의 공화국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가 제안한 3대호소, 3대제의는 그 대표적 사례라 하겠습니다.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이북의 3대호소, 3대제의에 적극 지지호응하여 민족자주통일성업투쟁에 과감히 나섰습니다.

그러나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정부는 예년에 없는 대북강경정책과 무력증강책동, ≪악의 축≫ 발언으로 우리 민중의 통일열기에 찬물을 끼얹었습니



다. 뿐만 아니라 모처럼 마련된 민족의 단합과 통일을 촉진하기 위한 2002년 새해맞이 남북공동모임마저 무산시켜 버리도록 이 남의 우익보수세력을 부추겼습니다.

제반 사실은 미국이 떠드는 남침위협과 한반도평화, 북과의 조건없는 대화는 완전히 거짓이며 미국이야말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교란자라는 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이 벌여놓은 연합전시증원훈련과 독수리훈련은 또한 날로 높아가는 우리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의 반미투쟁기운을 군사적 위협으로 압살하려는데 그 저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올 정초부터 시작되어 부시방한을 계기로 고조된 우리 민중의 반미투쟁은 그 폭과 심도, 열의에 있어서 일찍이 있어본 적이 없는 것이였습니다. 특히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 종교인, 심지어 정치권까지 망라된 부시방한반대투쟁과 반미투쟁들은 부시에게 우리 국민의 반미자주의지를 똑바로 보여주고 전율케한 일대 과시로 됩니다.

당황한 부시행정부는 우리 국민의 반미투쟁의지를 군사적 위협으로 압살하려는 흉계밑에 해마다 따로따로 실시하던 두 개의 군사연습을 하나로 통합하여 그 규모를 사상최대로 했고 훈련날짜도 청년학생들과 노동대중을 비롯한 각계 민중의 투쟁이 고조되는 봄철투쟁에 맞추어 정했던 겁니다. 이것은 미국이야말로 평화와 통일의 교살자일뿐 아니라 이 땅의 민주화와 민중생존권투쟁마저 압살하려는 우리 국민의 철천지원수임을 다시 한번 똑똑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년학생 여러분!

현 시국은 우리 청년학생들을 미국의 침략적인 한미연합군사훈련책동을 단호히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투쟁에로 부르고 있습니다. 만일 미국의 이 침략전쟁연습을 그냥 놔둔다면 한반도는 핵전쟁의 불길속에 휘말려 들고 우리 민중이 그 피해자로 될 것이며 꿈에도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염원도 실현될 수 없습니다.

평화냐 전쟁이냐, 통일이냐 분열이냐, 민주생존권을 쟁취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이 엄숙한 시각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수도 가만히 앉아있을 수도 없습니다.

정의와 진리를 귀중히 여기고 평화를 사랑하며 통일애국에 불타는 백만청년학생들은 시국의 부름에 적극 호응해서 반전반미투쟁에 총분기해 나서야 합니다.

한총련을 비롯한 청년학생조직들과 운동핵심들은 학생들속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저의와 그 악결과를 널리 알려주어 이를 저지분쇄하기 위한 투쟁에 백만학도 모두가 떨쳐나서도록 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각 지역 대학 총학생회들 사이에 연계를 긴밀히 하여 조직적인 동시다발투쟁으로 미국의 침략전쟁연습책동에 단호한 반격을 가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지금 벌이고 있는 미국의 한총련에 대한 테러단체규정반대, 이적단체규정철회, 국가보안법철폐, 주한미군기지철폐, 무기강매반대 등 투쟁들을 계속 힘있게 벌이는 것과 함께 이 모든 투쟁을 한미연합군사훈련반대투쟁과 밀접히 결합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주어진 합법적 공간을 최대한 이용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며 대중적인 투쟁방법과 전술을 능동적으로 구사활용해 나가는 것이라고 봅니다.

반전반미투쟁을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 이 투쟁을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고조시키는 것입니다. 운동핵심들과 청년학생들은 각 대학과 지역의 특성에 걸맞게 인터넷홍보, 거리홍보, 노래패활동 등 여러 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목적과 악결과를 각계 민중속에 널리 알려주며 그들이 투쟁에 적극 동참해나서도록 해야합니다.

노동자, 농민들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의 생존권투쟁이 본질에 있어서 세계화의 원흉인 미국을 반대하는 투쟁이라는 걸 깊이 알려주어 신자유주의구조조정과 수입농산물반대투쟁이 전면적인 반미투쟁에로 지향되도록 선도자적 역할을 해야합니다. 이와 함께 부시방한반대투쟁의 경험을 적극 살려 각계각층 민중들이 벌이는 여러 형식의 반미투쟁들에 적극 지지동참하여 범국민적인 반미연대투쟁전선을 형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양된 국민들의 반미투쟁기운을 미국의 한미연합군사훈련반대투쟁을 계기로 범국민적인 반전반미투쟁에로 지향시켜 나가야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 청년학생들에게는 조국과 민중의 운명이 경각에 이르렀을 때 주저없이 한몸 서슴없이 바쳐 투쟁한 자랑스러운 전통이 있습니다. 백만 청년학생들은 이 고귀한 전통을 계승하여 반전반미투쟁에 총분기해나섬으로써 시대와 역사앞에 지닌 자기의 숭고한 사명과 의무를 다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반전반미투쟁에 백만학도 총분기해 나서자≫ 이런 제목으로 김현규씨 말씀드렸는데요. 반전반미투쟁을 힘있게 벌이는데서 중요한 건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속에 아직도 남아있는 미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자면 현대제국주의의 우두머리인 미제국주의의 진면모와 그 운명에 대해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부시행정부가 9.11테러를 구실로 반테러의 명목아래 대북강경책동에 열을 올리고 ≪악의 축≫발언을 거듭하면서 이 땅에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의 영도따라 선군의 기치 드높이 전진하는 이북의 기상에 놀리워 궁지에 빠진 자들이 출로를 찾아보려는 단말마적 발악에 불과한 겁니다. 미국이 떠드는 이른바 강대성의 신화는 이미 산산조각 난지 오래죠.

청년학생들과 각계 민중은 허장성세뒤에 감추어져 있는 그 약점, 위기에 빠져 있으면서도 최후발악하는 미국의 정체를 똑바로 보고 범국민적인 반미투쟁의 불길을 더욱 거세게 지펴올려 이 땅에 자주의 새봄, 통일강성대국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겁니다.



한편의 노래를 두고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21일~23일

가요가 대중속에 얼마나 빨리 그리고 광범위하게 파급되는가 하는 건 가요가 민중의 마음을 얼마나 잘 반영했는가에 관계된다 하겠죠. 민중의 심정에 꼭맞는 가요는 세상에 나오기 바쁘게 바람찬 불길처럼 파급되기 마련인 겁니다.

지금 경향 각지에 순간에 파급된 가요 ≪기특한 과자≫가 바로 그런 성공한 노래라고 할겁니다. 가요 ≪기특한 과자≫에는 ≪악의 축≫망발을 쏟아놓으며 한반도정세를 전쟁국면에로 몰아가고 있는 3점짜리 깡패대통령 부시에 대한 우리 민중의 조소와 증오가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하겠죠.

그럼 이 시간 첫순서로 서울서 사시는 지식인 이명진씨의 글 ≪한편의 노래를 두고≫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임기수씨입니다.

한편의 노래에 천하가 비낀다.

최근 경향 각계에 선풍적 인기를 끌며 널리 애창되고 있는 가요 ≪기특한 과자≫가 이를 웅변한다.

과자를 먹다 졸도한 부시를 풍자적으로 조소한 이 가요에는 오늘의 시대상이 묻어 있고 민심의 향내가 살아넘친다.

노래는 의인화한 과자의 형상을 통해 미국을 악의 조소하는 민중의 정서를 생동감있게 보여준다.

과자야 과자야 기특한 과자야
부시를 쓰러뜨린 힘센 과자야
세상 사람들 억울한 마음 달래주려고
네몸을 던져 장렬히 산화했구나

씹히면서도 끝끝내 부시를 쓰러뜨린 과자. 이 과자를 애정안고 예찬하는 마음. 그것은 우리 민중이 누구를 선으로 보고 누구를 악으로 보는가를 확연히 증시한다.

세상에 다 알려진 것처럼 미국에서의 대규모 습격사건이 발생한직후 부시는 세계를 두개의 극단으로 양분했다. 이른바 선과 악이 그것이다.

미국은 자유와 정의의 기수이기 때문에 선이며 역설적으로 이에 반하는 것은 악이라는 논리이다. 부시의 이 단순명쾌한 논법





이야말로 미숙아의 유치한 사고방식이고 자아중심주의자의 병적 증세가 아닐 수 없다. 미국은 자유의 화신도, 정의의 상징도 아니다. 부정의의 본산이고 예속과 억압의 원흉이다. 타민족의 피로 매닥질되어 있는 미국의 근대사는 차치하고 현 행정부의 집권행적 사례만 들여다봐도 십분 알 수 있다.

부시가 백악관에 들어앉아서 한 짓이란 **시대와 지구촌 민중의 지향에 역행하는 망동질뿐이다. 특정 국가에 의한 지배주의적 질서를 배척하고 다극화에로 나가는 것은 현시대의 추이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시미행정부는 냉전시대의 퇴행적 통념에 불과한 일방주의, 단독주의를 고집스레 추구했다. 교토협정의 거부와 ABM조약에서의 일방적 탈퇴, 천문학적 액수의 군사비 등은 미국이 21세기에 누리는 야망이 무엇인가를 재론의 여지없이 보여준다.

부시의 용납못할 악행은 대북정책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현행정부는 출범초기부터 전행정부의 대북정책을 전면 부정하고 북미관계를 대결의 원점으로 선회시켰다. 그들은 세계의 다른 지역에서는 미군규모를 줄이면서도 오히려 주한미군전력을 증강, 첨예화하고 있다.

당근을 배제한 채찍사용이라는 부시행정부의 대북강경책으로 인해 화해의 움트기가 시작되던 한반도에는 또다시 긴장격화의 신냉전이 고조되어 가고 있다. 이와 함께 바야흐로 밝아오는 통일의 희망에 가슴부풀어 오르던 우리 민족은 또한번의 좌절을 강요하는 미국에 대한 증오로 비분강개해 간다.

지난 2월 부시의 방한을 계기로 화산처럼 분출한 반미반부시 열풍은 우리 민중의 반미감정이 어디까지 도달했는가를 직시케 하는 비상등이다.

부시의 ≪악의 축≫발언과 대북강경책을 반대해 전국연합, 통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한총련, 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연 800여개의 투쟁 및 시민단체들이 연일 항의성명, 반미결의대회, 반미공동기자회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지난 2월 6일에는 하루동안에만도 반미시위와 행사가 10여건이나 진행됐다.

오늘 이 땅에 몰아치는 반미반부시감정은 사품치는 물처럼 미치지 않은 곳이 없고 요원의 불길처럼 타번지지 않는데가 없다.

민심은 천심이고 천심은 정의이다.

이 땅의 각계 민중이 반부시적대감정에 기강되어 있는 것은 천만번 당연하다.

노래 ≪기특한 과자≫가 안뚝을 터친 급류의 기세로 맹렬히 파급되고 있는 것은 바로 미국을 악으로 지탄하는 민중의 이런 울분을 정확히 담았기 때문이다.

노래에는 테러증후군에 걸린 부시에 대한 야유와 이른바 ≪테러박멸≫의 허황성도 통쾌하게 조소하고 있다.

부시야 부시야 쌈쟁이 부시야
과자의 테러는 배후가 어디냐
과자를 만든 나라는 이제 끝장났구나

부시는 미국이 대규모 습격을 당한 이후 입만 열면 테러를 역설했다. 저들을 돕지 않는 나라는 테러에 동조하는 나라이고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는 테러배후국이라고 매도했다. 그의 테러증은 올해를 이른바 ≪테러와의 전쟁의 해≫로 선포한데서 초극단에 달하고 있다.

그런데 현실은 테러박멸을 운운하는 부시의 미국 자체가 진짜 테러의 원산지라는 것이다.

미국은 개인의 테러를 훨씬 초월해 국가가 조직적으로 테러를 자행하는 세계최대의 테러국이며 복마전이다. 미국이 다른 주권국가를 반대해 조직적 테러를 감행한 사실은 무수히 많다. 반세기만 소급해 보아도 미국은 파나마침공으로 4000여명을 살해했으며 과테말라 군사정부와 함께 마야원주민들에 대한 추악한 인종청소를 감행해 25만명을 집단학살했다. 미국은 의도적으로 이라크의 상수도시스템을 파괴함으로써 백만명의 민간인을 죽음에로 내몰았다. 유고공습시에는 평화적 주민들에게까지 폭탄을 떨구고 기간생활시설들을 파괴했다.

미국의 국가테러는 한반도에서 전율이 극도에 이른다.

지난 6.25전쟁시기에 미군이 감행한 양민학살사건은 더이상 비밀이 아니다. 우리 민족은 미국의 극악한 제단위에 던져진 희생양으로 장장 반세기를 넘어 살아왔다. 특히 이북은 미국의 끈질긴 침략위협을 반세기나마 받고 있는 지구촌 최대의 테러피해국이다. 군비순위 2위에서 5위권에 드는 나라들의 군비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군사비를 지출하는 미국과 맞서고 있는 이북은 자위적 조처로 많은 몫을 국방방면에 돌리지 않으면 안되었다.



지난 시기 이북에서 단행한 고난의 행군도 결국은 미국의 대북포위압살책동이 강제한 것이다. 이남에 있는 1천여개의 미군 핵무기는 이북 전역을 120여평방킬로미터당 1개, 2만여명당 1개로 배분되어 있다. 뿐 아니라 주한미군에 의해 이 땅에서 수시로 감행되는 북침전쟁연습은 이북에 항시적인 긴장감을 덮씌우고 있다.

현실은 미국이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악의 본축이고 원흉이라는 것을 명백히 입증한다.

부시가 이북을 ≪악의 축≫으로 몰아붙임으로써 저들의 대북강경책을 성공시키려 꾀해도 그것은 파멸의 무지개를 잡아보려는 어리석은 자의 허황한 망상에 지나지 않는다.

이북은 자주로 존엄 떨치고 있다. 선군정치로 강국의 위용을 떨치고 있는 이북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으며 지구위에 그것을 피할 자리는 그 어디도 없다. 만일 부시가 이 엄연한 현실을 굳이 부정하고 기어이 북침전쟁의 불을 지른다면 그 자신의 목숨도 영영 끝장날 것이다.

지난 세기 유럽의 한 작가는 모든 희극은 웃음으로 끝난다고 했다.

우리 민중은 과자도 제대로 삼키지 못해 졸도하는 부시의 몰골을 보며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한다. 그 웃음은 어린애만큼도 못한 주제에 미국과 세계를 제패하겠다고 공언하는 부시의 어리광대적 행태로부터 오는 폭소이다. 시대와 민중의 지향에 역행하면서도 제가 옳다고 자고자대하는 현대판 돈키호테에 대한 풍자이고 조소이다.

경향 각계 민중은 부시를 조소하는 이 노래를 더 크게 부르며 반미반부시투쟁, 격파를 더욱 높이 일으켜나가야 할 것이다.

저들이 자행하는 국가테러는 테러가 아닌양 눈썹하나 까딱하지 않고 지구촌 이르는 곳마다에 재난만을 일으키는 테러두목, 전쟁깡패가 미국인데요. 부시에겐 과자뿐 아니라 모래알이 주먹이 되고 초목이 회초리가 돼서 두들겨 패야하는거죠.

미국무기강매 조소한 노래 ≪종이비행기≫

구국의 소리 뉴스, 주체91년 3월 21일

최근 미국의 무기강매행위를 조소한 가요 ≪종이비행기≫가 창작되어 전국연합 홈페이지에 실려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요는 ≪전투기를 사라한다 미국놈들이/ 에프15기를 사가지고 폼을 재란다/ 너 같으면 사고싶냐 고철덩어리/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고 조소하면서 ≪일본놈의 앞잡이 살아남아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말아먹더니 이제 다시 미국에 빌붙는구나≫하며 양심선언을 한 조대령을 당장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가요는 계속해서 ≪우리에게는 필요없다 전쟁무기는/ 우리 민족 힘을 합쳐 통일할꺼다/ 통일하면 온갖 무기 모두 녹여서/ 맛난 엿 바꿔 먹을꺼다 엿 먹을래/ 안 사 안 사 비행기 에프15 비행기/ 절대 안 사 비행기 미제비행기≫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 반대배격하자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24일~25일

최근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화되고 있습니다.

미대통령 부시를 비롯해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라이스, 미국방부 부장관 월포비츠 등 미행정부내 우익보수파와 호전분자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의 위협설을 운운하면서 미국은 북을 비롯한 어떤 나라도 대량살상무기로 자유를 위협하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라는니 이 문제과 관련해 지금은 머뭇거릴 시점이 아니라며 대북강경자세를 계속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부시행정부의 출범초기부터 대북적대시강경정책을 들고 나온 미국은 9.11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때를 만난 듯이 북에 대한 고립압살책동의 도수를 더욱 높여왔습니다. 특히 아프간전쟁을 계기로 미국은 있지도 않은 북의 대량살상무기위협에 대해 요란스럽게 떠들면서 주한미군의 무력을 현대화하고 최신예 군사장비들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한편 북침전쟁연습소동을 매일과 같이 벌임으로써 한반도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은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북침을 목적으로 한 미군 수만명을 포함해 한미연합군 50만명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한미연합군사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서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침략과 전쟁준비책동을 일삼으며 북을 군사적 힘으로 제압하려는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6.15공동선언발표이후 남북간의 화해와 단합, 자주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되자 공동선언이행을 파산하고 남북간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며 북침전쟁을 도발하려는 미국의 고의적이고 계획적인 대한반도정책과 대북적대시정책, 반북고립압살책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을 허용, 묵과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에서 새로운 침략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결국 미국이 도발한 침략전쟁에서 우리 민족, 민중이 커다란 참화를 입게 될 것이며 이 땅이 초토화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입니다. 그런만큼 우리 민족, 민중은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으로 인해 한반도에 미칠 영향과 온갖 불행과 고통, 재난을 강요당할 이 엄중한 사태앞에서 결코 이를 방관시하거나 용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각계층 민중은 북에 대한 미국의 강경압살책동이 곧 이남 민중에 대한 강경압살책동이라는 인식을 똑바로 가지고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으로 우리 민족이 공멸당할 위험천만한 범죄적 책동을 반대배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여 나가야 할겁니다.

무엇보다도 온 국민이 떨쳐 일어나 미국의 사소한 대북강경압살책동도 예의주시하고 이를 즉각 저지파탄시키기 위한 반미투쟁을 끊임없이 벌여나가야 합니다.

민중의 뭉친 힘은 투쟁승리의 기본 열쇠입니다. 자주를 지향하고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각계층 민중은 반미의 기치아래 하나로 굳게 뭉쳐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을 짓부수기 위한 투쟁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반미운동단체들은 물론 여러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투쟁에 합류해서 투쟁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림으로써 전국 각지에서 반미투쟁의 열풍이 끓어번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모든 단체, 모든 국민들이 서로 연대연합하고 공동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을 적극 벌여 한반도에서의 전쟁위험을 제거하고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반미반전통일운동을 줄기차게 벌여나가야 합니다.

당면해서 미제침략자들이 이 땅에서 벌여놓은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반대배격하는 투쟁에 총사력을 경주해 나가야 합니다.

주한미군의 대북강경압살책동에 편승해서 반북고립압살책동에 질주하고 있는 이회창을 비롯한 극우익보수세력과 호전분자들의 반민족적, 반통일적 범죄책동을 단호히 짓부수기 위한 투쟁도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 농민, 청년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민중은 사상과 이념, 정견과 신앙, 소속에 관계없이 단결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친 힘으로 미국의 대북강경압살책동을 박살내며 평화와 통일의 방해자이고 침략과 전쟁의 원흉이며 우리 민중의 온갖 불행과 고통의 화근인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나가야 할줄로 믿습니다.

이북, 미국의 새 전쟁책동에 분노 기운 고조

조선중앙통신, 3월 22일~27일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로동자들의 현장규탄집회

3월 23일, 평양 함흥 신의주 등의 로동계급과 청년대학생들 현장규탄집회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의 대규모통합전쟁연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조선 각지에서 계속 힘 있게 울려 나오고 있다.

평양과 함흥, 신의주 등 각지의 로동계급과 청년대학생들을 비롯한 각계층 인민들은 22일 자기들의 일터와 교정들에 반미구호들을 내걸고 현장규탄집회들을 진행하였다.

평양화력발전련합기업소 로동계급은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진행되는 이번 통합군사연습은 악명 높은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을 훨씬 릉가하는 사상최대규모의 전쟁불장난으로서 철두철미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계획적인 도발책동이라고 격분에 넘쳐 규탄하였다.

함흥수리동력대학과 신의주농업대학의 교직원, 대학생들은 이번 전쟁연습이 임의의 시각에 실전으로 넘어 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고 하면서 신성한 조국강토와 사랑하는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핵전쟁의 참화를 들씌우려는 미제와 그 주구들을 단죄하였다.

그들은 조선로동당의 선군령도아래 무적의 강군으로 자라난 혁명적무장력과 더불어 이 땅의 수백만 청춘들의 쌓이고 쌓인 분노가 폭발할 때 악의 총본산 미제는 수치스러운 파멸과 죽음을 면치 못할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집회장들에서는 ≪미제와 그 주구들의 북침전쟁연습소동을 견결히 규탄한다≫, ≪미제에 의해 우리 민족이 흘린 피값을 천백배로 받아 내자≫, ≪미제를 몰아 내고 조국을 통일하자≫ 등의 힘찬 구호들이 연방 울려 나왔다.

3월 22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김일성**종합대학에서 현장규탄집회

미제침략자들이 벌려놓은 대규모통합전쟁연습을 폭로단죄하는 현장규탄집회가 21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김종태전기기관차공장,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진행되였다.

집회들에서는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규탄하여 발표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 성명, 조선직업총동맹 중앙위원회 성명이 각각 랑독되였다.

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이 전쟁연습이야말로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의 재현이며 철두철미 공화국북반부를 겨냥한 계획적인 북침도발행위이라고 말하였다.

미국은 우리와의 ≪대화≫에 대하여 떠들어 대면서 세계여론을 오도해 보려 하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이것은 저들의 침략책동을 가리우고 우리를 압살해 보려는 어리석은 망동이라고 폭로단죄하였다.

그들은 공화국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으려는것이 우리의 단호한 립장이라고 하면서 미제는 조선인민의 멸적의 기세를 똑바로 보고 북침전쟁연습을 당장 걷어 치워야 하며 남조선에서 하루빨리 물러 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3월 24일,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개성고려인삼술공장, 김책공업종합대학, 강계제2사범대학 현장규탄집회

미제와 남조선호전세력들이 벌려 놓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폭로단죄하는 현장규탄집회가 각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2.8비날론련합기업소, 개성고려인삼술공장, 김책공업종합대학, 강계제2사범대학에서 진행된 집회에서 연설자들은 미제와 남조선호전분자들이 대규모적인 군사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리고 있는것은 우리 인민의 머리우에 또다시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 오려는 용납 못할 전쟁도발책동이라고 단죄하였다.

지금 미제침략자들의 광란적인 북침전쟁소동으로 말미암아 나라의 정세는 극히 위험한 전쟁접경으로 치닫고 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화약내 짙은 전쟁연습이 어느 시각에 우리 공화국을 침공하는 전면전쟁으로 번져 질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연설자들은 침략자들을 무자비하게 짓뭉개 버리려는것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의 단호한 립장이라고 하면서 로동계급과 청년대학생들은 일단 명령만 내리면 마치와 펜을 총으로 바꾸어 잡고 당과 수령을 위하여,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청춘도 생명도 아낌없이 바쳐 싸울것이라고 강조하였다.

3월 26일, 룡성기계련합기업소, 6월4일차량공장, 김형직사범대학, 사리원지질대학 현장규탄집회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이 벌려 놓은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폭로단죄하는 현장규탄집회들이 조선 각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다.

룡성기계련합기업소, 6월4일차량공장, 김형직사범대학, 사리원지질대학에서 진행된 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와 그 주구들이 전례 없는 전쟁연습을 감행하고 있는것은 우리의 생명이며 생활인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제도를 압살하고 우리 로동계급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삶을 빼앗으려는 극히 날강도적이며 파렴치한 범죄행위이라고 규탄하였다.

미제와 그 주구들이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벌려 놓으면서 북침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고 발광하고 있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자들의 단말마적발악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들은 우리는 우리를 건드리는 침략자들에 대해서는 지구상 그 어디에 있건 무자비하게 타격하고 섬멸할수 있는 멸적의 의지와 힘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3월 27일,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청진광산금속대학, 고려성균관 현장규탄집회

조선의 근로자들이 대규모침략전쟁연습을 벌려 놓고 있는 미제와 남조선호전광들을 천백배로 복수할것을 결의하고 있다.

북창화력발전련합기업소, 황해제철련합기업소, 청진광산금속대학, 고려성균관에서 진행된 현장규탄집회들에서 연설자들은 이번 군사연습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선제타격계획≫을 실전에 옮기기 위한 종합적인 전쟁연습이며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 기회를 만들려는 위험천만한 북침핵예비전쟁이라고 락인하였다.

남조선의 호전광들이 미국과 함께 동족을 반대하는 전쟁연습에 참가한것은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공약한 6.15공동선언에 근본적으로 배치되는 적대행위이라고 하면서 그들은 민족을 등진 반역의 무리들은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만일 더러운 침략의 무리들이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우리 군대와 인민은 수십년동안 다지고 다져 온 멸적의 힘과 의지로 침략자들을 단 한놈도 남김없이 소멸해 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기어이 성취하고야 말것이라고 강조하였다.

공화국북반부에서 대미분노의 기운 고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남조선에서 근 70만의 대병력과 방대한 군사장비들이 동원된 가운데 벌어 지고 있는 미국, 남조선의 통합전쟁연습에 대해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다.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실전의 분위기속에서 광란적으로 감행되는 적들의 행동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멸적의 투지를 가다듬고 있다.

이번 전쟁연습이 벌어 진 때로부터 지난 며칠동안 공화국북반부에서는 대미분노의 기운이 그 어느때보다 높았다.

조선외무성대변인과 사회단체들에서 담화들을 발표하고 조선 각지에서는 현장규탄집회들이 련일 진행되였다. 그리고 조선인민군장병들과 각계층 근로자들, 청년학생들은 침략자들을 천백배로 복수하고야 말 굳은 결의를 표명하고 있다.

대중보도수단들은 미제와 결판낼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 있는 조선인민의 의지를 보여 주는 글들을 련일 크게 취급하였다.

텔레비죤과 라지오방송들에서는 미제침략자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길 우리 군대의 의지를 담은 문예물들을 많이 내보내고 있다.

요즘 수도 평양을 비롯하여 전국의 고등중학교 졸업생들이 우리 조국을 원쑤들의 침략으로부터 굳건히 지키기 위하여 조선인민군입대를 탄원해 나서고 있다.

이번 기회에 미제호전광들에게 우리의 총대맛을 보이고 결판을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 조선의 군대와 인민들속에서 지금 강하게 울려 나오고 있다.

우리는 결코 전쟁을 바라지 않지만 피하지는 않으며 지구상 그 어디에 있는 침략자도 무자비하게 타격하고 섬멸할수 있는 멸적의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것이 조선의 대답이다.

만약 원쑤들이 조선에서 또다시 침략전쟁의 포성을 울린다면 그것은 아메리카장송곡으로 변할것이다.



≪육탄≫으로 장갑차를 막아선 시위대

포항 한미연합훈련장에서 ≪훈련중단≫ 촉구



쾅-쾅-쾅-쾅.

22일 오후 1시 50분경 포항 영덕군의 한 해변에서 4발의 큰 폭발음과 함께 한미연합연습(RSOI/FE 02) 해병대 상륙작전의 리허설이 시작됐다. 곧이어 해변에 떠있던 함정에서 수륙양용 장갑차가 쏟아져 나왔다.

하지만 긴박하게 돌아가던 해병대 상륙작전은 갑자기 난장판이 됐다. 장갑차의 진입을 막기 위해 육탄으로 돌격한 민간인들 때문이다. 그간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소속 회원 8명. 이들은 3미터 정도 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장갑차를 막아섰다. 당황한 군인들이 이들을 제지하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장갑차는 계속 해안가로 올라오고 있었고 이들은 계속 장갑차를 향해 뛰어들었다.

4발의 폭발음, 한미연합 군사훈련 시작

이날 해병대 상륙작전 리허설은 포항 영덕군 독석리의 한 해수욕장에서 진행됐다. 유일하게 취재진들에게 공개된 작전장소이다.

오후 1시 50분경 노란 깃발을 든 군인들이 수신호로 어딘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고, 완전군장을 갖춘 군인들이 분주히 움직였다. 어제부터 시작된 극심한 황사 때문에 희뿌연 해변가에서 외마디 외침이 들렸다.

≪폭파 1분전!≫

순간 취재진들의 카메라는 바다에 떠 있는 부표 위로 향했다.

연이어 터진 4발의 큰 폭발음과 함께 그간 많은 논란을 빚어왔던 한미연합연습(RSOI/FE 02) 해병대 상륙작전의 리허설이 시작됐다.

한미연합사는 지난 2월 28일, 3월 21일부터 27일까지 1994년부터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RSOI 연습(한미 양국군 지휘관들에게 해외기지로부터 증원되는 미군을 수용하는 지휘능력을 훈련시키고 평가를 위한 연습)과 대침투연습인 독수리연습을 연계한 RSOI/FE 02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RSOI/FE 02 연습에는 주한미군 외에 미국 본토와 일본, 괌 등에 주둔중인 미군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최대 규모의 군사훈련이며 참가 연인원만도 5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곧이어 해변에서 멀리 떠 있던 5-6척의 전함들이 수륙양용장갑차를 바다에 띄웠다.

이번 작전에 참여한 전함들은 일본 요코스카에 위치한 7함대 소속 상륙수송함정(LSD) 두척과 한국 해군의 LST 4척이다. 전함들은 10분간격으로 10여대의 상륙돌격장갑차들을 토해내기 시작했다. 이 장갑차 가운데에는 일본 오키나와에 위치한 31 MEU(해외원정군) 미군 2000여명이 탑승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오후 2시 30분 예정대로라면 이들의 상륙을 돕기위해 전투기와 전투 헬기 등도 등장해야 하지만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미연합사의 한 관계자는 ≪날씨가 좋지 않은 관계로 대부분 취소됐고 이번 리허설 또한 상당부분 축소돼 진행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장갑차들은 일제히 연기를 내뿜으며 일렬로 늘어선 채 해안가를 향해 돌진했다. 전함들은 계속해서 후속 장갑차들을 토해 냈다. 동시에 여기저기서 기관총이 난사됐다.







이날 시위대가 만들어온 유일한 영문 피켓이다.

이들 손에는 스치로폼으로 만든 피켓도 있었으나 크고 작은 몸싸움 과정에서 모두 박살이 났다. 사진기자들은 이 장면을 놓칠세라 열심히 그들을 따라 붙었고 훈련장은 난장판 일보직전까지 갔다. 기자들과 시위대 그리고 군인들이 한데 어우러져 훈련장을 뛰어 다녔다.

≪나가세요≫

≪안돼... 야! 막아...≫

이들은 심지어 장갑차에서 내리는 해병대를 막아섰고, 이 과정에서 군인들과 심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안전사고를 우려한 군 병력은 이들을 제지하지 않고 시위를 놔뒀고 이어 들어오던 장갑차들은 이들을 피해 상륙하는 웃지못할 상황이 벌어졌다.

팀스피리트부터 여러차례 군 훈련을 취재를 했다는 한 외신기자는 ≪군 훈련과정을 이렇게 막아선 것은 처음 본다≫면서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들 시위대는 리허설이 끝날 때까지 ≪주한미군 철거가≫를 부르며 시위를 계속했다.

이들은 현장에서 성명서를 통해 ≪한미 군사당국이 실시하는 대규모 군사훈련은 이 땅에 기어코 핵전쟁의 불씨를 붙이려는 전쟁광 부시와 사대매국노들의 전면적인 북침전쟁연습≫이라면서 ≪우리는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갈망하는 국민들과 함께 이 땅에 핵전쟁을 불러올 위험천만한 전쟁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후 3시경 상륙해 있던 장갑차들이 다시 바다로 떠나면서 한미연합훈련 리어설은 끝이 났다. 이에따라 시위대들도 시위를 마치고 개별적으로 산개해 사라졌다.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아선 시위대

상륙작전 리허설은 크게 축소됐지만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장갑차들이 해안가에 거의 도착할 무렵 사복 차림의 사람들이 장갑차가 상륙하고 있는 해안가로 뛰어들었다.

≪한반도 전쟁책동 한미군사훈련 중단하라≫

그간 한미연합연습 중단을 촉구해 온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소속 회원 8명이 3미터 정도 되는 플래카드를 들고 장갑차를 막아선 것이다. 당황한 군인들이 이들을 제지하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STOP RSOL & FE02, NO WAR NO NUCLEAR≫

한편 이번 시위를 주도한 전국연합 소속의 이모씨는 ≪이번 군사훈련을 막기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섰다≫면서 ≪전국 각지에서 해상시위 등 다양한 형태로 군사훈련 저지를 위한 시위를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연합사는 3월 23일 오전 8시 같은 장소에서 예정대로 대규모 훈련을 감행한다. 따라서 이를 막으려는 시민사회단체들과 마찰이 예상된다.

공희정 권우성 기자
2002/03/22 오마이뉴스





한미군사훈련 반대 국민대회 열려



지난 21일부터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시작됨에 따라 전쟁연습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이 거세지고 있다.

23일 오후 1시 30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는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대북전쟁연습 ≪한미군사훈련≫ 반대 및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국민대회가 진행됐다.

사회단체 소속 회원과 학생 등이 참여한 이날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은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사실상의 대북전쟁연습으로 한반도에 전쟁을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정종성 서총련 임시의장은 발언을 통해 ≪한미합동군사훈련의 본질은 미국이 6.15공동선언을 파탄내고, 한반도를 영구 식민화하려는 시도≫라고 밝히고, 한반도 전쟁위기를 불러일으키는 미국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또, 정종성 임시의장은 ≪이북의 청년들은 지금 자원하여 군대로 가고 각종 결의대회를 통해 전쟁책동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며 ≪우리 국민들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한다≫고 현재의 전쟁위기가 매우 심각한 것임을 주장했다.

전빈련 장봉주 부의장이 낭독한 결의문을 통해 참가자들은 ≪한반도에 대규모 전쟁연습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을 보고 공포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한미합동군사훈련은 남북관계를 얼어붙게 하고 6.15남북공동선언으로 이룩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기회를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미국의 핵전쟁 기도 규탄 ▲제네바협약과 북미공동성명 이행 ▲전쟁연습에 동참하는 김대중 정부 규탄 ▲반전평화운동 전개 등을 주장하며 종묘공원까지 거리행진을 진행했다.

한편, 시민사회단체들에서 대북전쟁연습이라고 주장하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은 증원군의 인수, 대기, 전방이동, 주둔군과의 통합작전을 위한 군사훈련과 독수리합동 군사훈련이 병행진행되는 것으로 연인원 50만명이 참가하는 최대의 군사훈련이다.

특히 이번 훈련은 부시 대통령이 2002년을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고 있는 시기에 진행된다는 점에서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초래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군사정책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우려를 사고 있다.

이미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가 미대사관 앞에서 훈련중단을 촉구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고, 어제는 포항에서 전국연합 소속 회원들이 육탄으로 해병대 상륙작전을 저지하는 등 시민사회단체들의 대응이 날로 거세지고 있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둘러싼 한미군당국과 시민사회단체들간의 마찰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장동렬 기자
2002/03/23 통일뉴스



전쟁반대, 6.15공동선언실현 기자회견 진행



오후 2시부터 미대사관 옆 한국통신 앞에서 전쟁반대, 6.15공동선언실현 기자회견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자회견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이종린 의장님,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님, 민가협 임기란 어머님, 반미여성회 배은심, 통일광장 임방규 선생님을 비롯한 통일연대 소속단체 회원이 50여명이 참가하셨습니다.

김성윤 통일연대 대변인의 사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은 이종린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님의 인사말씀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종린 의장님은 전쟁에 대한 증오, 6.15 공동선언 실현을 위한 뜻깊은 행동에 감사드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임동원 특보의 평양행이 남북관계 북미관계를 진전시키고, 한반도평화의 결실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시며 한상렬 목사님의 뜻깊은 단식농성마무리에 감사를 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상렬 목사님께서 단식을 마치시며 ≪ 우리 민족끼리! 우리민족끼리 자주통일만세! - 한미합동군사훈련전쟁연습을 반대하고 미국의 회개와 철수를 촉구하는 단식을 마치고≫라는 글을 발표하셨습니다.

한목사님께서는 ≪저는 단식 기간중에 깊이깊이 생각해보았습니다. 그리고 거듭거듭 확인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살길은 첫째도 6.15 둘째도 6.15요, 셋째도 6.15뿐이라는 것입니다. 6.15 선언이야말로 분단시대를 청산하고 통일시대를 여는 새역사의 분수령이요, 통일운동의 대강령이요, 이정표입니다. 오늘날 6.15살림이 애국이요, 6.15죽임이 매국입니다≫,≪... 새로운 꿈에 불타올랐습니다. 온 국민대중이 회미, 철미, 반미자주화로 떨쳐 일어나는 제2의 3. 1 운동의 꿈입니다. 저마다 생활현장에서 6.15 실천 통일삶 약속으로 자주생활력으로 대동단결력으로 시민참여력으로 충만하여 제 2의 삼일운동이 성공하는 그 꿈입니다.≫라고 하시며 단식으로 마치는 소감을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진관스님께서 ≪삼팔선이 우리 땅인줄 알았더니, 미국의 땅이었다.≫ ≪F-15K와 6.15 공동선언을 바꾸려 한다≫ 미국의 전쟁행각에 대한 강력한 규탄연설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미여성회(준) 배은심 회장님께서 목사님의 8일간의 단식투쟁이 국민들의 가슴에 사무칠 것 같다, 눈물이 날 것 같다하시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해주셨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은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의 한미군사훈련반대 미대사관 노상단식농성을 마무리하면서, 한반도를 전쟁의 불바다로 만들려고 하는 미국의 전쟁행각에 대한 규탄과 6.15공동선언 실현의 의지를 다시한번 힘있게 모아가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2002년 3월 27일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남조선특사 평양 방문

민족앞에 닥쳐 온 엄중한 사태와 북남관계문제 협의, 4월 첫주

평양 3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김대중대통령의 특사가 4월초에 평양을 방문한다.

쌍방은 민족앞에 닥쳐 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문제들에 대하여 협의하게 된다.

북과 남에서 동시에 발표된 김대중대통령특사의 평양방문은 조선반도에 조성된 현 난국을 타개하고 6.15북남공동선언의 정신에 맞게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북남관계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전기로 될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부쉬 미국정권과 추종세력의 반공화국강경소동으로 조선반도에서 전쟁의 위험이 증대되고 북남관계가 정체상태에 빠진 엄혹한 상황에서 이루어 지는 특사방문에서는 ≪민족앞에 닥쳐 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문제≫(북측발표)가 협의된다. 한편 남측에서도 조선반도 긴장조성 예방, 6.15공동선언 준수, 북남합의사항 리행문제들이 협의된다고 발표하였다.

쌍방 발표로 미루어 특사방문을 통하여 토의될 핵심문제는 외세의 강경소동으로 조성된 사태의 타개, 6.15공동선언의 고수, 리행문제이다.

우리 민족끼리 손 잡아 통일을 지향해 나간다는것은 6.15선언의 기본정신이며 우리 민족끼리 손 잡고 민족공조를 실현하는 길만이 외세에 의하여 조성된 난국을 타개하는 유일한 길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올해초에 진행된 정부, 정당, 단체합동회의에서 3대호소와 3대제의를 내놓아 부쉬정권의 강경책으로 말미암아 조성된 난국을 우리 민족끼리 단합하여 타개해 나갈것을 호소하였다. 또한 올해 4월부터 6월에 걸쳐 진행되는 ≪아리랑≫공연은 우리 인민의 자주와 평화에로의 념원을 온 세상에 과시하는 일대축전이며 거기에는 민족의 화해단합을 촉진시켜 우리 민족의 힘으로 통일을 기어이 이룩할데 대한 념원이 담겨 져 있다.

온 겨레의 평화와 통일에로의 념원이 외세의 무모한 소동으로 엄중한 난관에 봉착한 시점에서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의 뜻을 받든 특사들이 평양에서 마주 앉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난국을 타개하며 6.15공동선언을 어김없이 리행할 의지를 확인, 온 세계에 선포한다면 그것은 외세의 간섭과 전쟁소동을 물리치고 민족의 통일운동을 촉진하는데서 커다란 돌파구로 될것이다.

오늘 북남사이에서는 당국간회담도 중단되고 있고 민간교류들도 제대로 실현되지 않고 있다.

북남사이의 화해단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서는 이러한 침체상태가 하루속히 타개되여야 하며 이미 합의한 일련의 사항들이 하나하나 실천에 옮겨 져야 한다.

6.15공동선언발표이후 각종 북남회담들에서 합의된 사항들이 있다. 그중 가장 높은급에서 이루어 진 합의는 우리 나라의 김용순비서가 공동선언발표 3개월후에 서울을 방문, 남측의 림동원 당시 국정원장사이에서 합의한 내용들이다.


임동원 외교통일안보특보

2000년 9월 14일에 발표된 공동보도문 1항에는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김정일**국방위원장께서 앞으로 가까운 시기에 서울을 방문하시며 이에 앞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서울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나라의 통일위업실현에서 결정적전환이 되여야 할 경애하는 장군님의 서울방문에 앞서 김영남상임위원장의 서울방문을 통하여 그 토대와 환경을 조성하자는것이 이 합의의 취지이나 오늘의 상황은 너무나도 거리가 멀다.

북남사이의 합의가 실천에 옮겨 지지 않고 답보하게 된 근본요인이 외세에 있는것만큼 이번 특사방문을 통하여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의 간섭을 효과적으로 배제하고 통일운동을 활성화할 돌파구가 열려 져야 하며 일련의 합의들이 실천에 옮겨져야 한다.

4월 첫주에 평양을 방문할 특사는 김대중정권하에서 대통령측근으로서 북남관계를 관할하여 온 림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별보좌역이라 알려 졌다.

2002/03/26 조선신보



특사파견, 남북정상회담으로 이어질지

25일 오전 10시를 기해 남북한 정부 당국자를 통해 남한 특사 파견이 동시 발표되면서 파견의 의미와 논의 현안에 대한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전반적인 해석은 북미관계의 위험스런 줄타기 국면과 정체된 남북관계에 대한 위기의식을 남북한이 공감한 상황에서 어떠한 형태로든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적극적인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와 더불어 일부 북한 전문가들 속에서는 이번 특사 파견이 남북정상회담 이행을 위한 모종의 움직임으로 분석하고 있어 주목을 끈다.

우선 이번 파견은 한반도의 급한 위기국면을 돌파하는 방법으로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대화를 재개하는데 일차 목적이 있어 보인다. 이를 통해 9.11테러사건 이후 악화된 북미관계의 돌발변수들을 남북관계 활성화를 통해 조정해 보려는 측면이 있다.

또 한편으로는 남북대화를 통해 각종 합의 현안에 대한 이행과 지속적인 대화채널 유지가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내용은 6.15공동선언 이행과제가 중심현안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최종적인 이슈가 될 남북한 정상회담이 자연스럽게 현 한반도 정세의 돌파국면 마련을 위한 중요 방법으로 강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남북대화 및 교류의 진전 추이에 맞추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측면에서 특사 파견에 관한 남한 정부의 발표 내용에서 강조된 ≪6.15공동선언 준수 및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 문제≫ 등은 이런 맥락에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이와 관련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고유환 동국대학교 교수는 남북대화 진전 추이에 따라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방한을 비롯해 제2차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 이종석 세종연구소 연구위원도 ≪특사 파견 이후 남북한 양측은 6.15 남북 공동선언 이행에 역점을 두고 대화할 것≫이며, 이번 특사 파견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 개최 문제도 논의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특사 파견에 대한 남북한 발표 방식에서 눈에 띄는 점은 상당히 치밀하게 남북한이 이번 방문을 조율하고 준비했다는 점이다.

혹시나 제기될 수 있는 의구심을 의식한 탓도 있겠지만 전례가 없는 동시발표를 했다는 점도 특이하다.

또 실행 이전에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발표한 점도 남북한이 모종의 조율을 상당부분 이룬 상태에서 이번 일을 치밀하게 진행했음을 짐작케 한다.

따라서 이번 특사 파견이 단순한 대화재개의 계기를 마련하는 선을 넘어 남북한 현안에 대한 깊숙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진행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런 점에서 최근 북한의 태도가 미국에 대한 강경한 비난에도 불구하고 남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견지해 왔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 대남 비난도 정부가 아닌 야당 및 보수세력에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또 지속적으로 작년 말부터 6.15공동선언 이행을 부쩍 강조해 왔고 특히 부시 미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 이후로 한반도 문제의 남북간 해결을 수시로 강조해 온 점도 이번 특사 파견의 의미를 더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특사 파견에서 북한은 당면한 ≪엄중한 사태≫에 대한 남북한 공조원칙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돌파구를 마련하길 바랄 것이며, 남한 정부는 이에 부응하는 남북관계의 활성화를 기대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궁극적이든 수단적이든 논의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홍민 기자
2002/03/26 통일뉴스

임동원 방북 특사 파견을 적극 환영한다

정부는 4월 3일 임동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를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여 김대중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 파견을 통해 ≪한반도 긴장조성을 예방≫ 하고 ≪615공동선언을 준수≫하며 ≪남북간 합의사항 이행문제≫ 등 제반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동시에 북측에서도 ≪쌍방은 민족앞에 닥쳐온 엄중한 사태와 함께 서로 관심하는 북남관계 문제들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는 공식발표를 함으로써 그동안 고착상태에 빠진 남북관계가 새로운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당면 부시 미행정부의 ≪악의 축≫ 발언, 핵태세 보고서를 통한 이북에 대한 핵공격 위협 등의 강경한 대북 적대정책, 한미합동 군사훈련 등으로 준전시 상태나 다름없는 한반도 긴장이 강화되고 있는 조건에서 특사파견을 통한 남북관계의 활로를 찾고자 하는 이번 조치는 남북 당국이 함께 ≪615공동선언 이행과 민족의 문제≫ 를 함께 풀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또한, 이번 특사파견이 새해맞이 행사의 무산이후 난관에 봉착해 있는 민간급 교류문제와 4월말부터 진행되는 이북의 아리랑 축전 대규모 참가, 615 2돐 행사 등이 분단의 장벽을 허무는 7천만 민족 대단결의 장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다.

≪우리 민족끼리≫라는 민족공조에 입각해 615공동 선언 준수와 합의사항 이행과 관련된 현안의 문제를 토론하고 해결해 나가고자 하는 것은 7천만 겨레의 확고부동한 의지이다.

이번 임동원 특보의 평양 방문이 이에 걸맞게 전국민적 통일의지를 담은 민족사적 성과를 내올 것을 기대하며 이후 남북관계에 새로운 돌파구를 여는 전환적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 민족끼리 단합과 통일의 문을 여는 해 3월 27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정권 장악이 한반도 평화보다 중요한가

≪데스크 칼럼≫임 특사 방북 바라보는 야당의 短見

최근 북한과 관련한 부시 행정부의 행보가 심상치 않다. 지난 1월 말 북한을 ≪악의 축≫ 국가로 지목하더니 이달 들어 북한을 미국의 선제 핵공격 대상국으로 지명했고, 북미 합의에 따른 ≪북한의 핵동결 준수≫를 보증하지 않겠다며 전임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을 뒤집어버렸다. 특히 ≪핵동결 준수≫ 보증 거부는 북미관계 개선의 초석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합의의 파기에까지 이를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불길한 전조가 아닐 수 없다.

한반도 전쟁위기가 다시 한번 현실로 다가온 셈이다. 이미 미국은 지난 94년 북한과의 전쟁 일보 직전까지 간 적이 있다. 또 5027계획이다 뭐다 해서 정교한 한반도전쟁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고 있으며 매년 전쟁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부시 행정부 일각에서는 북한의 미사일 수출을 막기 위해 공해상에서 북한 선박을 강제 수색하자는 의견까지 제시되고 있는 형국이다.

세계적 패권을 영원히 유지하겠다는 부시 행정부의 오만함을 고려해 보면 미국은 제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라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

그런 상황에서 임동원 특보가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한다는 발표가 나왔다. 그런데 임 특사 방북에 대한 야당과 일부 신문의 반응이 가관이다.

한나라당 남경필 대변인은 논평에서 ≪갑작스런 특사 파북에는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많다≫면서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도 얻지 않은 채 밀실에서 엄청난 퍼주기 같은 이면거래를 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또 한나라당 정책위원회는 ≪선거를 앞두고 **김정일**의 서울 답방을 구걸하거나 김대중 대통령의 재방북이 추진된다면 국민과 함께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일보는 26일자 사설에서 ≪특사 파견이 성사된 과정을 놓고 이미 정치적 의도 등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임 특사의 활동이 ≪무슨 비밀거래 하듯 음험한 분위기를 풍겨서는 역효과를 낼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임 특사 파견은 ≪**김정일** 답방 구걸용≫이자 ≪대선(大選)용 신(新)북풍≫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대선을 앞둔 정국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은가. 남북관계가 국내정치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지난 4.13 총선에서 드러난 것 아닌가. 무엇보다도 남한에서의 정권 장악이 한반도의 전쟁 위기 방지보다 중요하단 말인가.

한반도 남쪽에 갇혀 버린 이들의 좁아터진 정치적 상상력이 안타까울 뿐이다.

박인규 세계 에디터
2002/03/27 프레시안

한나라당 ≪임특사 파북≫ 공세

한나라당은 26일 임동원(林東源) 청와대 외교안보통일특보의 특사 파북에 대해 ≪양대선거에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며 이틀째 공세를 폈다.

이상득(李相得) 사무총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서 ≪금강산 관광 지원대책이 발표된지 얼마되지 않아, 국회에서 불신임된 임동원씨가 대통령 특사로 평양을 방문키로 한데 대해 정치적 의혹을 떨칠수 없다≫며 ≪과거 4.13 총선직전 남북정상회담을 선거에 이용한 점에 비춰 이번에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저자세 외교, 퍼주기 햇볕정책이 북한을 변화시키지 못한 점을 인식, 이번엔 대량살상무기와 인권, 납북인사 해결을 위한 분명한 의사를 전달해야 한다≫며 ≪특히 임특보가 거론한 2003년 안보위기설에 대해 해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오(李在五) 원내총무는 ≪대북 특사 파견이 ≪깜짝 쇼≫가 되지않도록 국회 상임위를 열어 따지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이강두(李康斗) 정책위의장은 ≪통일부 장관도 있는데 왜 하필 대북정책으로 물러난 사람이 특사로 파견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주장했다.

남경필(南景弼) 대변인은 성명에서 ≪항간엔 현정부가 **김정일**의 서울답방이 이뤄지지 못하면 제주 방문 또는 제3국회담 등을 차선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며 ≪식량 및 전력 등의 대량지원을 은밀히 약속해줬을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범현 기자
2002/03/26 연합뉴스

한국민족민주전선 대변인 성명

내외의 강력한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한미호전집단은 끝끝내 21일부터 연합전시증권연습과 독수리훈련을 통합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훈련을 벌여놓았다.

오는 27일까지 진행되는 이 훈련에는 주한미군은 물론 미국본토와 일본, 괌도 등 해외에 주둔해 있는 수만명의 미제침략군과 50여만명의 국군을 포함한 방대한 무력과 최신전쟁장비들이 대거 동원되고 있다.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은 그 규모와 내용, 성격에 있어서 핵위기전쟁인 팀스피리트합동군사훈련을 훨씬 능가하는 철두철미 핵선제타격을 위한 북침전면전쟁을 가상한 극히 위험천만한 침략공격훈련이다.

호전적인 부시행정부가 ≪핵태세 검토보고서≫에서 이북을 공공연히 핵공격대상으로 지정하고 한반도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것과 때를 같이하여 사상 처음으로 전례없이 방대한 침략무력이 동원된 2개의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을 통합하여 서울 이북지역의 휴전선일대에서 광란적으로 벌이고 있는 사실이 이를 실증해주고 있다.

더욱이 간과할 수 없는 것은 이번 한미합동군사훈련이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하고 이북을 ≪악의 축≫으로 폭언하며 대북강경압살책동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호전광부시가 서울행각을 통해 북침전쟁준비상태를 최종점검한 이후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 모든 사실은 미제의 북침전쟁도발책동이 작전준비단계를 벗어나 극히 위험한 실천단계에 들어섰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민족민주전선은 한미호전집단이 벌여놓은 이번 합동군사훈련을 6.15공동선언이행으로 민족자주,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우리 겨레의 일치한 지향과 염원을 짓밟고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참화속에 몰아넣으려는 극악한 침략전쟁의 전주곡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용납못할 범죄행위로 낙인하고 전국민의 이름으로 준열히 단죄규탄한다.

미국은 저들이 떠드는 대화란 내외여론을 기만우롱하기 위한 한낱 제스추어에 불과하며 실제로는 이북을 군사적 힘으로 제압해 전한반도를 타고 앉을 흉심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냈다. 이 땅에서 높아가는 민족자주통일기운을 차단하고 아프간전쟁의 불길을 한반도에 옮겨와 끝끝내 새 전쟁의 불집을 터뜨리려는 부시정권의 흉포무도하고 무분별한 호전적 책동으로 하여 한반도에서는 시시각각 일촉즉발의 핵전쟁위험이 조성되고 있다.

이번 대규모 북침전쟁연습이 실전에로 넘어가지 않으리라는 담보는 그 어디에도 없다.

이 위험천만한 사태앞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절대로 수수방관하지 말아야 한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민족공멸의 참혹한 결과밖에 가져올 것이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각계 애국민중은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이 엄숙한 시각에 6.15공동선언의 기치를 더욱 높이 치켜들고 거족적인 반미반전투쟁에 결연히 분기해 나서야 할 것이다.

불을 즐기는 자는 불에 타죽기 마련이며 침략자들에게 차례질 것은 수치스러운 파멸과 죽음뿐이다.

한미호전세력은 우리 민중의 견결한 반미평화통일의지를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처신해야 하며 모험적인 북침전쟁연습소동을 즉각 중지해야한다.

우리 한민전은 전국민과 함께 핵전쟁의 위험으로부터 민족을 구원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갈 것이다.

주체91 (2002)년 3월 22일
서울

전국민에게 드리는 서한

국민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는 미국에 대한 쌓이고 쌓인 원한과 분노를 터쳐 반미반부시항전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다.

부시의 ≪악의 축≫악담과 서울행각을 계기로 촉발된 우리 민중의 반미진출은 미제의 날로 노골화되고 있는 핵전쟁도발책동을 분쇄하기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민중의 이 반미반부시투쟁은 소수 선각계층에 국한된 투쟁이 아니라 범국민적인 **투쟁으로, 지역적 범위를 벗어난 전지역적인 투쟁으로, 산발적인 한계를 넘어선 조직적인 연대공동투쟁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 땅을 진감하는 반미반부시투쟁은 우리 민족의 생존과 존엄, 자주권을 위한 애국애족적 장거이다. 범국민적인 반미반부시투쟁으로 부시호전광은 된벼락을 맞고 이 땅에서는 반미애국성전의 새로운 전기가 열리고 있다. 그러나 우리 민중의 반미반부시투쟁은 이제 첫자욱을 뗀데 불과하다.

지금 한반도에는 우리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핵전쟁의 불구름이 밀려들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전국민적인 반미항전으로 겨레의 운명을 지켜나갈 것을 요청하고 있다.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부시행정부의 모든 폭언은 북침전쟁과 직결되어 있고 모든 움직임은 핵전쟁의 궤도로 달리고 있다. 북을 ≪악의 축≫으로 걸고들면서 군사적 공격도 불사하겠다는 부시의 전쟁폭언은 한갖 위협공갈이 아니다. 북을 핵공격대상국으로 지정하고 북의 평화로운 대상물을 파괴하기 위한 새로운 핵무기개발에 나선 것은 미국의 핵전쟁도발흉계가 이미 실천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 부시의 서울행각은 그의 최종점검행각이였으며 뒤이은 한미합동군사연습은 북침을 위한 핵전쟁실증작전이다.

지금 이 시각에도 우리의 하늘에는 북침을 겨냥한 핵항공기들이 난무하고 바다에서는 핵함대들이 요동을 부리고 땅위에서는 핵미사일훈련이 벌어지고 ≪핵배낭≫을 짊어진 푸른 베레모들이 북쪽을 향해 질주하고 있다.

우리 국민은 이 엄중한 사태를 보고만 있을 수 없다. 민족의 생존과 존엄, 자주권을 지키는 투쟁에서는 남과 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이북은 우리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켜선 성쇄이고 이북 민중은 우리와 한 핏줄을 나눈 동포형제이다.

이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공갈은 곧 이남민중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북에 대한 핵공격은 곧 한반도를 핵참화속에 몰아넣은 민족전멸책동이다.

현대전에는 전후방이 따로 있을 수 없고 핵참화에는 남북이 따로 있을 수 없다.

세계를 제패하기 위해 군사패권주의 길에 기어든 부시호전광에게는 우리 민족의 운명이 안중에 없다. 우리 민족을 핵전쟁의 재물로 삼아 위기에 처한 미군산복합체의 숨구멍을 열고 미국주도하에 세계질서를 수립하려는 것이 부시행정부의 속심이다.

이 땅에 가공할 핵전쟁위기가 시시각각 엄습하고 있는 이 시각 우리에게는 단호한 결단이 요구된다.

한반도는 7천만 겨레의 삶의 터전이지 대양건너 양키들의 핵전쟁마당이 아니다.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귀중히 여기는 이 땅의 모든 국민은 평화를 지키고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반미반부시결사항전에 결연히 나서야 한다.

날로 악랄해지고 있는 부시정권의 대북강경폭언과 대북압살정책은 한반도에서 긴장상태를 고의적으로 격화시켜 정세를 전쟁접경에로 몰아가는 반평화전쟁책동이다.

우리 국민은 범국민적인 반부시반미투쟁으로 미국의 침략전쟁도발흉계를 저지파탄시켜야 한다.

주한미군과 핵기지는 핵전쟁의 불길을 안고 있는 근원이고 한국의 자주권을 말살하는 범죄의 아성이다.

민족의 안녕과 한국의 자주화를 위해서는 이 땅에 도사리고 있는 주한미군과 핵위기부터 추방하고 미국의 무기강매책동과 살인흉기반입을 저지분쇄해야 한다.

한미간의 공조는 한국의 안보를 위한 평화공조가 아니라 이 땅에 전쟁을 불러오는 전쟁공조이다. 한미간의 공조를 빌미로 한국에 무기강매와 미사일공격체제수립, 대북정책공조를 강요해 나서고 있는 미국의 흉계를 짓부셔버림이 없이는 전쟁위험을 제거할 수 없다.

우리 국민은 악의 제국 미국과의 전쟁공조를 짓부수고 동족과의 평화공조, 통일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의로운 투쟁에 나서야 한다. 6.15공동선언의 기치밑에 자주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우리 민족의 머리위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부시행정부야 말로 ≪악의 축≫이다.

50여년동안 미국때문에 민족분단의 비극을 겪어온 것만 해도 통분할 일인데 그 미국에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강령인 6.15공동선언까지 농락당할 수 없다. 반미반부시투쟁은 곧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실천하기 위한 투쟁이다. 우리 국민은 6.15공동선언을 차단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부시정권의 범죄적 책동을 짓부셔버리기 위한 가열찬 투쟁으로 민족적 단합을 실현하고 자주통일의 활로를 열어나가야 한다.

미국의 전쟁도발책동은 이 땅의 냉전수구세력들을 길잡이로 하여 실행되고 있다. 이회창패당은 미국상전에게 대북강경정책을 충동질하여 ≪악의 축≫폭언을 토설케한 민족반역아이다. 이런 친미주구가 집권하면 남북관계는 6.15공동선언이전의 대결원점으로 돌아가고 한반도에서 전쟁이 터진다.

우리 국민은 미국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고 대선에서 친미주구 이회창을 낙선시켜 정치적으로 완전히 매장해 버려야 한다.

일방적인 군사패권주의로 국제적 긴장상태를 조성하며 인류의 머리위에 핵전쟁의 위기를 몰아오는 부시는 지금 세계적인 규탄의 대상으로 되고 있다.

현 시국은 반미반부시투쟁의 대중화를 요청하고 있다.

우리의 반미운동조직들과 전위투사들은 부시의 정체를 전면적으로 발가놓고 전국민이 민족적 분노를 안고 거족적인 반미반부시투쟁에 나서도록 선도해 나가야 하며 더 많은 기층민중들을 포섭하여 반미투쟁조직에 결집하여야 한다.

반미투쟁에서의 승리는 민족민주운동의 단결에 있다.

각종 반미투쟁단체들은 밀접히 연대연합하여 단결된 힘으로 미제의 전쟁연습책동과 영구강점책동, 6.15공동선언이행방해행위를 저지분쇄해야하며 이 땅에서 미제침략군과 핵무기를 철수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가야 한다.

우리 민중은 거족적인 반미반부시결사항전으로 반세기가 넘는 미국의 식민지지배와 민족분단을 끝장내고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반드시 성취하고야 말 것이다.

한국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주체91 (2002)년 3월 25일
서울

아리랑 축전을 준비하며

통일연대 사무처로 아리랑 축전에 대한 문의가 빗발친다. 그 때마다 이 험난한 정세에서 통일연대가 헤쳐 나가야할 막중한 사명에 대한 자각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아리랑 축전 참가단을 거대한 규모로 조직하고 6.15 민족공동행사를 성사시킴으로서 8.15민족통일대축전까지의 큰 흐름을 형성해나갈 그 모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

지금의 정세는 북미관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이에 따라 김대중 정권의 미국눈치보기는 극에 달하여 기존의 일정한 독자성마저도 찾아보기 힘든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올해의 민족대단결의 흐름이 실제로 이어지겠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상황을 그리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세의 흐름을 결정짓는 기본적인 힘은 미국이 아니라 바로 우리 민족과 세계 반제자주평화애호세력에게 있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분노가 나날이 증폭되어 미국과 수구반통일세력들의 북을 고립압살시키고 민족대단결을 저지, 파탄시키려는 기도가 그리 쉽게 먹혀들지 않는 것!

이것이야말로 지금 정세를 관통하고 있는 기본 흐름이다.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역효과만을 가져왔다. 김대중 정권은 위축되었는지 모르지만 7천만 전 민족의 전례 없는 반미열풍의 분위기가 급격히 고조되어 한미공조체제가 강화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족공조체제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인 일치감만 한층 더 높이는 결과가 초래되었을 뿐이다.

그렇다고 반미의식이 곧바로 통일의식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북과 함께 하는 방도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 있지 못하며 통일의 과제를 자기문제화 하고 있지 못하다. 바로 여기에 우리 통일운동의 과제가 있다. 통일연대는 이러한 과제에 올바로 화답하기 위하여, 국민들의 미국에 대한 항의의 거센 움직임을 더한층 발전시켜내고 이것을 민족대단결 의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일상적으로 전쟁반대 - 평화선언 및 미국상품불매운동을 군중운동으로서 벌려나가는 사업이며 다른 한 축으로 ≪아리랑관람범국민추진본부≫를 꾸려내고 아리랑 축전사업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사업이다.

이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벌려나가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통일운동이란 원래 그런 것이 아닐까? 6.15공동선언을 그 걸림돌 제거투쟁과 같이 결합해나가지 않고 실현해나가겠다는 것은 공상에 불과하다. 우리는 일상활동의 영역으로 반미투쟁을 군중적으로 벌려나가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거대한 에너지를 실제적인 민족대단결의 성과로 이어나감으로써 국민들에게 통일조국의 미래에 대한 자신과 희망을 주어야한다. 나는 통일연대 기층 일꾼들이 이러한 상을 조직적으로 토론하고 활동의 상을 잡아나가며 집단적인 기치를 높이 들고 활동해나갈 때 반드시 커다란 성과를 내올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곧 임동원 특사가 북을 방문한다고 하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드는 것 같아 마음이 바쁘다. 급변하는 정세에 맞는 구체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아마 올해의 통일운동은 상당히 다사다난하면서도 다채로울 것 같은 좋은 예감이다.

김이경 통일연대 사무처장
2002/03/27 통일연대 홈페이지 통일칼럼



아리랑 축전 이남 주민 참관 문제 곧 협의

4월 말 북한에서 개최될 아리랑 축전 관계자는 28일 ≪남한 사람들의 아리랑 축전 참관에 대해서는 조만간 남북 당국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질 것≫이며 ≪많은 남한 동포가 참관하게 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교도통신이 베이징(北京)발로 보도했다.

이와 함께 또다른 축전 관계자는 ≪축전 기간 (평양의 최고급 호텔인) 고려 호텔은 한국인 관광객과 해외 동포의 전용 호텔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본인 등 외국인 관광객을 이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의 발언은 임동원 대통령 특보가 오는 3일 북한을 방문할 경우 한국인의 아리랑 축전 참관 문제를 중점 의제로 다루겠다는 북한측의 의향을 표명한 것으로 보인다고 통신은 풀이했다.

또 고려호텔을 한국인과 해외 동포 전용으로 사용키로 한 것은 북한측이 한국인의 축전 참관을 전제로 구체적인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통신은 덧붙였다.

김용수 특파원
2002/03/28 연합뉴스

2002년 통일연대 4대 사업방향



1.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이행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을 형성하고 이를 파산시키려는 반통일 시도에 맞서 투쟁한다.

올해 조국통일의 전환적인 국면을 열어나가는 지름길은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고수하고 철저히 이행하는 데 있다. 통일연대는 올해 6.15공동선언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전 민족적 범위에서 계속 힘차게 벌여 나간다. 이를 위해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자!≫라는 구호를 높이 들고 6.15공동선언지지 관철 분위기를 더욱 고조시켜나가며 남북공동선언을 파탄시키려는 온갖 반통일시도들을 반대하여 투쟁한다. 6.15공동선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확산하고 대중이 참여하는 실천사업을 통해 광범위한 국민들을 6.15공동선언 실현의 주체로 세우는 것과 함께 국가보안법과 주적규정 철폐투쟁을 힘있게 전개함으로써 6.15공동선언 실현의 사회적 조건을 형성한다. 또한 부시 정권의 강경정책, 정권교체기와 맞물려 수구세력의 6.15공동선언을 파산시키고 민족대결을 조장하는 공세가 어느때 보다 극심할 것이며, 김대중정부의 외세의존성이 심화될 것이 예견되는 만큼 통일연대는 수구세력의 반통일행각을 반대고립시키는 것과 함께 김대중정부의 외세의존성, 6.15공동선언에 역행하는 동요성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한다.

2. 미국과 일본의 전쟁정책과 내정간섭을 반대하고, 자주적 평화통일의 토대를 마련한다.

6.15공동선언의 근본정신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조국을 통일하는 것이다. 미국의 대북강경정책으로 전쟁위기가 고조되고, 내정간섭이 더욱 노골화함으로써 나라의 통일문제가 외세에 의해 농락될 위기에 처한 엄혹한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평화를 지키고 통일문제에 대한 자주적 원칙을 고수해 나가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여 나갈 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통일연대는 통일운동에서 사대와 외세의존을 철저히 배격하고 민족공조를 실현하기 위한 전 민족적 운동을 힘차게 벌여 나간다. 특히, 미국 부시의 대북적대정책이 위험수위로 치닫고 이와 연동하여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본격화되고 있어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성이 어느 때보다 고조되고 있는 정세는 전쟁의 위험을 없애고 평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고 광범위하게 전개할 것을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다. 무기수입과 MD참여, 합동군사훈련 등을 반대하고 통일문제에 대한 간섭을 배격하며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투쟁을 통해 민족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자주통일의 전환적 국면을 열기 위한 전 민족적인 반전반미투쟁을 적극 벌여 나간다.

3. 6.15공동선언의 기치아래 민족대단결 운동을 더욱더 광범위한 거족적 운동으로 전개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한다.

6.15공동선언을 실현해 나가는 가장 힘있는 방도는 남과 북, 해외의 모든 통일역량을 하나로 결집하는데 있다. 따라서 통일연대는 지난해 성과를 이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는 광범위한 세력을 하나로 결집해 나가기 위한 민족대단결운동, 자주교류운동을 더욱 더 전면적으로 벌여나간다. 아리랑축제, 6.15 두 돌 기념행사, 그리고 이어지는 7.4남북공동성명 발표 30돌 기념일, 8.15광복절 등을 계기로 남북사이 각계각층의 통일행사와 전민족적인 통일대축전을 성사시킴으로써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촉진한다.

4. 통일연대를 대중적으로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통일운동세력의 광범위한 연대연합을 실현함으로써 민간통일운동의 역량을 강화한다.

지난해 성과를 계승하고 한계를 극복하여 통일연대를 강화하고 통일운동세력의 광범위한 연대연합을 실현하는 것은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되고 수구세력의 방해가 어느 때보다 기승을 부릴 2002년 정세에서 더욱 더 중요하다. 통일연대는 더욱 더 대중적이고 민주적인 사업방식, 조직운영을 구현하여 조직적 결속력을 강화하는 것과 함께 더많은 단체를 참여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지역조직 건설에 박차를 가한다. 아래로부터의 조직적 힘을 바탕으로 광범위한 통일운동세력의 연대를 주동적으로 실현한다.

6.15남북공동선언 실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진짜 악의 근원을 들어내자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8일~19일



반세기이상이나 지속되어온 미군의 한국강점은 우리 민중에게 참으로 많은 불행과 고통을 안겨주었는데요. 그건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각도 우리 민중에 대한 주한미군의 만행은 그치지 않고 있는데요. 그럼 이번엔 경기도 파주시에서 살고 계시는 김철영씨가 보내온 글입니다. ≪진짜 악의 근원을 들어내자≫.

미군의 만행으로 우리 민중이 당하는 고통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지고 있다.

지난달 12일 미2사단 **여단소속 미군이 경기도 파주시 파평면 장파리마을에서 농민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날 미군은 마을길을 지나가면서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고도 이에 항의한다고 해서 우**농민을 총탁으로 어깨를 내리쳐 넘어뜨리고 총구로 얼굴을 찌르는 폭행을 가하였다. 이 만행으로 우씨는 뇌타박까지 받고 병원으로 실려갔다고 한다.

이러한 미군의 만행에 농민들을 비롯한 각계 애국민중은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건 미군의 이러한 만행이 처음이거나 또 한두번만 있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파평면 장파리 농민들은 그동안 이 지역에 있는 미군사격장과 탱크훈련장에 의한 피해로 계속 고통을 당해왔다. 원래 이 훈련장은 1971년 미군이 동두천으로 옮겨가면서 비어지게 됐다. 그러나 미군은 여기를 사격장과 탱크훈련장으로 만들어버렸다. 그리고는 여기 주민들이 빼앗긴 땅을 되찾기 위한 운동을 벌이자 1998년부터는 본격적인 기갑부대훈련을 진행했던 것이다. 결국 농민들의 맨몸과 탱크와의 전쟁이 시작됐던 것이다.

정**농민의 큰아들이 미군탱크에 치어 희생된 것은 그 하나의 사례이다. 그동안에 농민들이 당한 피해와 그로인한 고통은 이루헤아릴 수가 없을 정도였다. 또한 각종 소음공해와 환경오염을 비롯해서 훈련도중에 발사되는 포탄에 의해 항시적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살아가야 했다.

그칠새없는 미군의 만행에 분격한 농민들의 투쟁이 강화되자 미2사단은 지난해 8월 농민들에게 마을길 통행을 막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이를 무시했다. 그리고는 이를 항의하는 농민들에게 폭행까지 가하는 횡포를 자행했던 것이다.

이것이 어찌 파평면 장파리농민들만이 당하는 고통이겠는가. 이 땅 전체 농민들, 아니 우리 민중전체가 당하는 불행과 고통인 것이다.

제반 사실은 주한미군이야말로 이 땅에 발을 들여놓은 첫날부터 우리 민족에게 헤아릴 수 없는 재난을 가져다준 침략자이며 우리 민중이 겪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야말로 진짜 악의 근원이며 우리와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철천의 원수임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현실은 주한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투쟁에 농민들을 비롯한 이 땅의 각계 애국민중이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설 것을 요청하고 있다.

우리 농민대중은 미군을 몰아내기 전에는 자신들이 당하는 불행과 고통이 가셔질 날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고 반미투쟁에 더욱 힘있게 나서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땅에 외세가 없는 통일된 민중의 참세상을 기어이 안아와야 할 것이다.

저주로운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 민중의 원한 하늘에 닿았습니다. 그 원한을 힘과 용기로 바꿔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은 미군을 이 땅에서 몰아내기 위한 반미항전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야 할겁니다.



국방부, 끝내 미국 F15로 내정



국방부가 다수 국민 반대여론과 정부내 일부 부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차세대전투기(FX)로 미국 보잉의 F15를 사실상 내정해 큰 논란을 빚고 있다.

이같은 국방부 결정에 대해 프랑스 등 유럽국가들은 국제소송등을 검토중이며, 사회시민단체들도 최종결정권자인 김대중대통령에게 국방부 결정을 재가하지 말라는 압력을 행사하기 시작해 파문이 급속히 커질 전망이다.

국방부 고위관계자는 27일 오전 ≪지난 23일부터 F15 등 4개 기종에 대해 행한 국내 4개 기관별 1단계 평가결과를 종합한 결과 F15와 라팔이 오차범위 3%안에 들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F15와 라팔의 점수차가 오차범위인 3%이내에 들어 한미동맹관계 등 정책적 요소에 따라 기종을 결정하는 2단계 평가단계로 넘어감에 따라 미국의 F15가 사실상 선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 관계자는 ≪2단계 평가는 관계부처와의 협의 등을 거쳐 다음달 중순이후 확대획득 회의를 거쳐 기종을 최종확정지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국방부 발표는 27일 오전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열리기 직전에 일방적으로 나온 것이어서, 정부내에서도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NSC회의는 회의 개최 전부터 부처간 이견으로 격론이 예고됐었다.

김동신 국방장관은 노후전투기 교체시기를 놓치면 군 전력에 막대한 차질이 생기는 점을 들어 기종선정과 FX사업 추진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이다.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도 국가의 대외신인도 문제를 들어 원칙적으로 추진에 찬성하는 입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반해 임동원 외교안보통일특보나 신건 국정원장, 정세현 통일부장관 등은 일단 사업연기 후에 다음정권에서 기종을 결정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부처간 이견이 팽팽하자, 국방부는 회의전 서둘러 F15 내정 사실을 흘림으로써 F15 도입을 기정사실화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방부는 NSC 회의 직후인 27일 오후 F15내정을 공식발표했다.

손봉석 기자
2002/03/27 프레시안

민주당 개혁그룹, ≪F-X사업 자주적 판단≫ 촉구

국방부의 차세대전투기 도입사업(일명 ≪F-X사업≫)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이 처음으로 F-X사업에 대한 투명한 결정을 촉구해 주목된다.

이들은 특히 ≪특정기종을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에 의해 기종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는 우려를 전달한 뒤 ≪기종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김성호, 김태홍, 이재정 의원 등 민주당 개혁그룹인 새벽21 소속 의원 12명은 27일 여의도 모 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차기 전투기 사업은 4조259억원이 소요되는 국가적 이익이 달려있는 사업≫이라면서 ≪F-X 사업 기종결정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자주적으로 추진하고, 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특히 ≪최근 일방적 패권주의 성향을 보여 온 미 조지부시 공화당 정부 및 특정군수산업체와 이를 비호하는 세력의 압력에 의해 국가의 자주적 무기획득 의사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된다≫면서 ≪많은 국민들은 국방부가 특정국가의 특정기종 선정을 위해 전문 평가단에 의한 1단계 정량적 평가에서 3% 이상의 평가차이로 결정하지 못하고, 결국 경제적 고려에 의해 특정기종을 불공정하게 선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국방부는 기종결정 과정이 공정, 투명하게 하며 국민적 공감대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이익의 관점에서 자주적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력히 주문했다.

공희정 기자
2002/03/27 오마이뉴스

귀막은 국방부



논란을 거듭해온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기종이 사실상 F-15K로 결정되자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항의하고 나섰다.

27일 낮 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는 자통협, 평통사, 민주노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주최로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 고발 및 F-15K 선전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그간 시민사회단체들의 F-15K도입 반대 여론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차세대전투기로 F-15K를 사실상 내정한 국방부에 대해 규탄의 목소리를 높였다.

홍근수 자통협 상임대표는 취지설명을 통해 ≪국민들이 타당한 이유를 들어 반대하는 F-15K를 도입하려는 국방부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며 ≪이번 평가의 실무책임자인 최동진 국방부 획득실장을 군 검찰에 고발하는 것을 시작으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F-15K 도입을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F-X사업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을 해소하려는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은 채 서둘러 F-15K를 선정한 국방부의 오만과 사대매국적 행위에 분노를 참을 길이 없다≫며 ≪보잉사의 대리인 노릇을 하고 있는 김동신 국방부 장관과 최동진 획득실장을 비롯한 국방부 수뇌부들은 더 이상 우리 국민이기를 포기한 자들≫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기자회견문은 또한 ≪타당성과 공정성을 완전히 결여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즉각 중단할 것과 F-15K 기종선정을 철회할 것≫을 국방부에 거듭 촉구하며 ≪만약 국방부가 범국민적 여론에 귀를 막은 채 F-15K 도입을 강행한다면 국민적.역사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 경고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참가자들은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규탄집회를 갖고 최동진 획득실장에 대한 고발장을 군검찰에 접수시켰다.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 자통협 홍근수 상임대표, 민주노총 허영구 직무대행, 민주노동당 천영세 부대표,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문규현 대표, 천주교정의구현 전국연합 박순희 대표를 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에서 주최측은 조주형 공군대령의 양심선언에서 드러난 F-15K 도입 압력과 평가부분 삭제 발언 등을 들어 최동진 획득실장을 형법상 직권남용죄로 고발했다.

이같은 F-15K 도입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국방부는 오후 1시 기자회견을 통해 ≪F-15K와 라팔 두 개 기종이 오차범위 3% 내에 포함돼 2단계 평가를 실시하게 됐다≫고 발표해 한미동맹 등 정책적 고려가 중요 평가기준인 2단계 평가에서 미 보잉사의 F-15K가 최종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써 차세대전투기 사업의 기종선정에 관한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고, 앞으로 F-15K도입을 둘러싼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방부와의 마찰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장동렬 기자
2002/03/27 통일뉴스

전국 대학생, 미국상품 불매운동 나서

한총련 기자회견서 사이버 서명운동 등 진행예정

얼마전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박탈사건으로 전국을 들끓게했던 네티즌들의 미국상품 불매운동에 이어 전국 대학생차원의 대규모적인 미국상품 불매운동이 이어질 전망이다. 10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은 오늘(22일) 1시 미상공회의소가 있는 무역센터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주권회복운동, ≪미국제품 불매운동에 대학생들이 앞장서겠다≫고 나선 것이다.

한총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김동성 선수의 금메달 강탈사건뿐만 아니라 ≪힘의 논리≫를 앞세운 미국식 패군주의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국수주의의 발로이거나 감정적 대응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덧붙여 한총련은 ≪미국제품 불매운동을 범국민적인 것으로 만들기 위해 온라인,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실천활동을 가져가겠다≫고 밝혔다.

한총련은 이번 불매운동의 일환으로 온라인 상에서 F-15 도입 반대 사이버 시위와 미국제품 불매 사이버 선언운동을 국방부싸이트(http://www.mnd.go.kr)와 한총련 홈페이지(http://hcy.jinbo.net)에서 각각 벌인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오프라인 상에서는 29일 국방부 앞에서 F-15 도입 반대 항의 집회와 전국 대학가에서 맥도날드 불매 1인 시위를 진행한다. 또한 각 대학 정문 도서관 등에서 미국제품 불매운동 현황판을 설치하고 미국제품 불매운동 특집 신문 발행 및 배포, 포스터 스티커 제작 등 이 운동이 지속적인 것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사무처장 김판태씨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최근 F-15 전투기 도입 등 우리 국민들의 반미 감정이 어느때보다 고조되어 있다≫며 ≪많은 대학생들과 국민들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최범수 기자
2002/03/22 유뉴스

고이즈미 서울행각 반대 기자회견과 규탄집회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23일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전국민중연대와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 투자협정세계무역기구반대 국민행동을 비롯한 10여개 시민운동단체들이 공동으로 일본총리 고이즈미의 서울행각과 때를 같이해 22일 주한일본대사관앞과 종묘공원 등지에서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 허영구씨는 지금 한일관계는 일제 식민지시대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지난 반세기이상 일본의 경제지배는 계속됐고 이제는 군사대국화로 언제 다시 일본군대가 한반도에 진출할지 모른다고 격분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한일투자협정의 본질은 일본이 경제지배를 발판으로 군사적 진출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외세에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전국연합 상임의장 오종렬씨는 지금은 50여년전 을사조약을 체결할 때와 똑같다며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일어섰던 선열들처럼 지금 바로 우리 민중이 일어나야 할때라고 지적했습니다.

여러 단체들이 고이즈미의 방한을 반대해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진 것은 일본 군국주의자들에 대한 우리 민중의 쌓이고 쌓인 원한과 울분의 표시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민중은 일제 식민지지배 40여년간의 악몽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으며 일본의 과거행위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이즈미가 우리 민중의 이러한 요구는 외면한 채 이 땅에 기어든 것은 그것이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고 나아가 군사대국화에 대한 발판을 마련해 보려는데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고이즈미가 방한해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고 ***********하고 한반도와 **아시아에 대한 정치군사적 지배를 ******하기 위한 일본제국의 패권쟁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고이즈미의 이번 방한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범죄적 지배를 강화하고 군사대국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며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기어코 실현하기 위한데 그 저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우리 민중이 어제날의 조선민중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깨닫고 한반도에 대한 재침야망을 즉시 버려야 합니다.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과거 죄행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보상은 물론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부터 고치고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국가적 배상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만약 일본이 이런 문제들에 대해 계속 외면하고 패권쟁탈만 추구한다면 우리 민족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규탄만을 받을 것입니다. 일제 식민지통치의 이러한 망국사를 체험한 각계 민중은 높은 경각심을 가지고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야망을 걸음마다 저지시키고 과거죄행에 대한 성실한 사죄와 배상을 받아낼 때까지 반일투쟁을 전국민과 함께 도처에서 광범위하게 벌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창, 너는 죽어야 한다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25일



반노동자적인 망발을 일삼고 있는 이회창의 행위는 우리 1300만 노동대중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발전노조에서 일보고 계시는 김순한씨의 글을 박진수씨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회창, 너는 죽어야 한다≫.

이회창을 비롯한 한나라당패거리들이 최근 노동자들의 생존권투쟁을 이기적인 폭력으로 몰아붙이는 악담을 퍼부었다고 한다. 까마귀입에서 까욱소리밖에 나올 수 없듯이 이회창의 입에서 이런 넋두리가 나오는 건 그리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이회창이 초보적인 생존권을 위해 그처럼 처절하게 몸부림치고 있는 우리 노동자들을 모독하는데 대해서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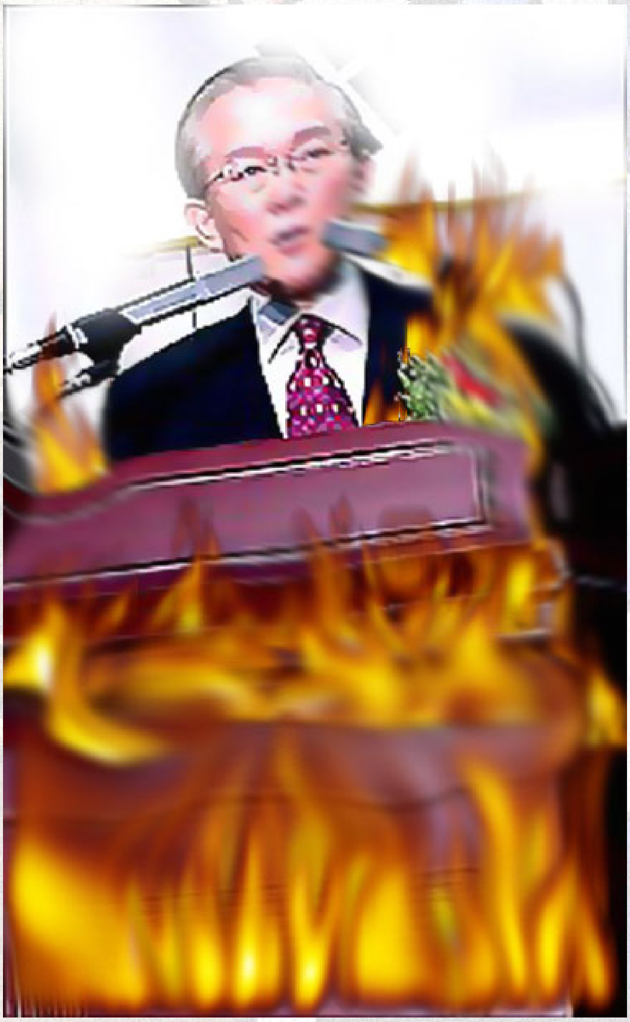
지금 이 땅은 미국이 강요하는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으로 경제가 파산몰락하고 노동자들은 실업자로 전락되고 있다. 실업자대열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노숙자들과 고아 아닌 고아들이 거리에 차서 넘친다. 가정이 파탄되고 앞날에 대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이 사회를 저주하며 목숨을 끊는 자살참극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각종 사회악이 범람하고 있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이 땅에 대한 군사적 강점과 경제적 침탈책동때문이다. 이로 인해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빼앗기고 노동자들이 권력과 자본의 희생물로 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그런데도 이회창은 인간의 초보적인 삶의 권리를 요구해 나선 것마저도 이기적인 폭력으로 몰아붙이며 파쇼탄압에로 유도하고 있다. 노동자의 생존권투쟁이 왜 이기적인 폭력이란 말인가. 노동자가 초보적인 생계보장을 요구해 나선 건 당연한 것이고 그를 위해 실력행사에 나선 건 법적으로도 규제된 합법적인 권리행사이다. 그런데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행동을 이기적인 폭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이를 어찌 참을 수 있단 말인가.

진짜 이기적인 것은 이회창이다.

이회창으로 말하면 자기 일개인의 야심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나라와 민족을 파는 것도 서슴지 않는 매국역적이다. 그는 온 민족, 온 겨레가 한결같이 바라는 조국의 통일을 한사코 반대하면서 갖은 방해를 놀았다. 얼마전에는 대통령감투를 노리고 미국상전들을 찾아다니며 역적행위를 일삼아 각계의 규탄과 배격을 받았다. 그런 이회창이 초보적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의 투쟁까지도 이기적인 폭력으로 몰아붙이고 있으니 생각만해도 끓어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이런 친미사대분자이며 극악한 반통일분자인 이회창을 이땅에 그대로 살려두고서는 노동자들의 참된 삶의 권리를 실현할 수가 없다.

노동대중은 이러한 쓸개빠진 이회창을 정계에서, 아니 이땅에서 영영 드러내야 한다. 그 뿌리까지도.

이회창의 망언에 분노한 우리 1300만 노동대중, 아니 온 국민, 온 민족은 입을 모아 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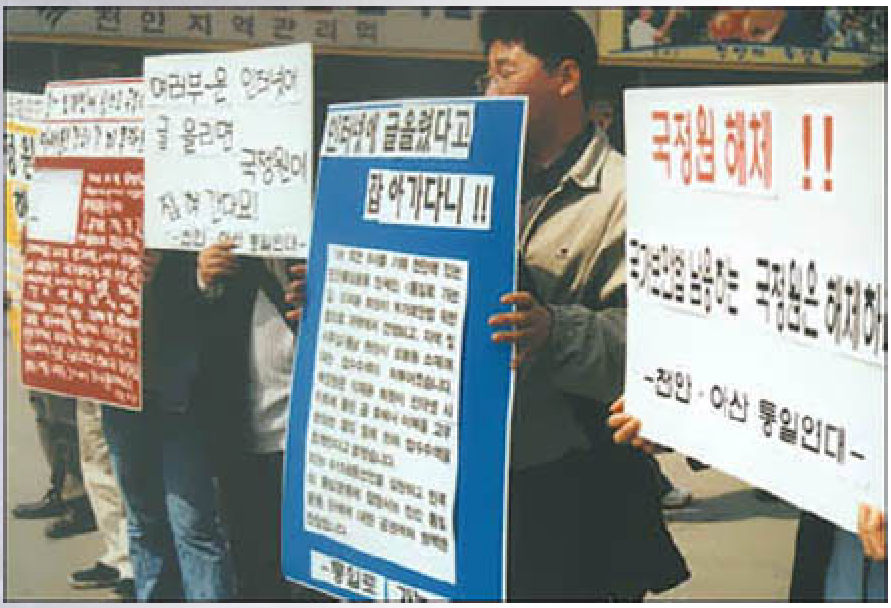
≪이회창, 너는 죽어야 한다.≫

세살때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죽을 때까지 세살때 버릇을 고치지 못한다는 얘기로 이회창을 두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용납할 수 없는 국정원의 폭압만행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25일

이미 보도가 됐습니다만 국정원은 지난 19일 충남 천안지역에서 민간통일운동단체인 ≪통일로 가는 길≫에 가입해 활동하던 이재윤씨를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및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를 씌워 연행하는 폭거를 자행했습니다.



이것은 겨레의 통일지향에 역행하고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해 투쟁하는 각계 민중들에 대한 용납못할 도전행위로써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범죄행위입니다.

아시다시피 외세에 의해 타율적으로 강요된 국토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중과 겨레는 장장 반세기이상이나 온갖 불행과 가슴 아픈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줌도 못되는 분열주의집단을 제외하고 우리 겨레와 민중은 모두 조국이 하루빨리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 실현을 위해 마음을 쓰며 투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투쟁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이후 더욱 가열차게 벌어지고 있으며 그것은 그 무엇으로써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흐름으로 굽이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의 우리 민중들도 이러한 범민족적인 통일운동에 합세해 경향 각지에서 각이한 이름을 가진 민간통일운동단체들을 내오고 여러 가지 통일운동을 힘차게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윤씨도 민족의 일원으로써의 책무를 느끼고 양심의 호소에 따라 민간통일운동단체인 ≪통일로 가는 길≫에 망라되어 민족의 통일위업을 실현코저 열성껏 뛰었던 것입니다. 이씨의 이러한 활동은 더없이 의롭고 정당한 것으로써 마땅히 높이 찬양받아야 할 애국애족적 소행으로써 결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그에게 당치않게 극악한 반통일악법인 국가보안법상의 찬양 및 이적표현물 소지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씌워 연행하는 용납못할 탄압만행을 자행한 것입니다.

국정원은 이씨를 잡아가두기 위해 그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민간통일운동단체의 모임자료와 컴퓨터, 각종 자료와 서적 등을 압수하는 소동을 피웠던 것입니다.

통일운동에 나선 사람을 범죄자로 몰아 탄압하는 것은 국정원이 바로 반통일폭압기구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통일하고 함께 살 이북을 소개선전했다고 해서 죄인으로 몰아 탄압하는 이러한 폭압기구는 어떤 명분으로도 그 존재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지난 시기 국정원이 통일인사들뿐 아니라 반미자주화와 반파쇼민주화를 위해 활동한 수많은 민주애국인사들을 가혹하게 탄압해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국정원이야말로 우리 민중의 자주, 민주, 통일위업수행을 방해하는 커다란 걸림돌입니다.

제반 사실은 국가보안법과 함께 국정원을 없애버리지 않고서는 우리 민중이 통일운동을 활성화할 수 없고 자주, 민주, 통일위업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국자들이 진실로 이 땅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바란다면 국가보안법철폐와 함께 국정원을 당장 해체해야합니다.

각계 애국민중은 ≪국가보안법철폐!≫와 ≪국정원해체!≫구호를 높이 들고 모두 한데 굳게 뭉쳐 완강히 싸워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김현희 KAL기 사건의 모든 자료를 공개하라≫



≪김현희 KAL기 사건의 모든 사건 관련자료를 공개하라.≫

오늘 오전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가족 진상규명대책위≫, ≪천주교인권위원회≫,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 주최로 서울지방검찰청 기자실에서 열린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기록, 재판기록 행정정보공개청구 기자회견≫에서 박창일 신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박창일 신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하는 사유에 대해 ≪현재 김현희 KAL기 사건에 대해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당시 언론보도와 안기부 발표뿐≫이라면서, ≪그러나 그 안기부 발표란 것이 최근 밝혀진 홍콩 여간첩 수지 김 사건, 최종길 교수 타살과 장준하 선생 암살사건 등 여러 전례를 돌이켜 볼 때, 조작의 가능성이 높고 그 신빙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박창일 신부는 ≪김현희 KAL기 사건 희생자 가족들과 관련 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제 더 이상 정부와 국정원의 답변만을 가다릴 수 없어 직접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민변의 김형태 변호사는 ≪김현희가 무죄인 또 하나의 이유≫ 설명에서 당시 안기부 수사발표와 판결문 비교를 통해 드러난 대한항공 858기 실종사건의 의혹을 몇 가지 제기했다.

즉 김형태 변호사는 김현희가 1972년 11월 2일 평양에 도착한 장기영 대표에게 꽃다발을 주었다는 사실을 판결문에 설시하지 않은 점 김현희가 깨물었다는 독약 앰플이 형상이 유지된 온전한 형태의 증거물로 제출된 점 김현희가 빈에 도착한 곳이 바뀐 점 김현희가 수여받았다는 상훈의 이름과 수여 시기가 달라진 점 김현희가 빈에서 묵었다는 암파클링 호텔의 객실 호수가 누락된 점 등을 제기했다.

또한 민변의 심재환 변호사는 ≪졸속 수사로 발표된 안기부 발표와 그 허구성≫ 발표에서, 안기부 발표와 김현희의 수기가 엇갈린 곳이 80군데에 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재환 변호사는 특히 한국정부의 수사발표문과 김현희의 자백내용에 대해 일본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들이 현장취재를 통해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났는데, 이후 김현희는 자신의 수기에서 일본 프리랜서들에 의해 확인된 내용을 슬그머니 반영시켰다면서, 이는 한국정부와 김현희 자신이 진술한 바를 스스로 부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에서 ≪김현희를 직접 만났는가≫라는 질문에 남상덕 천주교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은 ≪김현희는 김영삼 정부때까지 공개활동을 했는데 지금은 공개활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모처에 의해 신변보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명절때도 시댁에 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남상덕 사무국장은 김현희 KAL기 사건은 무엇보다도 98년 10월 국가정보원에 의해 ≪북풍의혹≫ 사건으로 문제제기가 되어 재수사 사건으로 발표된 바 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김현희 KAL기 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준)≫는 김현희 KAL기 사건 관련 수사기록과 재판기록에 대한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서울지방검찰청 1층에 있는 종합민원실에 접수시켰다.

이계환 기자
2002/03/21 통일뉴스



국정원 범청학련 관련자 구속 규탄 통일연대성명

국정원은 민간통일운동 탄압 즉각 중단하고,
청년 통일운동가 범청학련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지난 3월 22일 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김혜신씨를 비롯한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2인이 국정원에 연행 구속되었으며 범청학련 남측본부 후원회 1인은 수배중이라 한다.

최근 통신검열로 국정원에 연행 구속된 ≪통일로 가는 길≫ 이재윤씨 사건이후 연이어 발생

한 범청학련 관련자의 구속, 수배조치는 국정원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한 것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사실상 공개적 활동을 해온 범청학련에 대하여 이적단체를 빙자, 구속 수배를 단행함으로써 국민의 정부의 출범 이후로 그나마 자제해오던 각종 공안탄압을 다시 본격화하려 하고 있다. 이것은 6.15남북공동선언의 시대에는 도저히 맞지 않을뿐만 아니라 이제 그나마 민족의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왔던 그 모든 흐름을 종식시키기 위한 음모가 아닌가를 심각하게 저어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작년 8.15민족통일대축전의 참가대표단 중 범민련 남측본부 성원들을 무분별하게 구속한 사례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당시 집중적으로 가해진 수구반통일언론의 여론몰이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측면이 강했으며 이렇게 노골적으로 범민련 및 범청학련 일꾼들을 아무런 이유없이 연행 구속한 사태는 그보다 훨씬 더 엄중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올해 전개될 남북간의 대규모적인 부문교류중 청년학생교류사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더 나아가 또다시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려는 저의를 노골화한 것으로 밖에는 볼수 없다. 이에 통일연대는 국정원의 민간통일운동에 대한 노골적인 탄압의 신호탄이라 할 수 있는 범청학련 관련자들의 구속, 수배조치에 대해서 민간통일운동 전체의 이름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엄중하게 경고한다.

과거 안기부의 이름만 바꾼 국정원이 행한 반민족적, 반인륜적, 반통일적 행태가 여지없이 그대로 폭로되고 있다. 국정원이 부정부패의 온산지라는 것을 세 살짜리 어린아이도 알고 있다. 자신이 행한 범죄행위에 대한 반성없이, 낡아빠진 주적론, 이적단체 규정을 적용하며, 6.15 남북공동선언 실현을 방해한다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룰 수밖에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정원은 청년통일운동가 범청학련 관련자들을 즉각 석방하라!

6.15 남북공동선언시대 역행하는 이적단체 규정 즉각 철회하라!

2002. 3. 24

6.15남북공동선언실현과 한반도평화를 위한 통일연대



≪정부, 발전 노조 와해 위해 협상 결렬시켰다≫

사태해결 뒷전, 미복귀 전원 해고 방침



25일 새벽 연세대 농성장에 경찰력 투입한 데 이어 복귀하지 않은 조합원 전원에 대한 해고 방침을 재확인하는 등 정부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 초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회단체들과 발전노조, 민주노총, 국회의원 등은 정부에 즉각 대화와 협상에 응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25일 낮 1시 46개 사회단체로 이뤄진 ≪국가기간산업 민영화(사유화) 및 해외매각 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아래 범국민대책위)는 명동성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즉각 서민과 나라 경제를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노정교섭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홍근수 목사는 ≪전문 학자들과 사회 각계 인사들이 나서서 민영화를 유보하고 국민적 토론을 거치라고 하는데, 정부는 힘으로 노조를 제압하고 민영화를 밀어붙이려고만 한다≫며 ≪이것이 과연 민주정부냐≫며 탄식했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 의장은 성명서를 읽으며 ≪발전소 매각 정책을 철회하고,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징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25일 아침 정부는 이날까지 미복귀한 노조원 전원에 대해 해고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노총도 25일 성명서를 내 ≪1천5백명 교사를 해임시켰던 과거 군사정권을 떠올리게 한다≫며 ≪4천명 집단해고 등 무모한 강경책의 책임은 결국 정부가 지게 될 ≪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의 허영구 위원장 직무대행은 ≪26일 낮 2시 총파업을 결의하기 위한 대의원대회가 개최될 것≫이라며 ≪정부가 대화를 통해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다면 노동자와 정부 간의 정면 대결이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한편, 노사 간의 협상 결렬과 사태 악화의 책임은 정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근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정부가 노조 와해를 위해 의도적으로 협상을 결렬시켰다≫고 폭로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지난 23일 노조는 한 발 양보해 민영화를 언급하지 않고 징계 최소화 등 현안문제 타결을 중심으로 협상하기로 하고 대화를 재개했다. 그러나 회사측이 갑자기 민영화를 인정하라고 요구해 협상이 중단됐다. 이는 이제껏 ≪민영화는 교섭 대상이 되지 않는다≫던 정부가 태도를 돌변한 것이다. 이윽고 24일 방용석 노동부 장관은 일방적으로 협상결렬을 선언했다. 안 의원은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와 회사는 ≪노조가 민영화 철회를 요구하며 물러서지 않아 협상이 결렬됐다≫고 거짓말을 했다≫며 지금이라도 올바른 사태해결을 위해 나서라고 정부에 당부했다.

발전노조는 같은 날 2시 명동성당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정간 극한 대립과 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전력대란이 우려된다≫며 정부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구≫했다.

이주영 기자
2002/03/26 디지털말



발전노조, 대량해고에 맞서 ≪끝까지 투쟁≫



노조집행부는 끝까지 투쟁 선언, 연세대 연행자 묵비권 행사

사측의 해임에 맞서 노조측은 성명서를 통해 ≪사회 각계 원로와 시민사회단체, 국회 모두가 발전소 매각은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뒤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인데도 정부가 노조원들의 농성을 폭력적인 방법으로 진압했다≫며 ≪발전소 매각 철회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농성장을 빠져나온 노조원들은 수도권 일대에서 다시 산개투쟁에 들어갔으며, 경찰에 연행된 노조원 381명 가운데 상당수는 지도부의 지침에 따라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26일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발전소 매각 반대와 정부의 노동탄압에 맞서 총파업 돌입을 결의할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논평에서 발전노조원들은 조속히 사업장에 복귀해 발전산업 정상화를 도와달라고 호소했으며, 한나라당은 정부와 노조는 국민생활과 국가경제를 위해 대승적인 대화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발전파업 미복귀자 전원해임

정부는 25일 오전 이한동(李漢東) 총리 주재로긴급 노동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발전노조 파업 미복귀자에 대한 해임 등 법에 따른엄중조치 방침을 재확인하고 파업 참가자들의 즉각 복귀를 거듭 촉구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뒤 산자, 행자, 노동 3부장관 합동기자회견을 통해 미복귀자해임방침을 확인하며 ≪정부는 안타깝지만 그동안 수차 공언해온 대로 이번 불법파업에 대해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신국환 산자장관은 ≪노조집행부는 최종 업무복귀 시한만 넘기면 자신들이 승리한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근로자의 생존권을 담보로 노조원들의 업무복귀를 철저히방해했다≫면서 ≪회사측은 이에 따라 오늘 오전 10시를 기해 미복귀 노조원 전원해고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신 장관은 이어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면서 ≪발전노조 지도부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지하고 노조원들을 더 이상 희생시키지말라≫고 불법파업의 즉각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신 장관은 ≪민영화는 국민적 합의과정을 거쳐 결정된 국가정책으로 불법파업으로 인해 철회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군인력 교육, 유관기관 직원 투입 및 경력직 사원모집, 신규채용 실시 등 대체인력 확보대책 마련 등 전력공급 차질방지를 위한 대책마련에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민주노총, 내달 2일 ≪총파업≫ 결의

민주노총이 발전노조의 파업과 관련, 다음달 2일 전면 총파업 돌입을 결의해 발전 파업 사태가 노정 대결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26일 오후 서울 올림픽 역도경기장에서 대의원 등 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가 파업 노조원 대량해고,명동성당 공권력투입 등을 자행하면 투쟁본부 대표자 회의를 거쳐 다음달 2일 오후 1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결의했다.

민주노총은 그러나 교섭권을 위임받아 대통령과 여야대표 면담 등을 추진하는 등 대정부 교섭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번 총파업에는 공공연맹과 금속연맹 소속 노조들이 대거 가담하고 전국교직원노조등도 연가투쟁 등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전체 참가 규모는 지난달 26일 1차 총파업 때와 비슷한 100여개 노조 10만여명이 될 것으로 민주노총은 예상했다.

민주노총은 이에앞서 27일부터 전국 단위노조별로 노조 간부 중심으로 철야농성에 들어가고 지역별 발전노조원 가족집회에 적극 참여키로 했다.

또한 오는 30일 노동사회단체들과 연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 민중대회를 열고 발전사태를 풀기 위한 정부와 사용자측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과 노동탄압 중단 등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발전노조 집행부는 27일까지 각 조별로 사직서를 받아 노조 상황실에 제출토록지시했으며, 노조원들은 수도권을 돌며 산개투쟁을 지속했다.

신국환 산업자원부장관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파업 지도부와 주동자에 대해선 해고 등 엄정 처리하되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징계과정에 3차례 소명기회를 줘 단순가담자는 정상을 참작, 최대한 구제해 피해자를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발전회사측은 파업 한달째인 이날 오후 2시 현재 노조원 5천591명 가운데 33.5%인 1천875명이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집계했다.

특히 조장급 노조원 등으로 구성된 3차 징계대상자 404명 가운데 200명 가량이 업무에 복귀했으며, 전북 무주양수발전처의 경우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위원장을 제외한 노조원 48명 전원이 파업을 푸는 등 노조원들의 동요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한편 이날 보일러수 누설로 동서발전 소속 20만kW급 울산화력 2호기의 가동이 중단되는 등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전력대란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시민의 신문

≪공무원노조 생기면 부정부패 설 자리 없다≫

공무원들이 ≪노동조합≫ 깃발을 치켜든 이유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선 국회의사당이 정면으로 보이는 국회 정문을 통과해야 했다. 여의도 1번지 국회의원회관 806호. 이곳이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전공련) 사무실이다.

사실 좀 어색했다. 아직 노동조합으로 정식 출범하지는 않았지만, 전국공무원노조 건설의 총사령부인 전공련 사무실이 국회에 있다니? 그러나 곧 ≪이게 바로 공무원노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해온 차봉천 위원장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회사무처의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그랬다. 공무원노조는 차 위원장처럼 공직사회 내에서 지극히 평범하게 살아왔던 수천, 수만 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앞장서 건설해 나가고 있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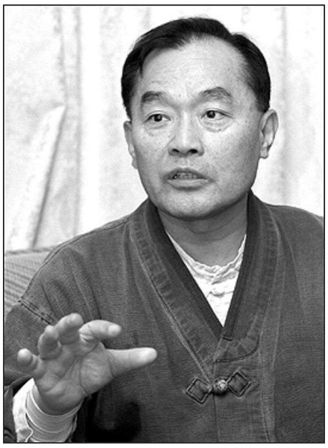
해고,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좋다

≪일각에서는 ≪너희 공무원들도 집단이기주의를 관철하려고 노조를 만드냐≫고 해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합니다. 물론 공무원들도 자기 봉급과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싸우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가 공무원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주목적은 공직사회 민주화,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이고, 그 다음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향상입니다. 공직사회 내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공무원집단이 이 사회에서 가장 깨끗한 집단으로 평가받을 때까지 우리는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사정위의 한 간부는 저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우리나라엔 해방 이후 6.25, 4.19, 5.16 등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있었는데, 공무원노조 결성도 그만한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구요.≫

법이 제정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공무원노조는 어쩔 수 없이 과거 전교조와 같은 ≪불법단체≫ ≪법외노조≫로 출범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두렵지는 않습니까.

≪허허. 설마 저를 죽이기야 하겠습니까. 기껏해야 사법처리해서 감옥에 가두는 거지요. 그럼 공무원 신분상 강제퇴직이 되겠죠. 하지만 저를 포함해 전공련 임원, 간부들은 더 좋아할 것입니다. 공무원 일 안 하고 노조 일만 전념할 수 있잖습니까. 전 오히려 고마워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우린 법적으로 전임자도 주어지기 어려운데, 전임하도록 국가가 기회를 주는 거잖아요. 해고 많이 당하면 당할수록 우린 좋습니다. 모두 ≪해직만 돼라. 그럼 더욱 본격적으로 할 것이다≫라고 벼르고 있어요. 정부도 똑바로 알아야 해요. 전교조도 해직된 수천 명의 교사들이 이끌어온 것입니다.≫

차 위원장의 입장은 단호했다. 수백, 수천 명이 해고.징계를 당한다 해도 전혀 개의치 않을 태세였다. 그러나 이는 차 위원장을 포함한 몇몇 지도급 인사만의 생각일지도 몰랐다. 실제 기자는 몇몇 노동계 인사들로부터 ≪일반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공무원노조에 얼마나 많은 공무원들이 동참할 수 있으리라 봅니까.

≪전공련 산하 2백여 각 지역, 직능별 공직협들은 모두 노조로 갈 것입니다. 문제는 그 공직협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얼마나 참여할 수 있느냐는 것이겠죠. 솔직히 1백%는 힘들 겁니다. 혹시나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90% 이상은 반드시 갑니다. 계속해서 설득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성과도 상당합니다.≫

곧이어 차 위원장은 공무원노동기본권 문제해결을 위한 논의에 성실하게 나서지 않고 있는 정부측을 향해 화살을 돌렸다. ≪정작 진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은 공무원사회 내에 1%도 안 되는, 모든 의사결정 과정을 독점하고 있는 소수 권력자들과 고위관료들≫이라면서.

≪공무원노조 반대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어떻고, 민족이 어떻고, 국민정서가 어떻고 하지만, 순전히 자기 개인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공무원노조가 생기게 되면 공직사회 내에서 힘 가진 사람들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회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사장이 노조 없으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노조가 건설되면 힘이 골고루 분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 검찰, 국세청, 행정부, 국회 등등 각 영역에서 자신들 뜻대로 좌지우지해 온 사람들이 견제를 받게 됩니다. 공무원노조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게 두려운 거예요.≫

직장협의회와 공무원노조의 차이

정부, 특히 공무원 인사.복무제도 등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기관인 행정자치부의 공무원노조에 대한 현재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시기상조, 여론수렴 필요, ≪노동조합≫ 명칭 사용 불가, 연합체 불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불인정, 가입범위 제한 등등. 사실상 현재의 공무원직장협의회 틀 속에서 잠자코 가만있으라는 입장과 다름없는 셈이다.

≪자꾸 시기상조라고 하는데, 그럼 언제쯤 하면 되는지 말이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 10년, 1백 년 후에 된다고 해도 다 ≪시기상조≫ 아니에요? 그건 속으론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에둘러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세상 천지에 개별 노동조합 모아서 연합체 만드는 것을 정부, 행자부가 나서서

해라 마라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노동자들이 알아서 하는 거죠. 참 웃기는 발상입니다. 법으로 너는 노동조합원 된다, 안 된다 규정하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장관도 자기가 노조 가입하겠다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공무원노조는 장기적으로 경찰공무원들도 조직할 겁니다. 노조가 자율적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이죠.≫

차 위원장은 가장 예민한 쟁점 중에 하나인 ≪단체행동권≫(파업권) 허용문제에 대해서는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노동3권이란 표현은 맞지 않아요. 어느 하나라도 없으면 절름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로 합쳐서 노동기본권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전공련은 이 노동기본권 전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든 공무원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정부와 국회에서 공무원들에게 파업권을 주리라고 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전 이렇게 대안을 제시합니다. 이를테면 국민들의 민원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에 대해선 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파업권 문제는 그런 식으로 제도적으로 보완하면 됩니다. 아예 단체행동권, 파업권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옳지 않아요. 물론 정부와 정치권은 또 국민들의 정서 운운하면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방해가 된다며 당연히 반대하겠지만요. ≪

그랬다. 사실 3월 24일 탄생할 예정인 공무원노조는 정부와 정치권의 ≪반대≫ 때문에 차 위원장의 표현처럼 ≪절름발이≫ 신세를 면키 어려운 현실이다. ≪사용자≫(중앙정부)측과 교섭도 할 수 없고, ≪합법적인≫ 파업을 진행할 수도 없어 ≪노동조합≫다운 모습으로 공무원노조가 운영되기까지는 더 많은 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현 시점에서의 공무원노조는 ≪이름만 바뀔 뿐 사실상 공직협과 다름없는 존재≫라고 지적하기도 한다. 그러나 차 위원장은 ≪절대 그렇지 않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교섭할 수 없다는 것이 걸림돌이 될 뿐 다른 문제는 상관없습니다. 물론 공무원노조라 하더라도 한동안 직장협의회의 색깔을 완전히 벗어던질 수는 없어요. 그러나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신이 ≪나는 노동자다, 나는 노동조합 소속이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은 직협 때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더욱더 열띤 투쟁을 전개할 수 있습니다. 저는 노조가 된다는 것은 투쟁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받는 것이라 생각해요. 이를테면 거리에서 집회를 열고, 경찰과 싸울 때 노조의 이름으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힘이 됩니다.≫

그렇다고 공무원노조가 다른 일반 노조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줄 것 같진 않다. 다른 게 아니라 앞서 차 위원장도 언급했지만, 전공련은 공직사회 민주화, 부패척결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노동조합≫ 하면 일반적으로 주로 자신들의 임금. 고용, 노동조건 개선문제 등을 놓고 투쟁을 벌이는 곳으로 인식되어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사회에는 이와 관련해 그다지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것일까?

≪우리가 공무원노조를 만들고자 하는 주목적은 공직사회 민주화, 신뢰받는 공무원상 정립입니다. 공직사회 내에 부정부패와 비리가 완전히 뿌리 뽑히고, 공무원이 이 사회에서 가장 깨끗한 집단으로 평가받을 때까지 우리는 수년이고 수십 년이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 문제에 주력할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IMF 이후 벌써 10만 명의 하위직 공무원들이 잘려나갔습니다. 하지만 전 해고 자체를 원천적으로 반대하지는 않아요. 우리는 필요한 부분은 더 채용하고, 부적격자는 내보내자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사회의 구조조정은 힘없는 사람들만 일방적으로 잘리는 모습으로 진행됐어요. 과장급 이상은 자기 뜻에 반해서 나간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곳에 다 자리 마련해 주고 잘랐죠. 하위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건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것이었어요. 일반 회사들도 구조조정하는데 공무원들은 안 잘린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에 행한 것인데, 그거 막는다고 힘없는 일반 기능직.고용직 공무원들만 별 근거 없이 잘린 것이죠. 목표로 한 몇 %를 채우기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그러한 불합리한 구조조정을 막자는 겁니다.≫

끝으로 기자는 또 한 가지 ≪민감한≫ 주제에 대해 물었다. 전국공무원노조가 ≪상급단체≫를 선택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였다. 이는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 입장에서도 큰 관심이 가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전공련측이 밝힌 대로라면 최소 7만여 명 이상의 새로운 노동조합원이 생겨나는 셈인데, 이 힘이 더해지면 양 노총 입장에선 조직역량 확대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이와 관련해 전공련은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 구성 등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한국노총보다는 민주노총쪽과 활발한 연대활동을 펼쳐왔다. 그래서 노동계 내에는 공무원노조가 결성되면 ≪민주노총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그러나 기자가 사전 취재를 해본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민주노총과 친화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들어가지는 못할 겁니다. 내부에 ≪반대≫ 정서가 있어요. 공무원들은 아직 ≪만국의 노동자는 하나다≫라는 소리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일 중에는 민간 노조가 하는 일을 막는 것도 있었어요. 이를테면 전교조 교사들 해직될 때도 공무원들이 가서 끌어내고 그랬죠. 물론 많이 생각이 달라졌지만, 일반 민간 노동자들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정서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 개인적으로 노동자는 하나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노총 따로 있고, 민주노총 따로 있고, 공무원노조 따로 있고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자본은 국경을 넘나들고 있잖아요. 저는 노동자들에게 민주노총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요. 세도 자꾸 불어나고 있잖아요. 공무원 노동자들도 언젠가는 생각이 변할 것입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데 차봉천 위원장은 ≪언론들이 공무원노조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지도 않고 계속 행자부 입장만 대변하면서 ≪딴지≫를 걸고 있다≫며 갑자기 이 나라 언론현실에 대해 격한 분노를 쏟아냈다. 사실 공무원노조는 주요 일간지 등에서 제대로 다뤄진 적이 거의 없다. ≪시기상조론≫만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그런데 차 위원장이 말하는 그 이유가 아주 흥미로웠다.

≪언론이 왜 안 써주냐? 제가 아까 말했죠. 힘있는 사람들은 공무원노조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한다구요. 우리나라 4대 일간지, 얼마나 힘있는 존재입니까. 그러니까 맨날 ≪철밥통≫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공무원노조가 생기면 그들도 견제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관료들이랑 짜고 놀던 거 이제는 못하게 됩니다.≫

공무원노조 건설이 언론개혁에도 도움이 된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전공련 산하 직장협의회 가운데는 ≪구시대적인 기관홍보를 위한 언론유착을 막아낸다≫는 취지 아래 계도지 예산폐지, 기자실 폐쇄운동을 펼쳐 상당한 성과를 거둔 곳이 있다.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공무원노조는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야 하지 않을까.

고동우 기자

2002/03 말 제189호

총학생회장단, 대학 내 공권력 투입 규탄

발전 노조 파업 적극 지지 의사도 밝혀

최근에 있은 학내 공권력 투입과 관련해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들이 이를 저지, 규탄함과 동시에 발전 노조 파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오늘 오전 11시께 느티나무 까페에서는 서울대 구정모 총학생회장, 연세대 윤수진 총학생회장, 고려대 김성광 문과대 학생회장 등이 모인 가운데 ≪공권력 학내 난입 규탄과 발전소 사유화 저지를 위한 전국대학 총학생회장단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은 특히 지난 23일 공무원 노조 출범 예정지였던 서울대와 공무원 노조 출범식이 진행된 고려대, 다음 날 24일에 있은 발전노조 2차 결집 장소인 연세대에 공권력을 투입하는 등 최근 사건들을 설명하며, 이에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대학은 언제나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하지만 이토록 ≪신성한 대학≫에 공권력의 투입이 계속 자행되는 것을 묵과하면 앞으로 있을 모든 투쟁도 짓밟힐 것이다≫라고 비난하며, 지난 24일 연세대에서 연행된 학생들의 석방도 요구했다.

덧붙여 총학생회장단은 오늘로 30일로 접어든 발전노조 파업에 대해 ≪ 발전 노조 파업은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맞선 정치투쟁으로 청년 학생들이 함께 해야 하는 투쟁이다. 또 노동 3권을 보장 받기 위한 공무원 노조의 출범에 대한 우리들의 연대도 당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은 발전노조의 파업에 대해서는 ≪발전노조의 공기업 사유화 저지 투쟁을 250만 대학인의 이름으로 지지합니다≫라는 성명서를 통해 공식 입장을 전했다. 특히 ≪발전소 매각 철회 파업은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국가 기간 산업의 미래를 위해 해고와 징계 공권력의 위협과의 싸움이다≫며, 연대 투쟁에 동참할 뜻을 강력히 내비쳤다.



김장효숙 기자
2002/03/26 유뉴스

교육 투쟁, 본격적인 대정부 투쟁으로

교육학생연대, ≪3.29 총궐기≫ 등 대규모 집회 가져

전국 50여개 대학들이 학교측과 등록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오늘(26일)부터는 대정부 투쟁에 돌입한다. 특히 이번 투쟁은 올해 국.공립대 등록금이 큰 폭으로 인상된 것에 항의하고, 이를 계기로 교육 투쟁이 학내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여론화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늘 오전 교육학생연대는 ≪등록금 인상 저지.교육 재정 확충.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를 위한 대정부 농성단 기자회견≫에서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대학 구조조정 반대 △WTO 투자 협정 반대.교육 개방 저지 △등록금 인상 저지.국가교육 재정 확충 △국립대 회계 특별법 저지.사립 학교법 개정 등을 5대 요구안으로 내걸고, 이후 투쟁 일정을 발표했다.

이날은 기자 회견문을 통해 ≪신자유주의 교육 시장화 정책은 교육의 불평등을 조장하고 교육 받을 권리를 박탈한다. 또 교육에 대한 부담을 민중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우리는 교육 시장화 정책 전면 철회와 교육의 공공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 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 ≪이같은 교육의 공공성을 쟁취하기 위해 전국 대학생들은 오늘 무기한 대정부 농성 투쟁에 돌입, 이후 힘차게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는 의지를 전했다.

이어 서울대 구정모 총학생회장은 ≪교육은 국가에서 책임져야 할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민에게 전가하고, 사학 재단들은 재정적 지원은커녕, 자산 불리기에만 급급한 실정이다. 또 교사, 교수, 교직원을 비롯해 시민사회단체까지 현 교육 정책에 대한 불신임이 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이런 상황에서 전국적 등록금 인상 철회 투쟁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오는 29일 이상주 교육부총리와의 면담을 요청하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입장과 의견을 듣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학생연대는 오늘 농성 투쟁을 시작으로, 오는 27일에는 교육부를 상대로 사이버 시위를 벌이고, 29일은 현재 진행중인 선언.서명 결과를 전달 할 예정이다.

특히 29일에는 전국 1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모여 ≪등록금 인상 저지.교육재정 확충. 교육 시장화 저지를 위한 3.29 전국 대학생 총궐기≫를 열고, 30일 ≪2002년 1차 민중대회≫ 등을 가져, 대중적 투쟁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장효숙 기자
2002/03/26 유뉴스

권영길대표가 이야기하는

민주노동당 정책노선과 정치진출전략

권영길의 길과 노무현의 길은 다르다

민노당 안팎에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노무현 돌풍에 대해 권대표는 ≪권영길의 길과 노무현의 길은 다르다≫는 말로 김대중 정부의 실정과 연장선에 있는 노무현 후보의 상대적 개혁노선이 민노당과 다름을 지적했다. 권대표는 ≪이인제 후보가 ≪노무현씨는 민주노동당 후보≫라고 발언한 것에 노무현 씨도 답변을 했어야 했다≫며 ≪노무현 후보가 민주당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말한 것은 곧 김대중 정부의 IMF실정, 일방적 금융개방, 공기업 사유화 등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주장했다. 권대표는 ≪노무현 후보가 집권해도 김대중 정부와 같은 명확한 한계가 드러날 것≫이라며 ≪그 때가 되면 사이비 진보와 진짜 진보가 구분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권대표는 ≪노무현씨가 집권해야 민노당 집권도 앞당길 것으로 본다≫며 ≪노무현씨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민노당으로서는 이회창 총재 집권저지라는 측면에는 노무현 후보가 부합할 뿐 아니라, 상대적으로 한나라당 후보보다 노무현 후보의 집권이 1인2표제를 통한 소수정당의 원내진입을 가능케 하리라고 전망한다. 또한 민노당은 민주당의 계보를 잇는 노무현 후보의 한계가 모두 드러날 때 진보정치세력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장기적인 전략을 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제개혁, 군축정책으로 복지 예산 늘일 것

권대표는 ≪노동자와 사회적 약자의 박탈은 우리사회가 80대 20이 아니라 95대5 사회임을 보여준다≫고 표현하며 조세정책과 군비축소를 통해 노동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사회보장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대표는 이자제한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 제정운동과 함께 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운동, 공공임대주택 100만 확대를 준비하고 있고 밝히고 군병력 10만 감축, 군복무기간을 18개월로 감축, 재원을 확보해 이를 사회보장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정책을 제안했다.

사회당과 결국 통합할 것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사회당과의 통합 문제에 관해서도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보수 정당의 야합은 밀실에서 이뤄지고 속도도 빠르지만 진보정당은 원칙적이고 절차적인 이념 및 강령.정책 정리가 필요해 속도가 붙지 않을 뿐이라는 것. 사회당의 반조선노동당 문제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논의 중이며 양당 상임 집행위원회가 연석회의를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안티조선 운동의 핵심



또한 권대표는 오래전부터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등 조선일보 자매지의 인터뷰를 거부해왔다며 ≪한사람만 부각되고 권영길이 안티조선 운동의 핵심이라고는 이야기되지 않더라≫며 웃었다. 권대표는 ≪언론사 세무조사는 정당하며 오히려 한나라당 비난여론에 밀려 정부가 세무조사를 중단한 것은 옳지 못했다≫고 비판하고 ≪언론노조 출신으로 언론의 자율적 개혁에 기대를 걸지 않고 있으며 정간법 개정과 신문고시 강화 등 운동을 통해 가능하다≫고 언론관을 밝혔다.

시민운동과 진보정당, 전략적 실천적 연대할 것

시민.노동단체를 포함해도 진보진영의 영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시민운동이 오히려 제도정치 안에서 개혁운동을 추진하다보니 진보정치 활동폭을 축소시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지만 시민운동의 낙선운동은 의미있었다≫고 평가했다.

녹색연합 김타균 정책실장은 ≪민노당이 새만금사업 반대를 선언했음에도 민주노총의 농업기반공사 등 단위노조는 다른 입장을 표명했다≫고 지적하자 ≪분명 충돌하는 지점은 있지만 결국 환경문제도 조합원.국민이 피해를 입게 된다는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환경단체 뿐 아니라 시민단체와의 조율과 연대도 전략적 차원이 아닌 실천적 차원에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선거 후보 거의 확정됐다. 울산 주력, 서울 등 의미있는 선거 이끌 것

권대표는 또한 ≪울산을 비롯한 서울.인천.경기.광주.울산.부산 등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기초.광역단체장 출마 후보자를 이미 선정했다≫고 밝히고 ≪울산시장의 경우 민주노총과 민노당이 공동으로 민노당 김창연 울산지부장을 후보로 확정했다≫며 울산에서 총력을 기울일 것을 밝혔다. 또한 한 지역에서 진보진영의 후보와 자치후보들이 겹칠 경우 예비경선을 치러 진보진영 후보를 반드시 단일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미진 기자
시민의 신문

선군정치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18일~19일

요즘 지구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정치정세라든가 예측할 수 없었던 위대한 일들을 보면서 21세기의 정치방식은 선군정치밖에 없다는 세인들의 목소리가 정말 정당하다는 생각이 날이 갈수록 확고해 지는데요. 그래서 요즘 선군정치에 대해 자상한 정보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선군정치≫ 오일씨 모시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자 : 안녕하세요.
오 일 : 안녕하세요.
사회자 : 아시다시피 오늘 부시의 망언으로 인해서 한반도에는 전쟁의 검은 불구름이 고조됐잖아요. 이러한 상황은 우리 민중은 물론이고 지구촌 인류의 커다란 분노와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북은 미국의 대북강경에 초강경으로 맞서며 강성대국을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 있잖아요. 이건 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에 대해서 얘기 나눴으면 해서 이렇게 모셨거든요. 먼저 선군정치의 본질이랄까요, 그 의미에 대해서 얘기해주셨으면 하는데요.
오 일 : 아시다시피 오늘 선행 노동자계급의 이론에서는 선군이라는 말자체가 없었습니다. 선군정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처음으로 내놓으신 독창적인 정치방식이죠. 그분께서는 **김일성**주석님의 선군사상, 선군영도업적 그리고 그 경험에 기초해서 주석님의 선군사상을 처음으로 현실적 조건에 걸맞게 계승발전시키셨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는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어 조국을 보위하며 인민군대를 핵심으로, 본보기로 해서 변혁운동의 주체를 튼튼히 꾸리고 인민군대를 변혁운동의 기둥으로 내세워 전반적 사회주의건설을 힘차게 다그쳐나가는 정치방식입니다. 이건 총대중시, 군중시사상을 빛나게 구현한 **김정일**장군님의 독창적인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자 : 최근 수년간 제국주의의 대북고립압살책동과 연이은 자연재해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힘차게 전진해온 이북의 현실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도, 변혁운동의 승리적 전진도 선군정치에 의해서만 확고히 담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오 일 : 그렇죠. 선군정치는 변혁운동을 자체의 힘으로 자기 나라의 구체적 실정에 걸맞게 벌여나갈 수 있게 하는 독창적인 정치방식이예요. 그 어떤 엄혹한 정세와 시련속에서도 변혁운동의 승리를 이룩해 나갈 수 있게 하는 만능의 보검입니다. 오늘 선군정치는 장군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되고 있는데요.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선군정치는 이 행성위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거머쥐고 나가야 할 전략적 노선이고 정치방식이라고 천명하셨습니다.
사회자 : 그러면 얘기를 좀더 진전시켜서 왜 **김정일**장군님께서 일찍이 역사에 없었던 선군정치를 펼치지 않으면 안되게 되셨느냐 하는데 관해서 얘기됐으면 합니다.
오 일 : 아주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고 보는데요.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사회주의의 기본정치방식으로 설정하시고 펼치신데는 여러가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는 그 모든 문제를 다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몇가지 문제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선 1994년 7월 **김일성**주석님께서 서거하신후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연합세력은 지구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고 있는 민중중심의 이북식 사회주의를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고립압살시키려고 무진 애를 썼습니다. 거기에다 몇해째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해서 사실상 이북의 형편은 어려웠던 거죠. 바로 이러한 시기 그분께서는 뭐니뭐니해도 인민군대를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민중중심의 주체의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할

수 없다는 걸 절감하셨기에 군대이자 당, 국가이며 민중이라는 독창적인 군중시정치철학을 천명하시고 이를 구현한 선군정치를 펼치심으로써 인민군대를 수령결사옹위정신이 꽉 차넘치는 당과 수령의 군대, 그 어떤 강적도 일격에 때려부술 수 있는 불패의 강군으로 키우셨고 이북을 난공불락의 철의 요새로 만드셨습니다.

사회자 :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신 그때의 역사적 상황을 보면 이북 민중들의 생활에서나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그렇고 여러가지 애로가 많았다고 생각해요.

오 일 : 그 당시를 보면 미국을 위시한 제국주의자들의 반북고립압살책동과 연이어 계속되는 자연재해로 해서 이북 민중은 식량난을 겪지 않으면 안됐습니다. 풀죽과 나무뿌리로 생명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되는 그런 상황이였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였지만 장군님께서는 사탕이 없이는 살 수 있어도 총알이 없이는 다시 망국노의 운명을 면치 못한다는 걸 심장으로 새기셨어요. 그래서 1995년 정월 초하루 금수산기념궁전에 영생의 모습으로 계시는 주석님을 찾아뵙고 뒤를 이어 다박솔초소를 찾으셨죠. 다시 말씀드려서 다박솔초소에 선군장정의 첫 자국을 새기셨습니다. 사실 장군님께서 다박솔초소를 찾으셨던 그때처럼 이북이 엄혹한 환경에 처한 시기는 역사상 처음이였어요. 장군님께서는 이때 경제냐 국방이냐, 다시 말해서 민중생활향상이냐 아니면 군력강화냐 하는 결단을 내리셔야할 역사의 그날 총대로 주석님의 영생을 지켜드리시기 위해, 총대로 조국과 민족, 사회주의운동을 수호하시기 위해 선군장정의 길에 오르셨던 겁니다.

사회자 : 사실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가 아니였더라면 민중중심의 이북식 주체의 사회주의나라도 없고 민족의 운명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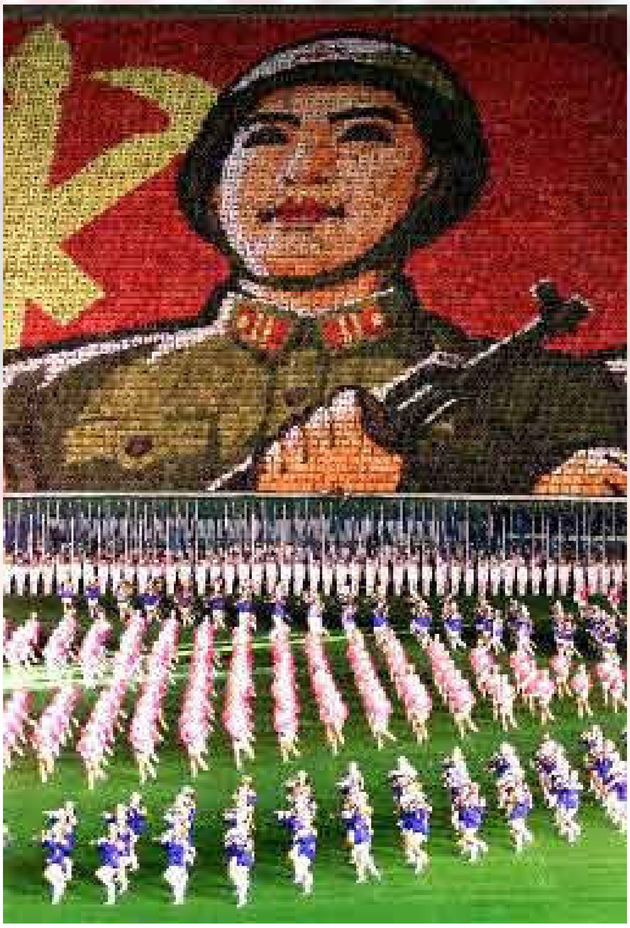
오 일 : 말이 쉽지 어려운 상황에서 **김정일**장군님께서 단신으로 미국과 당당히 맞서서 발걸음을 하고 그 누구도 *********** 강성대국건설을 밀고 나간다는게 결코 헐하고 쉬운게 아닙니다. 장군님께서는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 선군정치라는 사회주의 정치방식으로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를 지켜오셨습니다.

사회자 : 그런데 장군님께서 독창적으로 펼치시는 선군정치는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남아 있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책동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거머쥐고 나가야 할 전략노선이라는게 그분의 철의 신념과 의지가 아니냐 하는 생각입니다.

오 일 : 옳습니다. 아시다시피 미국의 부시행정부는 있지도 않은 북의 미사일위협에 대해 떠들면서 이란, 이라크와 함께 이북을 이른바 ≪악의 축≫으로 규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무얼 말해주느냐 하면 미국이 저들의 침략과 전쟁책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겁니다. 부시가 올해를 ≪전쟁의 해≫로 선포한 것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지구상에 제국주의가 있는 한 침략책동이 계속된다는 **김정일**장군님의 사상이 천만번 정당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거죠. 만약 장군님께서 이북에서 선군정치를 펴시지 않았다면 벌써 열백번도 제국주의자들에게 먹히우고 말았을 겁니다. 이건 우리 이남 민중 모두가 폐부로 절감한 것입니다.

사회자 : 부시의 방한때 경향 각계 민중 속에서 부시방한반대투쟁이 활성화되었잖아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시방한과 관련해서 각계 민중의 투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고 있는데 이건 **김정일**장군님의 선군정치와 민중중심의 이북식 사회주의를 옹호고수하는데만 큰 의의를 가진게 아니죠. 우리 민족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그런 중차대한 문제라고 봐야하지 않을까요.

오 일 : 그렇죠. 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펼치시어 이북을 강위력한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지 않았더라면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의 불길이 타올랐을 것입니다. 도무지 민족의 운명 그 자체에 대해서 생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이 땅 민중도 이북의 대미초강경자세를 전면 지지하면서 부시방한을 반대하는 그



런 투쟁을 가열차게 벌였던 거죠. 모든 현실은 **김정일**장군님께서 펼치시는 선군혁명노선, 선군정치야말로 강위력한 정치방식이라는 걸 절감할 수 있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탁월한 정치실력가이신 **김정일**장군님을 민족의 수위에 높이 모신 민족적 자긍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반미자주화투쟁의 불길을 더욱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 그렇죠. 지금까지 얘기를 정리해보면 정말 우리 민족이 21세기의 태양으로 높이 모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선군정치를 펴시는 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도 성취된다는게 각계 애국민중의 한결같은 믿음이죠. 그러므로 경향 각지의 각계 애국민중들은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종식시키고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대용단에 의해서 세상에 태어난 6.15공동선언을 기어이 이행하기 위해 분기해 나서야 할거에요. 지금까지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오 일 : 감사합니다.

사회자 : 선군정치의 첫 자욱을 짚으신 곳으로 유명한 다박솔초소. 이곳은 북녘의 이름없는 한 **로써 한겨울에도 푸른 빛을 잃지 않는 다박솔 이곳은 병사들의 숙소인데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다박솔 등대라고 거듭 불러주신 때로부터 다박솔초소로 명명되며 선군장정의 출발진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1995년 1월 1일이면 어버이주석님을 잃고 온 북녘이 피눈물을 거두지 못하고 있을때죠. 북의 멸망은 시간문제라며 제국주의 반동세력이 쾌거를 부르고 있을때 자연재해와 경제난관으로 이렇게 어렵던 때 경제냐 국방이냐의 갈림길에서 성스러운 결단을 내리셔서 찾으신 다박솔초소인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선군정치가 오늘은 인류의 각광속에 21세기의 정치방식으로 칭송되고 있고 한반도의 평화를 수호하며 통일강성대국건설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생존권투쟁과 반미반전투쟁

구국의 소리, 주체91년 3월 25일

반세기이상 미국때문에 민족분열의 고통속에서 민족자주권과 존엄이 짓밟히고 뼈와 살점이 뜯기우며 수난민으로 살아온 우리 민중이죠. 그 저주로운 미국이 우리 민족의 운명을 공멸에로 몰아갈 핵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는 오늘날, 우리 민중이 반미반전투쟁에 한사람같이 분기해나서는 건 더욱더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전라도 광주에서 살고 계시는 노동운동가 김철남씨의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생존권투쟁과 반미반전투쟁≫.

봄철 임투시기를 맞아 여러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생존권쟁취를 위한 투쟁을 과감히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이 먹고 살아가기 위한 초보적인 생존권보장과 민주주의적 자유를 요구해 투쟁하는 것은 사회적 인간으로써의 삶의 권리를 위한 것으로 매우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자대중의 생존권쟁취투쟁이 단순한 해고자복직이나 임금을 얼마간 더 올리는 식의 투쟁에만 머물러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노동자들의 이 투쟁이 반미반전투쟁과 결부되어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건 무엇보다도 노동자대중이 강요당하고 있는 생존의 위협이 이 땅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강점과 경제적 침탈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소산이기 때문이다.

금융위기를 몰아온 미국은 그를 빌미로 IMF의 신탁통치를 끌어들였고 신자유주의세계화정책을 강요하고 있다. 그로인해 기업들의 무리도산, 해외매각, 민영화, 요금의 폭등이 빚어져 민중은 도탄의 신음속에 빠지고 사회적 혼란은 증대되고 있다.

경제파국으로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우리 노동자들이다.

힘든 노동 속에서 경제적 회생을 위해 누구보다도 가장 크고 많은 일을 해왔으나 응분의 대우는커녕 희생만 강요당하고 있다. 정리해고, 고용불안 등 그 어려움의 한계는 이미 도를 넘어서고 있다.

결국 미국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더욱 무참히 유린당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노동대중의 생존권을 파국에로 몰아넣은 미국의 경제침탈책동은 날이 갈수록 더욱 우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형편에서 노동대중이 지금 벌이고 있는 생존권투쟁에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다고해도 생존권위협의 장본인인 미국의 경제침탈책동을 분쇄하지 않는 한 오늘날의 처지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 없다.

때문에 생존권투쟁과 반미투쟁을 결부시켜 진행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로 나서는 것이다.

다른 하나의 이유는 미국이 이 땅에 전쟁의 먹구름을 몰아오고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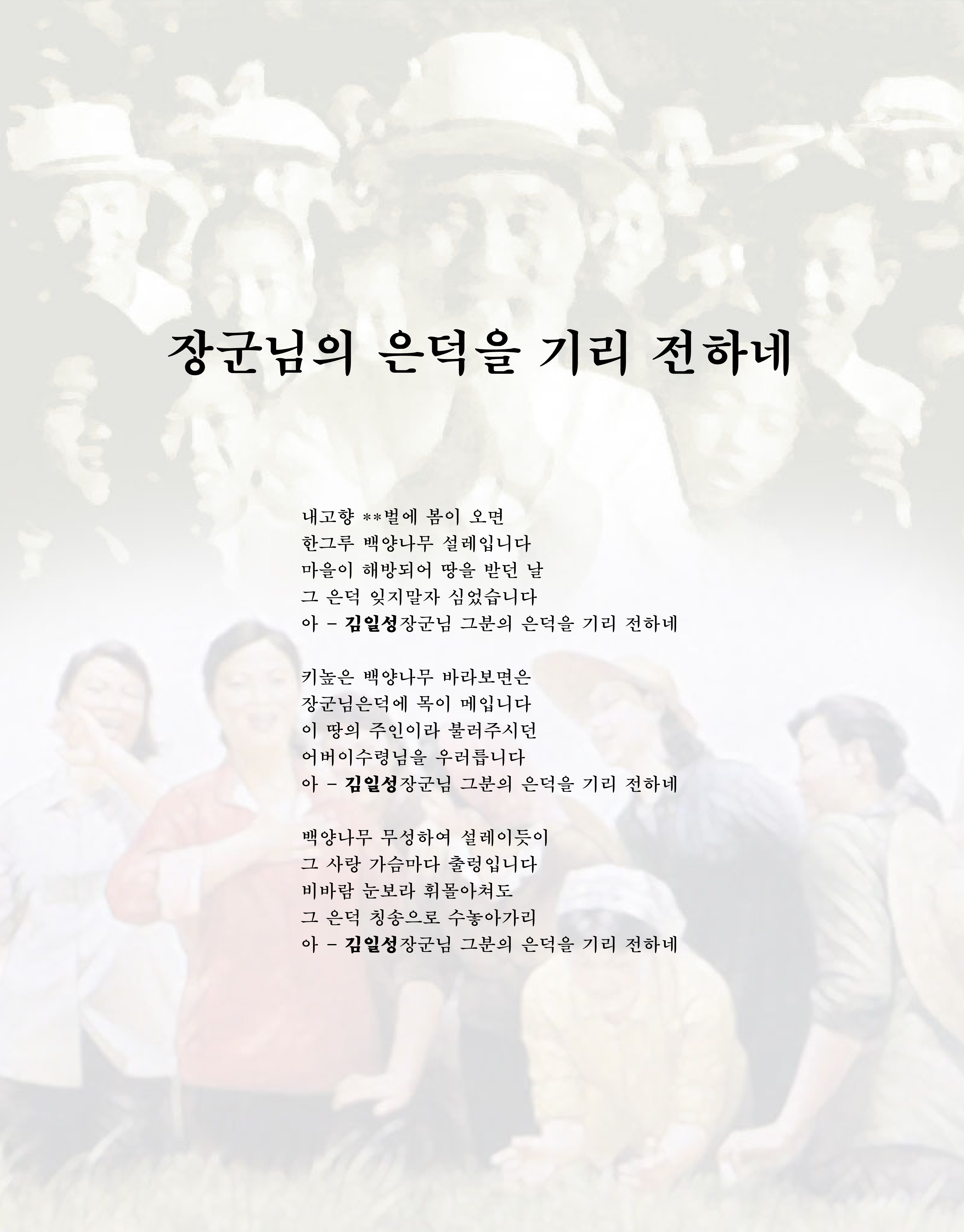
대결과 냉전의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이땅에 6.15공동선언의 발표로 화해와 평화, 통일의 분위기가 마련되게 됐다. 그러나 부시행정부의 등장으로 6.15공동선언이행에는 제동이 걸리고 이 땅에는 냉전의 기류가 다시금 밀려들게 됐다. 미국은 세계패권을 거머쥐려는 야심밑에 무력증강과 전쟁책동에 광분하고 있다. 심지어 이북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을 겨냥한 핵무기사용계획까지 작성하고 있다. 미국은 저들의 이같은 세계지배전략에 한국을 끌어들이고 북의 위협설을 의도적을 조작하면서 10조원에 달하는 ≪F15K≫전투기를 이 땅에서 강매하려하고 있다. 10조원이면 40여만명의 실업자, 노숙자들에게 미국이 아니라 1인당 연 100만원씩 6년간 취업보조금을 지급할 수가 있다. 이 막대한 자금이 동족멸살을 위한 전쟁비용으로 탕진한 것이다.

지금 세계적인 규탄을 받고 있는 부시의 ≪악의 축≫발언이라든가, 북의 위협설, 대량파괴무기문제를 걸고 나선 건 전쟁구실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부시의 서울행각은 전쟁준비를 현지에서 확인하고 실전에로 넘어가기 위한 전쟁행각이였다. 한반도에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긴장한 정세가 조성돼게 되었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면 가장 큰 피해자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민족뿐이다. 다시 말해 우리 노동대중, 아니 이 땅에 사는 모든 민중이 피해자로 되는 것이다. 저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의 무고한 사람들을 죽인 미군 포탄이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이 사는 안방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핵전쟁의 마당이 될 이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백한 사실이다. 민족의 공멸을 가져올 전쟁의 먹구름을 미국이 몰아오고 있는 것이다. 결국 반미반전은 오늘 노동대중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앞서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생사운명과 직결된 초미의 문제로 되는 것이다.

이제 더이상 우리 한반도를 위협하고 인명을 살상하려는 미국의 책동을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전체 노동자대중은 자신뿐 아니라 후대를 위해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서도 지금 벌이고 있는 생존권투쟁을 반미반전투쟁과 밀접히 결부시켜 과감히 전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민중에게 온갖 불행과 고통을 덮씌우는 진짜 악의 근원인 미제를 반대하고 전쟁의 먹구름을 걷어내는데 우리 노동자들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우리 민중이 오늘의 처지에서 벗어나자면 생존권투쟁과 반미반전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여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때라야 자신들의 생존권을 실현할 수가 있고 6.15공동선언을 철저히 이행하여 통일의 새 세상을 마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장군님의 은덕을 기리 전하네

내고향 **벌에 봄이 오면
한그루 백양나무 설레입니다
마을이 해방되어 땅을 받던 날
그 은덕 잊지말자 심었습니다
아 - **김일성**장군님 그분의 은덕을 기리 전하네

키높은 백양나무 바라보면은
장군님은덕에 목이 메입니다
이 땅의 주인이라 불러주시던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릅니다
아 - **김일성**장군님 그분의 은덕을 기리 전하네

백양나무 무성하여 설레이듯이
그 사랑 가슴마다 출렁입니다
비바람 눈보라 휘몰아쳐도
그 은덕 칭송으로 수놓아가리
아 - **김일성**장군님 그분의 은덕을 기리 전하네

주체91 3월 18일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민속명절인 사육제(봄명절)에 즈음해 이북주재 러시아연방 특명전권대사의 초청에 따라 3월 17일 그가 마련한 명절모임에 초대되셨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탄생일에 즈음해 그분께 이남의 청년학생들이 축하문을 보내왔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이남의 열혈청년들의 명의로 된 축하문에서 이들은 인류운명개척의 향도자이시며 세계자주화위업의 걸출한 영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탄생일을 맞이해 장군님께 뜨거운 흠모와 경모의 정을 담아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축하문은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비범한 예지로 주체사상을 발전풍부화시키시어 위대한 **김일성**주의로 정식화하시고 인류가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데 대해 지적했습니다.
축하문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진정 우리 민족과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시고 만민이 우러르고 받들며 따르는 21세기 태양이시라고 강조했습니다.
축하문은 사랑과 믿음, 흠모와 영광의 화신이시며 행복과 미래의 운명이신 위대한 장군님은 우리 민족과 온 세계 인류의 태양이시며 장군님의 안녕과 건강하심은 이남 민중과 열혈 청년들의 한결같은 소망이라면서 **김정일**장군님께서 부디 언제나 건강하시고 안녕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동당과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는 15일 국방부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차세대전투기도입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남북공동선언광주전남실천연대는 13일 악의 제국 미국은 한반도전쟁책동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3.18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 20주년에 즈음해 대학생들이 반미투쟁에 더욱 과감히 나설 것을 다짐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3학년 김모군은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식민지통치를 끝장내고 사회의 민주화와 통일을 위한 정당하고 의로운 투쟁이였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이 있은 때로부터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미국의 식민지통치에 종지부를 찍지 못했다. 미국은 우리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오히려 한국에 대한 식민지지배를 더욱 강화할뿐만 아니라 핵전쟁을 일으키려고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부시행정부의 엄중한 핵전쟁도발책동을 그대로 방치해둔다면 우리 민족은 통일은커녕 핵전쟁의 희생물이 되고 말 것이다. 핵전쟁의 먹구름이 시시각각 밀려오는 현실은 우리 청년학생들이 반미투쟁에 더욱 용맹스럽게 일어나 미국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학생들은 부산미문화원에 불을 질렀던 선배들의 투쟁정신을 본받아 불구대천의 원수 미국놈들에게 철퇴를 안기고 축출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과감히 벌여나갈 것이다.≫
또 고려대학교 4학년 이모군은 현실은 당시 선배들이 어째서 미문화원에 불을 질렀는지를 가르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미국놈들은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을 이루려는 것을 저지시키기 위해 남북대결을 부추기다못해 이제는 핵전쟁을 도발하려고 악랄하게 책동하고 있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50여년간 감행한 온갖 만행을 저질러 온 것을 생각하면 치미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다. 더이상 용납해서는 안된다. 전국민이 들고일어나 놈들을 모조리 박살내야한다. 피의 댓가를 받아내야 한다. 우리 청년학생들이 이 투쟁에 앞장서겠다.≫
한양대학교 2학년 최모군은 반미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다짐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군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한 통일을 이룰 수 없다. 남북대화가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도 다 미국의 방해책동때문이다. 반세기가 넘도록 미국이 이 땅을 강점하고 있는 것은 정말 국민의 수치이다. 더이상 양키들의 군화발밑에서 갖은 수모를 당하며 살 수 없다. 지난번 부시방한반대투쟁에서 보여준 반미기운을 더욱 높여 전국민이 미국축출투쟁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

지난해 한국에서 하루평균 700여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매일 22명이 숨지고 1050여명이 다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중앙위원회는 미제침략군의 주도하에 이남에서 대규모적인 합동군사훈련이 강행되는 것과 관련해 16일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은 최근 한나라당 총재 이회창이 일본을 행각하면서 이북을 중상모독하는 악담을 늘어놓은 것과 관련해 16일 이를 규탄하는 서기국 보도 제816호를 발표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종합연습과정을 참관한 중국 손님들이 그 황홀경에 감탄을 금치 못해하면서 격동된 심정을 터놓았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불후의 고전적 저작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를 나이지리아의 엔으브드출판사에서 11일 단행본으로 출판했습니다.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연락위원회 집행위원회 회의가 지난 10일 프랑스 파리에서 진행됐습니다.

인도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이 9일 부시의 망발을 규탄해 성명을 규탄했습니다.

주체91 3월 19일

3월 15일 경기도 화성군에 사는 김갑술 농민이 **김일성**주석님을 열렬히 경모하였습니다.
≪50년 여름 고향에서 옥토를 내땅으로 분여받던 때를 잊을 수 없다. 그때 이남땅을 해방시켜주신 **김일성**주석님께서 토지개혁법령을 공포하시어 제 땅을 가지고 싶어하던 가난한 농민들의 숙원을 풀어주셨다. 그 하늘같은 은덕이 하도 고마워 동네사람들은 공덕비 대신 백양나무들을 심어 그 은공 기리자고 했었다. 이번 따라 그때 일이 새삼 더 그리워진다. **김일성**주석님의 은공은 죽어도 잊지 못할 것이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지난 11일부터 5일간에 걸쳐 미국대사관앞에서 시위투쟁을 전개한 것과 관련해 16일 보고를 발표했습니다.

통일연대는 14일 ≪대북강경발언 한반도긴장유발 한나라당 총재는 각성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는 16일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앞에서 집회를 열고 공무원노동조합출범을 공식선언했습니다.

자민련은 한나라당 부총재단이 이원종 충북지사를 방문해 공개적으로 탈당을 권유한 것은 정당사에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거듭 주장하면서 이에 사과하지 않을 경우 이회창의 정치권퇴출을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의 동상에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 대표자회 대표들이 18일 꽃바구니를 진정했다고 평양방송이 전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이북 외무성대변인은 미제침략군의 주도하에 이남에서 대규

모적인 합동군사훈련이 진행되게 되는 것과 관련해 18일 이를 규탄하는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부산≪미국문화원≫방화투쟁 20돌기념 평양시보고회가 18일 청년중앙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주체사상과 **김정일**동지의 대외정책≫이라는 제목의 연합토론회가 러시아 주체사상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치, 경제, 문화협회, 러시아 현세계에서의 인간문제연구학자연맹의 공동주최로 11일 모스크바에서 진행됐습니다.

베넨사회주의당이 6.15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며 주한미군을 즉각 철수시킬 것을 요구하는 국제적 서명운동에 참가했습니다.

주체91 3월 20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소속 노동자 김영실씨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정치를 펴시는 이북사회를 여성들의 천국으로 높이 동경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7일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전국여성노조 등 여성노동단체들의 주최로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여성노동자들의 권리보장을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하고 돌아오던 중 동료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이땅에 살고 있는 우리 여성노동자들의 처지는 비참하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이 땅은 정치, 경제, 문화, 도덕생활의 모든 면에서 여성천시와 패륜패덕이 판을 치는 지옥과 같다. 그렇지만 이북의 여성들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의 인덕정치하에서 복된 삶을 누리고 있다. 이북 여성들은 해고와 비정규직, 성차별이라는 말조차 모르고 사회와 가정의 꽃으로 사랑과 존경을 받으며 나라의 한쪽 수레바퀴를 담당해 밀고 나가고 있다. 그리고 무료교육, 무료진료제의 혜택속에 육아걱정, 치료걱정을 모르고 보람찬 생활을 누려가고 있다고 한다. 정말 이북 여성들이 부럽기만 하다. 우리 이남 여성들도 이북과 같은 세상에서 인간다운 참된 생활을 누리자면 하루빨리 조국을 통일해서 경애하는 장군님의 정치를 받아야 한다.≫

미상공회의소점거농성 관련 구속자석방대책위원회,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공동주최로 16일 서울 탑공공원에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을 반대하며 구속자석방을 요구하는 집회가 진행됐습니다.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전농, 국제연대정보정책센터, 민중의료연합 등 민주사회단체들과 전국학생연대회의, 전국학생대표자협의회, 학생행동연대가 망라되어 있는 ≪투자협정 세계무역기구반대 국민행동≫이 15일 서울에서 투자협정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공동집회를 가졌습니다.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대학가에서 미국상품불매운동이 전개되는 등 반미감정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통일연대는 13일 ≪핵태세검토≫보고서를 작성한 미국은 모든 패권적 전쟁야욕을 포기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냈습니다.

자민련이 한나라당의 이원종 충북지사 탈당권유사건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비주류 중진인 김덕룡, 홍사덕의원은 이회창이 지시한 당내분수습방안을 거부했습니다.

미국이 3기의 이지스시스템을 한국에 판매할 계획이라고 미국방부가 19일 밝혔습니다.

주체91 3월 21일

최근 하나컴퓨터에서 제작한 편집한 다매체편집물 ≪임오년의 태양찬가≫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본 한 주민이 익명이 보장된 인터넷 게시판에 **김정일**장군님을 칭송하는 글을 게재했습니다.

이철수라고 밝힌 그는 ≪임오년의 태양찬가≫는 **김정일**장군님의 위인상을 가슴에 깊이 새겨주고 있다면서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김정일**장군님은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빛내이시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 민족의 위대한 태양이시다. **김정일**장군님이 계셔 조국의 통일도 민족의 무궁번영도 기약되어 있다. 언제나 **김정일**장군님만을 굳게 믿고 우러러 따르자.≫

범청학련 제12차 공동의장단회의가 남과 북, 해외에서 모사로 진행됐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8일 일본총리의 한국행각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와 발전회사가 파업을 계속하고 있는 발전노조에 대해 최후통첩을 발표해 노조원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낙연대변인은 19일 한나라당 이회창총재의 기자회견은 정당민주화의 기대에 크게 미흡하다며 총재직에 대한 집착은 대단히 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난했습니다.

이대변인은 국민이 듣고자 하는 것은 말만하는 사과가 아니라 현금 6억원과 땅 7200평을 가진 사람이 어떤 이유로 남의 집에 얹혀 사는지에 대한 해명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의 당내분수습안에 대한 비주류측의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당내 소장파모임인 미래연대는 이총재의 수습방안이 정치개혁을 바라는 국민여망에 대단히 미흡하다고 비난했습니다.

한나라당 이회창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가고 있습니다.

통일운동단체의 한 인사는 민족앞에 대죄를 저지른 이회창은 더이상 정치에 나서서는 안된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과 일본을 찾아가서 한 행위는 용서받지 못할 반통일, 반민족적 범행이였다. 지금 각계에서 이회창을 악의 뿌리라고 비난하며 물러날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6.15공동선언이행을 방해하고 남북대결을 고취하는 자는 정치권에 나설 자격이 없다. 이회창은 국민의 일치한 요구대로 하루속히 정계에서 퇴진해야한다.≫

서울 중구에 사는 한 변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회창은 친일친미분자, 민족반역자일뿐 아니라 정치자금횡령과 부동산투기, 세금포탈 등의 비리를 저지른 범죄자이다. 이회창은 마땅히 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한다. 이회창은 대법관시절 부산미문화원방화사건관련자들에게 사형선고와 장기징역 등을 내린 교형리, 살인마이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해 싸운 애국적인 청년학생들을 앞장에서 탄압했던 자가 대통령감투를 써보겠다고 나선 것은 국민에 대한 악랄한 도전이고 우롱이다. 이회창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군사독재보다 더욱 악독한 법관독재가 실시될 것이다. 만약 이회창이 자신의 범죄행위를 밝히고 물러나지 않으면 체포구속하고 국민의 심판대에 내세워야한다.≫

이회창을 반대하는 기운은 한나라당내에서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원이 이회창이 제왕적 총재로 군림하는데 반발해 탈당한데 이어 김덕룡, 홍사덕의원 등 비주류가 탈당움직임을 보이면서 이회창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어 한나라당은 심각한 분열의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주류의 한 중진의원은 독단과 전횡으로 한나라당을 사당화하고 당을 망쳐먹은 이회창이 권력을 장악하면 무서운 독재통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비난하며 이회창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치어 숨지게 한 주한미군에 대해서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하자 시민단체가 형량이 가

볍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주체91 3월 22일

대구에 사는 재야인사 이정훈씨가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의 정치력을 높이 격찬했습니다.

그는 지난 19일 동료들과 사업차 중국 방문중에 중국 고찰단이 방북촬영한 ≪아리랑≫공연 광고장면을 본 소감에 대해 얘기를 나누면서 이북의 ≪아리랑≫공연을 볼 기회를 놓치면 일생을 두고 후회한다는 말이 우연한 것이 아니였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는 말이 있듯이 직접 보지 않고서는 이북의 ≪아리랑≫공연에 대해 감히 말할 수 없다. 레이자조명과 환상을 배합한 배경판의 신비한 조화, 하늘을 날아다니는 공중기교, 세련되고 우아한 집단체조와 민족적 향취가 풍기는 노래와 춤. 정말 매 장면들이 체육과 예술, 최첨단 과학기술이 결합되어 얼마나 신비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 그 황홀함은 컴퓨터환상으로도 그려내지 못할 것이다.≫

그는 계속해 만사람이 하나의 음악에 맞추어 손색없는 집체율동으로 천만갈래의 기교를 펼쳐보이는 모습에서 일심일체를 이루고 있는 이북 민중의 단결된 위력과 조직력을 보았다며 이북의 ≪아리랑≫공연이야말로 **김정일**영도자님의 탁월한 정치지도력의 과시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는 15일 ≪6.15공동선언이행으로 한반도에 드리운 전쟁의 먹구름을 제거하자≫라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핵전쟁위협이 공공연히 진행되는 가운데 대규모 통합군사훈련이 진행된다는 것은 우리 민족의 평화와 통일의지를 기어이 꺾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전쟁반대평화실현공동실천의 주최로 700여개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통합전쟁연습을 반대해 20일 미국대사관옆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한총련은 20일 미국과 한국 군사당국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전국연합과 동아대학교 총학생회가 일본총리 고이즈미의 서울행각을 반대해 20일 성명을 각각 발표했습니다.

대구경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과 대구경북민중연대, 대구경북통일연대 준비위원회 등 46개 사회단체가 공동으로 고이즈미의 한국행각을 규탄해 21일 기자회견문을 발표했습니다.

≪태양절≫에 즈음해 여러 나라 신문이 글을 발표했습니다.

평양방송에 따르면 위대한 **김일성**주석님을 영생의 모습으로 높이 모신 금수산기념궁전을 찾아 21일 이북을 방문한 ≪네덜란드 유럽-아시아집단≫ 총재 양빈을 단장으로 하는 ≪네덜란드 유럽-아시아집단≫남새화초온실합영대표단을 비롯한 외국인사들이 경애하는 주석님께 경의를 표시했습니다.

주체91 3월 23일

서울 종로구에 사는 재야인사 한성호씨가 광화문에 있는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에서 이북 TV프로그램을 본 소감을 묻는 동료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북 TV를 볼때마다 제일 감명깊은 것은 매 프로마다에 자기 영도자에 대한 민중의 티없이 맑고 깨끗한 숭배심이 대하로 굽이쳐 흐르는 모습이다. 이것은 지구촌 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김정일**영도자님의 특출한 정치지도력의 과시로 된다.≫

한씨는 계속해 **김정일**영도자님의 민중사랑의 정치에 대해 강조한 다음 ≪미국이 제아무리 대북강경정책을 쓰고 있지만 하나로 똘똘 뭉친 이북을 절대로 건드릴 수 없다. 나는 무적필승의 이북앞에 미국이 무릎을 꿇고 항복서를 바칠 때가 반드시 오리라고 확신한다.≫고 하면서 **김정일**영도자님을 충성으로 우러러 따르며 받들자고 말해 동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대규모 통합전쟁연습을 규탄하는 성명들을 발표했습니다.

민족화해자주통일협의회,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의 주최로 미국전투기도입반대를 위한 제2차 집중투쟁선포식이 20일 국방부앞에서 진행됐습니다.

전국민중연대 등 10여개 시민노동단체는 21일 고이즈미의 방한에 맞서 일본대사관과 종묘공원 등에서 고이즈미방한반대집회를 가졌습니다.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보장을 위한 범사회인 대책위원회 결성행사가 20일 서울 기독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한국의 투자협정, 세계무역반대국민행동과 일본단체가 21일 공동으로 한일투자협정체결을 반대하는 한일 민중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연세대 총학생회소속 학생 50여명이 등록금인상반대 등을 주장하며 20일 대학본관 2층에서 농성을 벌였습니다.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대선주자인 노무현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당내 경쟁주자들은 물론 한나라당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차상보부회장은 지난 21일 담화를 발표해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을 규탄했습니다.

주체91 3월 24일

범청학련 남측본부는 미침략군의 주도하에 감행되는 대규모 전쟁연습을 반대하는 투쟁에 청년학생들이 앞장설 것을 주장해 21일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전국민중연대와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투자협정 세계무역기구반대 국민행동을 비롯한 10여개 시민노동단체들이 공동으로 고이즈미의 서울행각과 때를 같이해 지난 21일 서울에 있는 일본대사관 앞과 종묘공원에서 기자회견과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는 19일 서울 구로구에서 이회창규탄 거리연설회를 가졌습니다.

민족자주 민주주의민중생존권쟁취 강원민중연대가 대규모 전쟁연습을 중지할 것을 요구해 20일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4월 29일부터 6월 20일까지 평양 능라도 5월 1일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아리랑≫공연을 참관할 참관단을 모집중이라고 21일 밝혔습니다.

위대한 **김정일**영도자님께서 조선인민군 제319군부대 군인들의 군사훈련을 보신 소식을 중국의 길림신문 14일자가 보도했습니다.

한편 15일 기니통신은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조총련의 축하단과 대표단들을 접견하신 소식과 재일조선인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 ≪애국의 꽃≫을 관람하신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선통일지지 스위스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4일 담화를 발표해 이북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계획을 규탄하고 부시에게 항의편지를 보냈습니다.

기니률종국산하 제레꼬레주 졸짱건설운영회사에서 2월 23일 주체사상연구소조 결성모임이 진행됐습니다.

홍콩신문 ≪*** 차이나≫ **13일자가 체니 미국 부대통령의 중동행각과 관련한 논평을 내고 미국의 무력사용책동을 비난했습니다.